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6월 5일)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7월 6일 상월선원 신축불사 착공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新포교거점 상월선원, '불사 START'

서울 봉은사, 7월 6일 위례 현장서 착공식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홉 스님의 천막결사 이후 불교중흥과 미래포교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위례 상월선원 대작불사의 막이 올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7월 6일 위례 상월선원 불사현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00명 이내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종단 부실장 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불사총도감 호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김상호 하남시장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등도 참여했다.

상월선원은 2019년 겨울 아홉 스님들이 동안거 결제에 들어가며 불교 중흥을 염원한 곳이기에 이날 착공 의미는 남달랐다.

착공식 증명으로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선지식들이 당시 부처님께 고한 서원을 뚜렷하게 기억할 것"이라며 "깨달음을 향한 굳은 결기가 불교를 넘어 국가와 세계 속에 널리 퍼지는 전진기지 출발점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1년 후 대웅전과 요사채 불사를 필두로 상월선원의 단계적 불사가 진행되면 종단의 본래 면목인 '참선수행' 풍토 진작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위례 상월선원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3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3000여 평 대지 면적을 자랑한다. 상월선원의 전신은 호국 사자사로 1988년 특수전사령부 내 군법당으로 건립된 이후 30여년 넘게 군포교 터전으로 자리했다. 이후 특전사가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이천으로 이전을 추진하며, 조계종이 도심사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2011년 당시 총무원장이던 자승 스님이 신도시포교종책사업을 제시하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조계종은 주택공사와 위례사업본부 등 의견을 검토해 5년간 협의를 거쳐 2014년 7월 249억 원에 부지인수를 계약, 2019년 7월 매입금을 최종 지급해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2019년 11월에는 자승 스님을 비롯한 아홉 스님이 한국불교 중흥을 기원하는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입재해 천막 속에서 동안거 정진을 시작했고 2019년 12월 봉은사가 위례 상월선원 불사 담당사찰로 확정, 불사가 본격화됐다.

조계종과 봉은사 측은 문화시설 등도 함께 지으려 했으나 지역 반발 등으로 여론수렴 후 연면적 206평 설계를 정해 대웅전을 비롯한 축소된 계획을 확정했다.

1차 불사 예산은 52억 7000만 원으로 공사는 2022년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1차 불사에서는 대웅전 70평, 종무소와 요사채, 공양간 등 부대시설이 136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올해 1월 하남시가 사업계획에 대한 건축을 승인했으며, 5월 착공 승인하여 현재 기초터다지기 등이 진행된 상태다.

상월선원은 건립 이후 지역포교와 수행 중심도량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문화시설 등도 건립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월선원 주지를 맡아 불사를 진행하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앞으로 한국불교 중흥의 씨앗들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과 하남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봉은사와 상월선원의 역할을 올곧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국사자사부터 상월선원까지

1988년 1월	특전사령부 내 호국사자사 건립
2005년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따른 특전사 이전 발표
2011년	특전사령부 경기도 이천 이전 시작
2011년 1월	조계종 신도시포교계획 발표
2014년 7월	조계종 나공사로부터 부지 매입 계약 체결
2019년 7월	조계종 매입금 최종 지급, 부지 소유권 취득
2019년 11월	아홉 스님 상월선원 천막결사 입재
2019년 12월	봉은사 불사 담당사찰 확정
2020년 10월	불사 시행방침 확정
2021년 1월	하남시 사업계획 승인
2021년 5월	상월선원 기반공사 시작
2021년 7월	조계종 상월선원 착공식 개최

대웅전과 요사채 등 1차불사
종단 1백여대표 모여서 축원
아홉 스님 정진 의미 되새겨

나눔의집 상임이사 직대 혜일스님 선출

6일 임시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 직무대행에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나눔의집 운영논란이 불거진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에서, 새 상임이사 선출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7월 5일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임이사 직무대행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혜일 스님은 지난 6월 21일 사임한 박정화 삼육재단 삼육노인요양원장을 대신해, 6월 24일 광주시 추천 임시이사로 추가 선임된 바 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혜일 스님이 상임이사 직무대행으로 새롭게 선출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나눔의집 정상화에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혜일 스님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를 비롯해 다년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조계종 종책특보단장 소임을 맡고 있다.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 상황에서 변화를 이끄는 동시에, 성남 지역 사찰 주지로 나눔의집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불교계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정상화 새 국면에 '주목'
임시이사회 한계 명확해
실질적 타개책 마련해야

일각에선 현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도 이끌 수는 없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나눔의집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데다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5월 나눔의집 운영논란 사태 당시 내부제보를 했던 일부 직원들이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진의 지시를 무시한 채 임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내부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바닥으로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 회복하지 못해, 후원금 등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 1월 지자체 추천으로 임시이사들이 선임되면서 임시이사회 체제로 전환됐지만, 업무상 한계가 뚜렷한 까닭에 변화는 미진하다는 평가다. 이에 조속히 정식이사회 체제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임이사 직무대행 혜일 스님은 "임시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지만 정식이사회가 가동되기 전까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은 유보했다. 다만 "무엇보다 할머니들이 불편함없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혜일 스님은 이사회 참석 전 교육관 3층 법당을 참배하고 이옥선 할머니와 만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보은 법주사 인근 마을 출신으로, 혜일 스님에게 법주사 참배를 요청한 바 있다. 혜일 스님은 할머니에게 "법주사 주지 스님에게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초대해 주셨다"며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될 때 꼭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2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임시이사회 체제 6개월에도 정상화 '요원'

나눔의집 정상화 향방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계 뚜렷한 임시이사회
근본적 개선방안은 없어
내부갈등 고착화도 문제
사회적신뢰 여전히 바닥
후원금의 90% 급감수준
정식이사회 전환 요구도



나눔의집 임시이사회를 앞두고 회의자료를 검토하는 이사들.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이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상임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출되면서, 사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정상화에 새로운 변화가 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운영논란으로 촉발된 이후 시설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 새로운 운영진 체제로 전환해 감사 지적사항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에 불응하는 일부 내부직원들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임시이사회 체제의 한계도 정상화 과정이 더딘 이유로 지적된다.

나눔의집은 올 1월부터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경기도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스님이사 5명을 해임한데 따른 것이다. 이후 이사 스님들에 대한 횡령 등 각종 의혹들이 경찰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경기도가 해임조치를 강행하면서 현재 '해임명령 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등 부당성을 가리기 위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시이사회 체제로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설과 법인 운영 정상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부 내부직원들의 전횡 의혹 및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내부갈등이다. 대표적으로 역사관 직원과 법인 사무직원을 비롯한 일부 내부직원들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여전히 생활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광주시와 경기도 감사에서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던 시설과 법인의 공간·인적 분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할머니들의 거주공간에 너무 많은 인원이 근무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령인 할머니들의 외출과 병원진료 등이 사전보고 없이 일부 직원들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할머니들이 워낙 고령인만큼 자칫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관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표이사 해임으로 역사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한 직원이 공문서상 자신의 직함을 변경하고 임의로 관장 직인을 사용하거나, 운영진의 결정을 무시한 채 계약기간이 종료된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전횡 의혹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논란을 야기한 직원들은 모두 나눔의집 운영논란을 처음 제기했던 내부제보자들로 확인돼,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던 당사자들이 지자체 감사 이후에는 운영진의 개선노력을 되레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내부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사회적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나눔의집 사태가 처음 불거진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후원금 규모는 월 1억6000만원에서 1400만원대로 9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올해까지 월평균 1800만원 수준으로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영군 법인 사무국장은 "이 같은 상황이 임시이사들에게 보고됐고 직접 감사 후 감사보고도 진행됐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다"며 "법인과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운영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조치없이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한다면 사회적 신뢰 회복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타개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권한이 제한적인 까닭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의결만 할뿐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사태 이후 격화된 내부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임시이사회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임시이사회는 현재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할머니 케어와 관련한 조치 위주로 업무를 수행키로 협의한 상태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이찬진 변호사는 "임시이사회는 할머니들은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내부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나눔의집과 관련한 소송은 10건 가량이다. 일부 내부직원과의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사 스님 5명에 대한 경기도 해임명령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이 두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7월 15일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의 1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사태 1년을 넘기면서 정상화 기로에 선 나눔의집이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마곡사 차기 주지후보에 원경·선일·혜룡 스님

마곡사선관위, 7월 7일 후보등록


원경 스님


선일 스님


혜룡 스님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차기 주지후보에 현 주지 원경 스님과 태고사 주지 선일 스님, 전 백운암 주지 혜룡 스님이 입후보했다.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탄공)가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7월 5일부터 7일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원경 스님과 선일 스님, 혜룡 스님이 차기주지 후보로 접수했다. 등록 순서에 따라 원경 스님이 기호 1번, 선일 스님이 기호 2번, 혜룡 스님은 기호 3번이 배정됐다.

원경 스님은 진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1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 성불사 주지, 제13·14·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지냈다. 현재 마곡사 주지를 맡고 있다.

선일 스님은 진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6대 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용암사, 만일사, 광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혜룡 스님은 정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2년 청하 스님의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22안거를 성만했으며 정혜선원 대표 및 백운암 주지를 역임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2일 회의를 열고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와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한다. 마곡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7월 15일 오후 1시 마곡사 관음전에서 진행되며, 이날 차기주지 후보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불자들에게 포교 방향 묻는다

조계종 포교원, 7월 부터 포교종책 개발 설문시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제8대 포교원 집행부의 종책 수립을 위해 7월부터 포교종책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포교종책 설문지는 ①포교종책에 대한 평가 ②'포교' 이미지 조사, ③향후 포교원에서 집중해야 할 계층과 직능 ④포교종책 수립의 주안점 ⑤포교원에서 개발 예정인 중점 사업의 우선순위 ⑥포교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제도 개선 방향 ⑦포교단체 및 신도단체 활성화를 위한 중점사항 ⑧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제언 ⑨포교예산의 확충방안 ⑩포교의 미래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 등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교종책 설문조사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전법중심도량 주지 스님, 사찰 불교대학 학장 스님,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 포교단체장, 신도단체장, 중앙종무기관 차팀장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포교원 측은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부대중의 의견을 전문가들과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2022년초 제8대 포교원 포교종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2기 문화창달위원 위촉

7월 16일 임기 시작 각분야 전문가 15명 위원장에 원명 스님


조계종 백년대계본부가 2기 문화창달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7일 위촉식을 진행했다.

불교전통문화의 계승 및 문화에 기반한 불교발전 방안을 모색할 제2기 문화창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본부장 정념)가 2기 문화창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7월 7일 위촉식을 진행했다. 2기 문화창달위원 임기는 7월 16일부터 2년이며,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에는 1기 위원장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연임됐다.

2기 문화창달위원회는 원명 스님을 비롯해 문화부장 성공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불교의례문화연구소장 법안 스님,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장 경암 스님,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 불교지화장엄전승회장 정명 스님, 금당사찰음식문화원장 대안 스님,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 강선정 화엄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 김호석 화백, 이종만 좋은벗풍경소리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원행 스님은 이날 성보문화재와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남다른 당부의 말을 전했다. 스님은 "문화창달위원들은 각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로 모셨다"며 "국가와 민족, 종단을 위해 불교계가 불교전통 계승 및 문화 창달에 어떤 방식과 방향성으로 기여하고 매진할지를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반환된 사리를 교구본사로 이운했고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자재를 사용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리탑 건립을 추진중"이라며 "이처럼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문화창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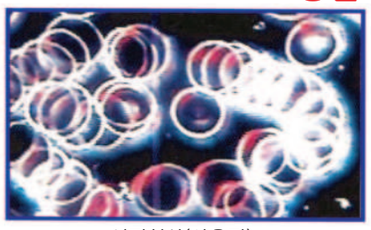
위원장 원명 스님은 "1기 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2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 종단 문화부와 협력해 주요 과제나 사안을 점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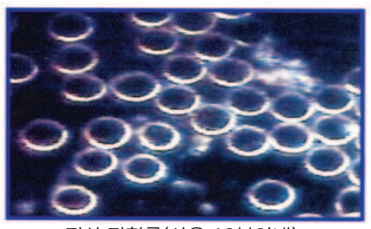
문화창달위원회는 지난 2019년 7월 출범 이후, 좌담회와 사찰순례, 대중강연 휴먼라이브러리, 청년아트마켓 세존예장 등 문화 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연구 사업으로 '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 중이다.

백년대계본부는 "2기 문화창달위원회 전체회의를 빠른 시일 내 소집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종단 내 불교문화 전문가와 활동가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불교 전통문화 계승과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 관련 사업과 연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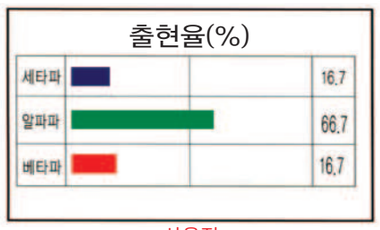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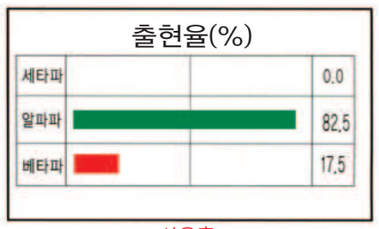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 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 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비누 : 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약 : 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100,000원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

전국비구니회 CPE센터, 영적돌봄가 첫 배출

7월 4일 스님 6명 · 재가자 2명 수료

1월 개소 이래 첫 성과
9월 4일까지 2기 모집
승려연수교육 프로그램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국비구니회는 7월 4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서 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올 1월 개소한 전국비구니회 CPE센터가 첫 수료생 8명을 배출했다. 명상과 심리, 임상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병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만큼, 향후 병원포교 일선에서 불교계 영적돌봄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 영적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양성기관인 CPE센터의 역할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7월 4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서 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1기 수료생은 스님 6명과 재가자 2명.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강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총 16주 4개월 과정의 교육을 완료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본각 스님은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CPE센터에서 받은 교육을 토대로 병원 포교의 원력이 꽃피워지길 바란다"고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CPE센터장 지인 스님도 "간화선이 깨침의 수행이라면 CPE는 업성을 팔정도로 변화시키는 발효수행"이라며 "영적 치유와 돌봄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는 보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인 스님은 CPE센터 첫 수료생을 배출한데 대한 소회가 남달랐다.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해 회원 스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CPE센터가 개소한 이후, 처음 수료생을 배출하니 감동스럽다"며 "앞으로도 영적돌봄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병원포교를 통해 부처님 자비실천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CPE센터는 병환으로 고통 받은 이들은 위해 효과적인 영적돌봄을 제공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정신적 환자 돌봄가 교육, 혹은 임상보디사트바 교육으로 일컬어지며, 임상 현장에서 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수행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올 1월 지인 스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법당 지도법사)을 센터장으로 CPE센터를 개소하고 3월 7일부터 첫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명상과 불학적 심리적 고찰, 상실감 성찰기, 임상강의, 사례중심 교육, 그룹세미나, 중간평가와 워크샵 등으로 진행됐다. 매주 1회 교육이지만 지인 스님을 비롯한 수퍼바이저들이 구성한 교육과정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이어지는데다가, 세미나 자료와 과제물까지 추가로 제출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됐다. 이를 통해 병원포교의 안목을 넓히고 정신적 환자 돌봄을 위한 전문성을 증장시키는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켜 보다 성숙한 영적돌봄이 가능토록 이끌기 위함이다.

가장 핵심적인 강의로 꼽힌 것은 임상강의다. '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영적돌봄(지인 스님)' 을 시작으로 '환자의 총체적 고통과 호스피스 이해(김달용 교수)', '영적진단 영적돌봄(지인 스님)' '영적돌봄가의 역할과 자세(최봉수 교수)' '타종교인을 위한 영적돌봄(지인 스님)' 등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강의로 진행돼 호응이 높았다.

한편 CPE센터는 9월부터 2기 교육을 시작한다. 2기 교육은 9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전국비구니회 CPE센터 대면교육을 유동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스님의 경우 교육비 50%가 할인되며 수료시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30점이 인정된다. 영적돌봄 교육에 관심있는 스님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관련 직업 종사자는 물론, 영적돌봄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3411-8103

10.27법난 41주년 문화로 기린다

조계종, 문예 · 추념곡 공모
9월 1일까지 시 · 산문 접수
추념곡은 작사 · 곡 두 부문

10.27법난 41주년을 시와 소설, 음악으로 기린다. 10.27법난은 1980년 국가권력에 의해 전국 사찰이 유린당해 수많은 피해를 양산한 사건으로, 근현대 최대규모의 불교 탄압사로 기록됐다.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원경)는 10.27법난 41주년을 맞아 전국승려문예공모전과 추념곡 공모전을 개최한다. 10.27법난의 진실을 알려 평화정신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법난 피해로 인한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한 취지다.

전국승려문예공모전은 학인스님을 포함한 전국 스님들을 대상으로 9월 1일까지 진행된다. 시와 산문 두 부문이며, 주제는 10.27법난의 진실, 파사련정, 유구한 역사의 한국불교. 종교적 평화정신 고취, 역사적 상처의 치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제시된다.

대상은 시와 산문 각 1편씩이며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은 부문별 2편(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부문편 5편(상금 50만원) 선정할 예정이다. 02)730-4489

10.27법난 추념곡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단체에게도 참여자격이 주어진다. 작사 부문은 7월 25일까지, 작곡 부문은 7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작곡부문은 10.27법난 기념법회 및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4분 내외 곡으로, 홈페이지에 음원과 악보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최우수상은 1인 500만원, 우수상은 2인 각 100만원이 상금으로 수여된다. 작사 부문은 10.27법난의 역사적 사실을 담거나 화해와 상생을 통해 종교적 평화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노랫말로, 1 · 2절과 후렴을 포함해 3분 이상 분량이다. 제목과 가사 내용을 한글 문서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 1인 200만원, 우수상 2인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작사부문 7월 29일, 작곡부문 9월 27일 10.29 추념곡 공모전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02)705-5334 송지희 기자

조계종 민추본, 평화통일아카데미 개최

8월 13일까지 사전 접수
온라인 강좌 동시 진행도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한반도를 평화와 상생으로 이끌기 위한 강좌가 마련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는 8월 28~29일 '공존 · 상생 · 합심의 평화통일아카데미'를 진행한다. 평화통일아카데미는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9월 4일 강원도 고성 남북접경지역 현장순례도 운영한다. 이에 8월 1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민추본은 "이번 아카데미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대북인식을 전환하고 통일의식을 확대함으로써, 남북불교교류를 위한 미래 인재와 불교계 대북 통일역량을 키우고자 기획됐다"며 "특히 북에 대한 왜곡과 편견의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와 협력, 신뢰의 대상으로서의 대북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카데미는 8월 28일과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4개 강좌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로 현장 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할 방침이다.

첫 강의는 8월 28일 오후 2시 김진환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북한의 통치사상과 권력구조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오후 4시에는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이 '북한 경제 분야 조직변화의 특징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다음날인 8월 29일 오후 2시에는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북한의 외교전략 및 대남전략'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는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북한 문화예술 및 사회문화 교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강원도 고성 남북접경지역 현장순례는 9월 4일 조계사 앞에서 오전 7시 출발해 고성 화진포, 대진항(자율 중식), 고성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등을 탐방하는 일정이다. 이창희 민주평통 정책연구위원이 동행해 고성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해설과 남북 분단문제에 대한 현장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통일교육협의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국고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로, 민추본 후원회원으로 멤버십 가입을 한 후 참가비 없이 신청 가능하다. 02)720-0531 송지희 기자

손원영 교수 복직 촉구

종자연, 입장문 발표

개신교인에 의한 김천 개운사 훼불사건 이후 불교계에 사과하고 복구모금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서울기독대에서 파면당한 손원영 교수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소(이하 종자연)는 7월 7일 입장문을 내고 "절차적 부당함이 명확해진 만큼 학교측은 손원영 교수의 복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종자연은 "어떤 폭력도 정당화되어서는 안되며 극성 개신교인의 그릇된 신앙표현으로 벌어진 법당훼손은 반사회적인 범죄 이외의 다른 설명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한 개신교 신앙인의 행위가 교단으로부터 지탄받아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달빛내륙철도 확정에 '해인사역' 유치 여론 확산

거창군 · 해인사역유치위
"환승역으로서 최적조건"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에서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반영을 결정하면서, 이와 연계한 남부내륙철도의 'KTX합천해인사역' 유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게 일고 있다. 거창군과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 유치위원회'가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합천해인사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 유치위원회' (이하 유치위)는 7월 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달빛내륙철도' 반영에 따른 환영의 입장과 함께 'KTX합천해인사역' 유치를 촉구했다.

유치위는 "KTX합천해인사역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의 문화관광적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달빛 내륙철도의 환승역으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달빛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의 환승역으로 KTX합천해인사역 설치될 경우 여러 강점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유치위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과 가야산 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은 남부내륙철도와 달빛내륙철도가 교차 되는 합천해인사(환승)역이 설치됨으로써 그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KTX합천해인사역은 달빛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가 지나는 1000만명 인구가 사는 영호남 교류 발전은 물론 동서남북 사통팔달 대통합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가야산과 덕유산, 지리산 3곳의 국립공원을 수도권과 중부권 국민들이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거창군도 6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남부내륙철도 합천 해인사 역사 유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거창군은 "남부내륙철도 합천 해인사역사유치는 순환 철도망 구축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연하다"며 "영호남 6개 광역 시도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 거창군은 남부내륙철도 해인사 역사 유치를 위해 온 군민들이 합심해 역사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

“한명이라도 佛緣을…그것이 불교중흥”

수미산원정대 7월 2~3일 법주사서 첫 순례

불자 · 비불자 등 50여명 참여
템플스테이 첫 경험이 대다수
비불자 호감 · 불자 신심 더해
자승 스님 “불교 인연 계기로”

보은 법주사=노덕현 기자

“난생 처음으로 사찰에 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로 평소 불교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인 초청으로 수미산원정대에 가입하고 이렇게 사찰에 와 예불도 하고, 기도도 해보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 수미산원정대 1기 안창섭 씨

“모태신앙이 기독교라 아직도 교회에 새벽마다 예배하러 가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방황하던 저에게 스님들이 마음을 다독여 주셔서 불교가 또 다른 의지처가 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묵은 것은 처음이에요. 앞으로 불자가 아닌 많은 분들이 불교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미산원정대 1기 안수진 씨

불교중흥을 위한 신도배가운동 ‘수미산원정대’가 7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천년고찰인 보은 법주사에서 첫 번째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수미산원정대는 상월결사를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 스님(조계종 前총무원장, 봉은사 회주)의 발원에 따라 결성된 단체로 2월 27일 발대식 후 현재 봉은사에서 이웃종교인, 비종교인 등 불교를 접하지 못했던 이들과 불자지만 아직 불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 사상 등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자비순례 회향과 함께 탈종교화 등으로 인한 불교교세 쇠락을 염려하며 ‘불교와 인연맺기’를 주창, 본인부터 3년간 108명의 비불자를 불자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미산원정대의 성지순례에는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수미산원정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봉은사 총무국장 탄원 스님과 50여 명의 1기 수미산원정대 대원들이 참석했다.

2일 오후 5시 법주사에 도착한 수미산원정대는 저녁예불과, 사찰예절 안내, 탄원 스님 지도 하에 참선 습의 후 ‘상월선원 90일간의 기록’ 다큐 시청으로 첫 날을 보냈고, 직장인으로 구성된 2차팀이 합류한 3일에는 새벽 4시부터 도량석과 새벽예불에 동참하고 108배와 사찰탐방, 반별모임 등 템플스테이 일정을 소화하고 회향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부주지 각운 스님 등 법주사 대중 스님들이 사찰탐방 안내를 담당하며 정성을 다했다.



제1기 수미산원정대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천년고찰인 보은 법주사에서 첫 성지순례를 개최했다.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로부터 이들은 사찰 문화와 수행에 대해 배우고 채험했다.

제1기 수미산원정대에는 절반 이상이 비종교인이거나 이웃종교인이다. 사찰순례서 비불자인 대원들은 첫 템플스테이에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민세진 씨는 “남편이 개신교 모태신앙을 갖고 있어 교회도 나가고 있는데, 불교사상과 많은 부분이 맞는다고 느끼고 있다. 사찰로 찾아오는 이들을 한 분이라도 제대로 안아줬으면 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연호 씨도 “봉은사와 가까운 곳에 법률사무소가 있지만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미션스쿨을 나와 대학은 이른바 공자대학인 성균관대를 나왔고, 가톨릭계인 서강대에서 CEO대학원 과정도 밟고 있다. 지인의 소개로 수미산원정대에 참여하게 됐는데, 템플스테이는 말만 들었지 처음인데 너무너무 좋다. 새벽에 도량석을 하며 나부터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미산원정대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첫째는 템플스테이로 사찰문화를 직접 경험해야 하며, 두 번째는 봉은사 무문템플스테이로 상월선원 천막결사에서 아홉 스님이 보여준 수행정신을 체험해야 한다. 세 번째는 다음 기수를 꼭 데리고 와야 한다. 졸업 후 기수 모임이 계속 유지되며 동문회 형식의 기수별 네트워크도 구성될 예정이다.

아직 불교에 대해 모르는 이들의 열정에 불자인 수미산원정대 대원들도 원력을 더했다. 불자 정치인인 주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황순일 · 김용현 · 신영섭 교수, 김동건 前불교포럼 상임대표 등 불교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여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이들에게 “지난 2019년 겨울 상월선원에서의 정진은 사부대중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불자들이 신심을 더욱 갖고, 비불자들도 불교에 귀의하는 것을 상월결사를 통해 보이고자 했다. 511km를 걸은 자비순례 또한 사부대중이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였다. 한국불교는 승속이, 사부대중이 함께해야 한다. 신심없이 원력없이 불교가 일어날 순 없다”며 “수미산원정대는 단순한 교리공부가 아닌 가라앉는 불교를 되살리는 포교의 장으로 앞으로 불교와 전혀 인연 없는 사람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는 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국선수단 도쿄올림픽 선전 기원합니다”

KCRP, 조계종 포교원 등
진천 선수촌 방문 잇달아

대한민국 선수단의 도쿄올림픽 선전을 기원하는 종교 · 불교계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원행) 공동회장단은 7월 5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단을 만나 선전을 당부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공동회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공동회장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 참석했으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신지용 선수촌장, 정성숙 부촌장등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동행해 선수단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원행 스님은 “올림픽이 2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선수 및 지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대회를 치르는 가운데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을 비롯한 KCRP 회장단은 7월 5일 진천 선수촌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포교원 스님들과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7월 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격려방문은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마련한 자리로 포교연구실장 용주 스님, 포교국장 혜교 스님, 신도국장 혜안 스님,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 및 주윤식 중앙신도회 회장, 문홍식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장 등이 동행했다.

격려방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최소 인원만 참여한 채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신치용 선수촌장, 정성숙 부촌장 등 체육회 관계자들과 차담하며 인사를 나눈 후, 선수촌 곳곳의 훈련장 및 웨이트장을 라운딩하며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방문에서 선수들의 만남은 거리를 두고 이뤄졌다.

이어 스님들과 불자들은 선수촌 법당에서 도쿄올림픽 출전 231명의 명단과 합장주, 〈불교성전〉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과 무사귀환을 축원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우리 선수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움을 뛰어 넘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모든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송지희 · 노덕현 기자

청소년 사경공모전에 몰린 관심

파라미타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작 발표

공모작 접수 사상 최대 기록
특별대상 윤도훈, 조윤서, 김민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지현)가 주최하는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특별대상(종정상)에 윤도훈(동대부고3), 조윤서(동대부여중2), 김민(은석초5) 학생 작품이 선정됐다. 또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수민(창원신월고2) 학생, 특별상은 김미소(금산중3)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예하와 부처님오신날봉축위, 문화체육관광부, 포교원이 후원하는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전하고, 또 수행을 체험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경공모전에는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여했다. 코로나로 청소년 활동에 제한이 가해진 상황에서 사경에 인기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접수 인원은 2020년 대비 약 3000명 늘어난 2만 3000여 명으로 파라미타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사상 최다 인원이다. 파라미타는 150여 단체작품 중 자체 심사를 통해 678여 점을 추천받아 6월 10일 자체심사와, 6월 14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번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별대상을 수상한 윤도훈 학생은 종정예하 법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를 사경하고, 탐욕과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을 이미지로 표현했다. 조윤서 학생과 김민 학생은 〈법구경〉 내용 중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구절을 사경했다.

김경호 사경장은 “올해는 과거 그 어느 해보다 출품작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여겨졌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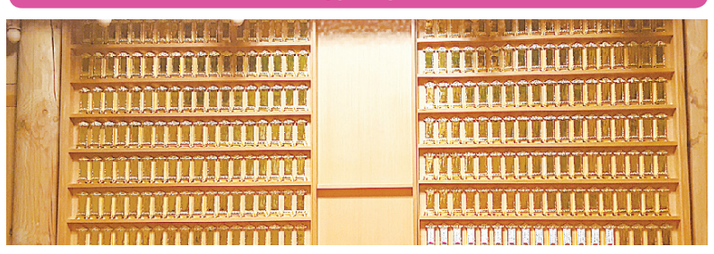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환갑 맞은 佛緣공동체 향상일로 하길

〈경불회 60년사〉 펴낸
경불회 동문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경북대 불교학생회 60년사〉를 편찬한 동문 모임 한마음회 회원들. 사진 왼쪽부터 조병활 성철사상연구원장, 박경희 한마음회 前 회장, 곽동달 한마음회 회장.

한 단체가 60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대학 동아리는 더욱, 종교 관련 동아리라면 더더욱.

실제, 2000년대 들어 대학 불교 동아리는 쇠퇴일로를 겪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대학 불교 동아리는 약 60여 곳. 한때 120여 곳이 활동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환갑을 맞은 경북대 불교학생회도 부침이 있었다. 2018년경에는 신입회원이 들어오지 않아 폐쇄직전까지 갔으나 동문과 지역불교계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제는 40여 명이 활동하게 됐다.

동문 지원의 중심에는 경북대 불교학생회 동문 모임 한마음회가 있었다. 한마음회는 최근 경북대 불교학생회 역사를 정리한 〈경북대 불교학생회 60년사〉를 발간했다. 성철사상연구원에서 한마음회 대표 동문들을 만나 60년사 발간 이유와 활동에 대해 들었다. 이날 자리에는 박경희 前 한마음회 회장(76학번 전자공학 · 64)와 곽동달(80학번 전자공학 · 60) 한마음회 회장, 조병활(86학번 영어영문학 · 54) 성철사상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재학생 · 동문 법우 역량 집결

가장 먼저, 60년사 발간의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박경희 前 회장은 "대구 · 경북 불교 학생회 중 가장 오래된 경북대 불교학생회의 역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고 싶었다"면서 "10년 전 한마음회 회장으로 활동할 때 50년사를 준비하면서 재학생, 동문 법우들의 역량을 재집결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60년사를 편찬하면서 다시 회원들의 역량 결집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50년사에 이어 60년사까지 연이어 발간할 정도로 경북대 불교학생회의 자부심은 남다르다. 이는 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경북대 불교학생회의 태동은 1958년으로 올라간다. 1958년 장병화 등 10여 명의 학생들이 대안사에 모여 법륜회라는 경북 불교학생 모임을 창립한다. 이들 창립법회에는 당시 조계종 종정이었던 효봉 스님과 총무원장 청담 스님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조병활 원장은 "1950년대만 해도 대학생이라고 하면 사회 최고 엘리트였다. 그런 엘리트들이 불교학생회를 결성한다고 하니 종단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경북대, 청구대, 한국사회사업대 대학생들이 참여하며 회원들이 많아지자 경북대 내에 불교학생회를 창립하기로 했다. 창립모임에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1960년 경북대 불교학생회의 역사는 시작된다.

1960년에 창립, 지난해 60년 맞아
회원 · 동문 재결집위해 史書 편찬

서클룸 없이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1980년대 교내 서클 중 최대 인원
교대 · 공대 학우 참여 높아 '특이'

동문 한마음회 결성해 유대 이어
후배들 장학금 등 대학 포교 노력
"종단, 어린이·청년 포교 관심을"

소규모 모임이다보니 현재 같은 동아리실도 없었지만, 경북대 불교학생회는 팔공산, 운문사 등을 등산하며 사찰을 순례하는 등산법회를 통해 신행활동을 이어갔다. 대구 보현사에서 봉행되는 경북 지역 전체 연합회 형식의 법회와 법륜회 체육대회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1970년대 회원 수가 늘어나자 교양강의실을 대여해 지도법사를 모셔서 1주일에 한번 정기 법회를 진행했다. 초기 지도법사에는 중앙승가대 前 총장 종범 스님도 있었다. 신입생 가두 모집을 시작한 것도 1970년 이후부터다. 신입생환영법회, 수련대회, 불교강연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경북대 불교학생회는 대학 불교 동아리의 기틀을 다져갔다.

1980년대는 동아리 전성시대였다. 경북대 불교학생회도 최고 전성기를 맞는다. 새로 건립된 학생회관 내 정식 동아리실을 배정받았고, 회원수도 140여 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곽동달 회장은 "당시 경북대 불교학생회에 불교사상 대강연회를 매년 개최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강의장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1980년대 대학생들은 불교 사상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다보니 에피소드들도 적지 않다. 80년대 활동했던 곽동달 회장의 이야기는 당시 열정과 동문간 유대를 느끼게 해줬다.

"기금 모연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 사찰들을 많이 다녔는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나요. 가는 차비만 달랑 들고 가서 현지에서 경비를 조달했죠. 모연 받은 보조금 중 10%로는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한번은 해인사 지족암에 일타 스님을 친견하려고 갔는데 스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근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합천에 사는 동문 선배를 수소문해서 하루 신세를 졌죠. 차비도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동문 선배와의 유대가 경북대 불교학생회를 이끈 힘입니다."

조병활 원장 역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가면, 동문 선배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학생이었던 우리에게 항상 차비와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시곤 했다. 지금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술회했다.

동문, 경북대 불교학생회의 힘

경북대 불교학생회의 특이점은 공대와 교대 법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공대 출신 동문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금성전자 등 대기업에 취업했고, 교대 출신 동문들은 교사가 되거나 교수로 활동했다. 동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동문 모임도 결성됐다.

경북대 불교학생회 동문 모임인 한마음회는 1973년 69학번 오상룡, 김윤래 법우 등이 주축이 돼 창립됐다. 서울로 상경해 활동하는 법우들이 많아지면서 1990년에는 재경(在京) 한마음회가 결성되고 2005년에는 전국 한마음회가 만들어져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마음회는 현재 1000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는 매년 정기총회와 상하반기 순례 등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줌으로 총회를 하고 있다.

현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활동을 후원하는 것도 한마음회의 주요사업이다.

박경희 前 회장은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에게 한 학기에 100만 원씩 총 매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부처님오신날이나 행사 등 지원도 이뤄진다. 한 해에 600~800만 원 정도를 학생들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0년사 발간 이후에는 회장과 부회장 이외에도 활동이 활발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같은 동문들의 노력과 활동으로 경북대 불교학생회는 폐쇄 위기를 넘어 현재는 40여 명이 활동하는 동아리가 됐다. 현재 회장인 배수연 학생은 언니도 경북대 불교학생회장을 맡았었던 만큼 세대 전승도 잘 이뤄지고 있다.

"지원 · 관심, 대학 포교를 살린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학 포교의 중심에 있는 한마음회에게 대학 포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모두들 지원과 관심을 가장 먼저 꼽았다.

박경희 前 회장은 "현재 지도교수인 성의자 교수가 경북대 불교학생회 출신"이라며 "지도교수부터 지역불교계, 동문들이 뛰니 학생들의 가입이 이어졌다. 결국 지원과 관심만이 대학생 포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곽동달 회장은 "어렵고 딱딱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친목모임 같이 느슨하게 갈 때 학생들이 조직으로 잘 흡수될 수 있다"면서 "명상이나 영어 불교 스터디 등 현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병활 원장은 "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으로 이어지는 계층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종단의 관심이 중요하다. 또한 모여진 종단의 관심을 어떻게 실수요 대상자들에게 표출 · 전달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환갑을 넘어서 경북대 불교학생회가 앞으로도 지속 ·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동문이다. 동문사회의 중심에 있는 한마음회는 학생 지원을 위한 기금 모연에 향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곽동달 회장은 "현재 장학기금으로 7000만 원 정기 적금이 있는데, 앞으로 장학금 재원을 더 확충하고자 새로 계좌를 개설했다. 1인 1후원구좌 사업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일단락된 보림사를 종무원이 무법부당하게 처분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보림사 신도들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일단락된 보림사를 태고종 종단이 계속하여 무법 부당하게 탄압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공표한다
■ 보림사는 대웅전 불사를 위해서 보림사 소유 건입동 407-3 번지 현 칠머리당굿 및 도로편입 부지를 제주시청에 매각하였다하여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주지스님 고한윤을 주지직과 승적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 보림사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처벌의 부당성에 대해서 2003년 3월 7일 서울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3년 6개월 동안 소송 끝에 아래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 아래와 같이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종무원과 중앙총무원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파기 환송된 2심과 종단의 내부 규정만을 고집하며 주지스님에게 중징계를 단행한 것은 권력남용으로 원천무효이다.
■ 우리 신도일동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유린하고 대법원 판결을 거역하는 제주종무원 소속으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음을 깨닫고 2021, 4.27 탈종하였다.
■ 보림사를 불법으로 탈취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동일한 사유로 종무원장이 바뀔 적마다 권력을 남용하여 주지스님을 제적하고 보림사를 괴롭히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 우리 신도일동은 3년 6개월이란 긴 소송을 치루면서 피 눈물 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동안 보림사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탄압과 만행들을 보면서도 불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인욕 정진 기도하면서 20여 년 동안 분노를 참아왔다. 이제 더 이상 한계를 느껴 우리 신도들의 앞장서서 필사의 각오로 보림사를 사수하기로 결의하였다.

대법원 판결 내용

지방법원	보림사 승소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보림사는 신도의 소유사찰로서 보산 보림사 주지스님이 징계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판시 보림사가 승소하였다.
고등법원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고한윤 스님의 징계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종교단체 징계 무효 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 법 원	보림사 승소	대법원에서는 인권보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극심한 불법행위나 비위가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종헌 종법으로 멸빈이나 승적 박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 종무원과 중앙총무원이 내린 가혹한 중징계는 인권보호차원에서 헌법과 일반법으로 보호되어야 함으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결하였다.

결 의 문

1. 우리 신도 일동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무시하는 종단의 내부규정을 인정 할 수 없다.
2.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사찰을 탄압하는 종단의 반인권적 반국가적 오만과 만행을 규탄한다.
3. 불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면서 보림사를 탈취하려는 일부 관련자들의 음모를 즉각 중단 하고 사죄하라. 보림사 비상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파헤치고 이에 대응한다.
4. 우리 신도일동은 신도들의 시주금과 희사금을 모아 100% 자력으로 창건한 우리사찰을 어떠한 탄압에도 목숨 걸고 끝까지 사수한다.

이상 보림사는 불미스런 소송 사건으로 도민들과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도일동은 자유자재한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가서 탐진치(貪瞋痴)의 무명(無明) 밝혀 진여(眞如) 깨치게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정진하고 올바르게 전법, 포교하고 진정한 불법 도량으로서 새롭게 탄생 할 것임을 전 도민과 불자들에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2021.7.1

보림사 신도회장 문 영 신
비상대책위원장 장보철 외 신도회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이사, 임원 신도일동

이 사 강복순, 고영욱, 고한요, 고한홍, 김명순, 김복희, 김성근, 김호성, 문군자, 문두흥, 문순일, 박경찬, 박명자, 박영희, 변수녀, 서근숙, 양명옥, 오연자, 오민선, 오인숙, 오지은, 장민우, 장보철, 조경식, 조정숙, 조찬숙, 좌광호, 최재윤, 최춘옥, 한승연, 한재춘, 현옥문 (32名)

광성사, 달라이라마 생일축하법회 개최

수행지침서 〈람림〉 증보판 봉정

달라이라마 '선한 마음' 강조 법문 〈람림〉 절판 후 인기에 증보 발간 수행 차제에 대한 내용 대폭 수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광성사는 7월 6일 경내 법당에서 '달라이라마 생일 기념법회 및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증보판 봉정식'을 개최했다.

한국티벳불교사원 부산 광성사가 달라이라마 존자의 86세 생일 기념 법회를 진행하며 〈람림〉 개정 증보판을 봉정했다.

부산 광성사(주지 소남)는 7월 6일 경내 법당에서 '달라이라마 생일 기념법회 및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증보판 봉정식'을 개최했다.

기념법회는 삼귀의 및 카닥 공양 올리기와 봉정식 및 달라이라마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장수 기도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은 '구루 요가 기도문'을 차례로 읽으며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를 되새겼다. 구루요가 기도문은 주지 소남 스님이 달라이라마 존자의 생일을 기념하며 주지 소남 스님이 한역했다.

소남 스님은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86세 생일을 맞아 선한 마음을 내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선한 마음 말고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다. 늘 선한 마음을 내어 주시기를 바라셨다"고 전했다.

광성사가 부처님께 봉정한 책은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개정 증보판이다. 개정 증보판은 총 5000부 발행됐다. 광성사 뿐 아니라 한국 사찰에서 수행하는 모든 불자들이 읽고 수행하기를 발원한 주지 소남 스님의 원력이 담겼다.

소남 스님은 "강의를 하며 설명했던 내용들을 추가 보완해 새롭게 정리했다"며 "광성사 뿐 아니라 한국의 사찰들과 불자들이 보고 성장과 수행의 길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은 2004년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이란 제목으로 처음 발간됐다. 이 후 책이 절판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책을 찾는 불자들이 많아 재출간을 결심, 첨삭 보완해 새롭게 출간됐다.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맑은소리맑은나라)은 '로죵(마음 바꾸기)' 수행과 '선정(사마타)'을 비롯한 상사도의 수행차제에 대한 내용이 대폭 수정 보완됐다.

특히 이무아(二無我)에 관한 불교 사대학파별 견해와 밀교의 수행체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이전 책에서 간략하게 다루었던 '지혜(위빠사나)'와 금강승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추가했다. 또 중관의 견해에 통달한 빨덴 닥빠 스님이 최근에 저술한 공성과 자비에 관한 핵심 요약 또한 번역해 부록에 실었다.

〈람림(Lam-rim)〉은 쫑카빠 스님(1357~1419)이 1402년 티베트 라싸 북쪽 레팅사에서 쓴 〈보리도차제〉의 다른 이름이다. 티벳어 '장춥 람림'을 줄인 말이며, '장춥'은 깨달음을 뜻하고 '람'은 길 '림'은 순서라는 의미이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단계적 수행을 안내하는 티벳 불교 대표 수행 지침서이다. 보리심과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첫 단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반드시 실천 수행해야 할 핵심 내용을 갖추고 있다.

주지 소남 스님은 "달라이라마 존자의 생신에 맞춰 책을 봉정했다. 수행을 향한 염원이 담겨 더 뜻 깊은 생신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며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공부시간을 열려고 한다. 내년 다음 생신 때 공부의 결과로 다시 축하하는 회향을 맞자"고 당부했다.

종립 금정중, 다목적 인성교육관 설립

'반야원 및 다목적 인성교육관 조성 기념법회' 봉행

교화활동 및 인성교육 장소
비종교 학생에도 장소 제공
법당 외 상담 · 인성실 위치



금정중학교는 7월 7일 교내 법당인 금정법당(반야원)에서 '반야원 및 다목적 인성교육관 조성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에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상담을 위한 '다목적 인성교육관'이 새롭게 조성됐다. 금정중학교(교장 권장석)는 7월 7일 교내 법당인 금정법당(반야원)에서 '반야원 및 다목적 인성교육관 조성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과 권장석 교장, 이석언 교법사, 학부모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권장석 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준 모든 내외 귀빈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앞으로 반야원과 다목적 인성교육관은 본교 건학이념의 뜻에 따라 교화 활동과 인성교육의 새 터전으로 그 역할을 다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시대에 맞는 불자 인재 양성 교육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사장 취임 후 낙후된 학교 법당을 보며 아쉬움이 많았다"며 "역사에 어울리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고 오늘 그 결실을 보니 무엇보다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인성과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전법의 장으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언 교법사는 "요즘은 이웃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많다. 법당을 꺼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목적 교육실과 상담실을 갖춰 종교가 달라도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 큰 수확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불사를 위해 이사장 스님과 이사 스님들의 후원이 무엇보다 컸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금정중학교 법당인 반야원은 1996년 별관에 석가모니불을 봉안하고 15평 규모로 조성됐다. 1997년 6월 학부모 신행단체 반야불자회가 창립돼 활기를 띠었고 종교 수업과 예불, 행사, 교학 상담 등 학생들을 위한 교내 전법도량으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법당 반야원은 시설이 낙후 돼 새로운 환경 개선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번 불사를 위해 이사장 경선 스님과 이사 스님들이 5000만원을 후원했다.

금정중학교는 법당 뿐 아니라 교내에 부처님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신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당 반야원에 모신 석가모니불(석조여래좌상)은 200년이 넘는 역사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부산시 문화재자료 제52호로 등록 되었으며 2013년에는 후불탱화 및 호법신장탱화를 조성했다. 특히 2019년에는 교내 야외 자비동산에 석가여래불을 새롭게 봉안 한바 있다.

하성미 기자

민추본 부산, 한반도 평화 특강 눈길

7월 2일 홍법사 교육관서 개최



민추본 부산경남은 7월 2일 홍법사 교육관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찾기 ·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경남본부(이하 민추본 부산경남)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특강을 개최했다. 민추본 부산경남(본부장 정관)은 7월 2일 홍법사 교육관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찾기 ·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김진환 교수가 담당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로 활동하며 민추본 정책기획위원 및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 및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 개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는 〈동북아시아 열국지〉가 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주변국과 강대국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주성을 갖추려면 하나되는 구심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는 지리학적으로 대륙입장에서는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없게끔 막아주는 '칼'이나 '방패'의 역할을 했다. 해양의 입장에서는 대륙 진출의 '다리'로 이용했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력을 원심력이라 할 수 있다"고 먼저 설명했다. 이어 "원심력은 우리가 제어하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 단결된 힘인 '구심력'이 강하면 원심력을 뛰어넘게 된다. 남과 북이 구심력을 키우고 힘을 합치면 강대국들에 의한 원심력이 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부장 정관 스님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좋은 특강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아픔을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조금만 더 한발 나갔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강의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정관 스님(민추본 부산경남 본부장), 석산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총장)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경봉 스님 39주기 다례재서 인재불사

경봉장학회 총 3900만원 전달



한국 근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사, 경봉 스님의 열반을 추모하는 다례재가 봉행됐다.〈사진〉 아울러 경봉 스님의 인재불사 원력을 잇는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경봉문도회(대표 원명)는 7월 6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대선사 열반 39주기 추모다례재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추모다례재는 문장 원명 스님, 원산 스님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추모다례재는 △개식 △대중삼배 △추모입정 △종사영반 △헌다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 △문도 대표 인사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봉장학회 장학금은 동국대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7명, 학사과정 7명, 중앙승가대 석사과정 3명, 학사과정 9명 총 27명에게 각 100만 원씩 2700만 원이 전달됐다. 아울러 통도사 승가대학 8명에게 50만 원 400만 원과 선원에 수행지원금과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연구비로 800만 원을 지급해 총 3900만 원이 전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압축한 경전!
반야심경 제대로 공부하기



불교의 공空사상을 담은 방대한 600권 『반야경』의 정수를
간략하게 260자로 압축한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이광준 지음/184쪽/값 12,000원

정토에 관한 최초의 논서!
용수보살, 정토를 설하다



– 『이행품易行品』 강의 –
정토사상의 핵심을 다 망라하고 있는 용수보살의 『이행품』에 대해,
그 구성과 내용, 의미, 사상 등을 상세히 설하였다.

혜정법사 법문/정전스님 번역/492쪽/값 23,000원

재가 및 출가 수행의 생생한 체험기!
너울치는 삶에서 달을 건져라



재가 수행자에서 늦깎이 수행자로! 수행 여정에서 만난
각종 장애들과 깨달음, 선지식들과의 인연과 가르침이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법운 지음/268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남부 지역 집중호우로 사찰 피해 속출

대흥사 · 신광사 등 도로파괴 및 싱크홀

최대 500mm 넘는 폭우 대흥사 진입도로 유실돼 경남 사찰 불상 등 훼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남부 집중 호우로 인해 사찰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왼쪽은 부산 묘위선원 집중호우 피해현장, 사진 오른쪽은 거제 신광사 무너진 축대 사진.

남부 집중 호우로 인해 사찰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왼쪽은 부산 묘위선원 집중호우 피해현장, 사진 오른쪽은 거제 신광사 무너진 축대 사진.

남부 집중 호우로 인해 사찰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해남지역 집중적 호우로 인해 **해남 대흥사**(주지 법상)는 큰 피해를 입었다. 7월 5일부터 내린 비는 해남군 현산면 533.5㎜를 최고로, 해남과 전남 남부 일대에 500㎜에 달했다. 이 비로 인해 대흥사와 인근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다.

대흥사는 입구에서부터 계곡 범람으로 도로가 유실되고, 도로를 끼고 있는 교각과 석축 등이 파괴됐다. 산내 암자로 가는 도로의 경우 대부분 유실되어 차량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가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찰 성보와 주요전각에 대한 안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박명규 대흥사 종무실장은 "현재까지 전각과 성보 쪽에는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계곡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계곡을 끼고 도로가 나 있고, 계곡 교차지점에 교각이 설치되어 있어 추가적인 도로유실과 교각 및 석축 붕괴가 우려가 되고 있다. 추후 씽크홀 같은 위험한 도로상황이 있을까봐 스님들과 신도들의 통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찰 운영에 대해 박 종무실장은 "현재 사찰에서는 도로에 유입된 여러 잔재물은 치워놓은 상태다. 추후 빠른 복구를 통해 안전하게 사찰을 올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남군 담당 부서에서 복구 예산을 먼저 긴급지원해 줘 복구가 가능한 부분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에서도 호우 피해는 이어졌다. 7월 4일 **거제도 신광사**(주지 선안)는 축대가 장맛비로 인해 무너졌다. 무너진 축대에서 10m 가량 떨어진 곳에는 경남 유형문화재 제48호 오량리 석조여래좌상이 있고 반대편에는 종각이 위치해 충격 등으로 붕괴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량리 석조여래좌상은 1950년경 오량리 절골의 석불암 앞산에서 발견된 불상이다. 거제도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지방문화재로 중요도가 높으며 1170년에 고려 의종이 거제도에 폐왕성(廢王成)을 쌓고 3년간 머물면서 만들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현재 신광사는 거제도 문화관광과에 연락해 문화재 보호 및 관리 협조를 해놓은 상황이다.

주지 선안 스님은 "잘못하면 문화재와 사찰이 훼손 될 위기에 처했다"며 "장마가 이제 시작이라 걱정이 많이 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급한 관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우 피해는 부산시내 사찰에서도 발생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묘위정사**는 사찰을 둘러싼 담이 무너지고 경내 미륵불이 쓰러졌다. 이는 7월 6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해 묘위정사 지반이 침하된 것에 따른 것으로 미륵불이 스러지며 주변에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묘위정사는 장마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장마 이후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련 광주지구 무등산 숲 법회 눈길

아이들에게 사찰과 자연을 함께 즐기는 어린이 법회가 있어 화제다. 사)동련 광주지구(지부장 지장)는 7월 4일 무등산 동원사에서 '사찰 주변에는 뭐가 있지?'를 주제로 제32회 숲 법회를 개최했다.

법회는 1부 사찰에서 스님과 함께 하는 명상, 연꽃지 활동, 스님의 법문을 듣는 어린이 법회와 2부 숲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숲에서의 자연놀이를 통해 나무, 곤충, 식물 등 숲의 생태를 관찰하고 살펴보며 숲의 선한 영향력을 체험하는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지장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사찰 주변에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는 삼형제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환경교육 실시



한마음선원 '지구살리기' 특별강좌에는 60여명의 참가자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7월 3일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 살리기 위한 환경교육이 사찰에서 열렸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7월 3일 대웅전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겸한 교육을 진행했다. 국가환경교육센터의 후원으로 진행한 한마음선원 '지구살리기' 특별강좌에는 60여명의 참가자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구환경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도움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번 특별강의로 통해 작은 실천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3시간 넘게 진행한 이날 강좌에서 환경교육사 심선화 강사는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구분', '분리배출 방법', '종이팩의 향후 활용' 등에 대한 시원한 답을 제시했다.

특히 일상적으로 마시는 생수병일 경우 "용기를 비우고, 스티커 분리, 공기압을 빼고 납작하게, 뚜껑을 닫아 분리해야 한다" 등 세세한 설명까지 곁들여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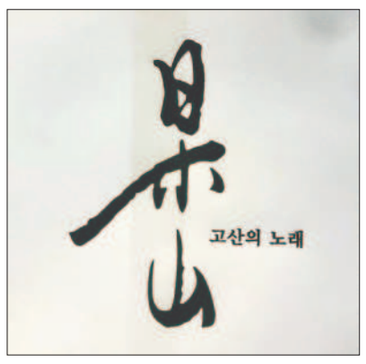
심 강사는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의 생존적인 문제이다. 작은 실천이 결국 우리의 다시 살리는 길이니 관심을 갖고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산 스님 생전 게송 음반으로

가수 조영남, '고산의 노래' 발매

고산 스님 〈음다 34송〉 등 생전 게송 음악으로 재구성



지난 3월 입적한 고산 혜원(慧元) 대종사가 생전 쓴 시가 음반으로 재탄생했다. 가수 조영남 씨의 노래를 통해 음악 앨범으로 발매된 것이다.

쌍계사는 7월 8일 고산 스님의 게송을 바탕으로 '고산의 노래'가 발매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산의 노래'는 가수 조영남 씨와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등이 작곡과 작사에 참여해 만들었다.

이번 앨범에서는 고산 스님의 저서인 〈음다 34송〉을 바탕으로 '음다 1-3절', '옴마니 반메훔' 등 노래 20곡이 수록됐다.

이 중 〈음다 34송〉은 차를 마시는 것을 통해 삼매에 이르는 경지를 표현한 게송으로 1975년 고산 스님이 쌍계사 주지 부임 후 차밭을 일구고 2004년 다맥전수를 기해 지은 것이다.

초의 스님의 동다송에 버금가는 차에 관한 게송으로 평가받는 〈음다 34송〉은 고산 스님 출가 70주년을 기념해 책으로도 발간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앨범에 수록된 '옴마니 반메훔', '열반의 노래'는 조영남 씨가 지난 3월 고산 스님 영결식 때 고인을 추모하며 부른 곡이다.

조영남 씨는 개신교인이지만 생전 고산 스님과 남다른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작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고산 스님은 조 씨를 위로했고, 이에 조 씨가 스님 입적시 스님을 추모하는 노래를 불렀다.

쌍계사 측은 앨범에서 "이 음반은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선 고산대선사가 쓴 게송을 가수 조영남이 작곡했다. 뼛속 깊이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가수 조영남은 노래로 맺어진 고산대선사와의 우정으로 불교시를 대중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193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난 고산 스님은 13세에 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1948년에 사미계를, 1956년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고산 스님은 기도와 정진을 쉬지 않고 오로지 경과 율을 연구해 경 · 율 · 논 삼장을 습득했다. 1961년 당대 제일 강백인 고봉 스님에게 전강을 받고 청암사 · 범어사 등의 강원에서 후학을 제접했다. 1972년에는 당시 대율사인 석암 스님으로부터 전계를 받아 쌍계사의 전계사가 됐다. 이후 고산 대종사는 교(敎)를 버리고 선(禪)에 들어 선지(禪旨)의 깨달은 바가 있어 몸과 마음을 연마하고 모든 반연을 놓아 버렸는데 두 해를 지나 놓아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순회 포교와 전법교화에 매진했다.

고산 대종사는 쌍계사의 전계사와 조실을 겸해서 30여 년을 주석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 전계대화상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산 광명사 백중천도법회 입재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는 7월 4일 경내 지관전에서 선망부모 조상 우란분절 백중천도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신도들은 49일 동안 한 글 〈부모은중경〉을 독송하며 선망부모 조상의 왕생극락을 발원한다.

법회에는 춘광 스님을 비롯해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법회는 명종, 개회선언, 삼귀의례, 봉행사가 이어졌으며 천도의식이 봉행됐다.

주지 춘광 스님은 "선망부모 모든 영가님께서는 극락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오늘 모든 불자님들과 모든 영가님들께서는 계율을 잘 지켜 업장을 소멸하고 행복한 정토에 갈 수 있도록 발원하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태종 부산 광명사는 7월4일 백중천도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왜! 스타급 가수들의
전용 마이크가 일억이 넘을까요?....
그것은 저급한 시설에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가 매우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 마이크 하나만 바꿈므로 소리를 몇배의 성능으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58만원

시중에 없음
마이크만 구입 가능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日, '온라인 승려 클리닉' 화제

포교활동, 기도 없이 상담에만 응해

2020년 9월에 상담 시작해
스님 8명서 32명으로 증가
20%가 장기고객으로 연결

박영빈 객원기자



원하는 스님을 선택해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승려 클리닉'.
사진출처=온라인 승려 클리닉 공식 사이트

종교, 성별, 상담주제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스님을 선택해 고민을 상담한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람들의 대외활동이 줄어들고, '코로나 블루' 라고 하는 새로운 우울현상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상담이 각광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스님들과 온라인으로 상담을 이어주는 사이트들이 등장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7월 2일, 일본의 '데일리 신쵸' 는 온라인으로 스님들에게 상담하는 사이트, '온라인 승려 클리닉' 에 대해 보도했다.

사이트의 첫 화면에는 "그래, 툭 터놓자"라는 선전문구와 함께 스님들의 온화한 얼굴들이 늘어서 있다. '온라인 승려 클리닉' 은 일본 전국 각 종파의 다양한 스님들에게 고민이나 우울감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블루' 현상이 증가하면서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사이트를 개설한 주식회사 '와쿠 프로젝트' 의 타시로 시노무 이사는 "본사는 원래 전국 사찰들의 템플스테이를 소개하고 예약을 받던 포털 사이트 '테라하쿠' 를 운영해 왔다. 그 일환으로 스님들과 대중들을 연결하는 사이트를 개설 하게 된 것이 시작"이라고 운영계기를 전했다. 또 운영에 대해서는, "2020년 9월에 처음 사이트를 개설했다. 당시엔 사찰이나 불교색을 드러내면 대중들의 접근성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누구나 가볍게 들리고 맘 편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란 뜻에서 '온라인 스님 바(bar)' 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점차 사이트가 입소문을 타고, 코로나의 확산 등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하고 싶다는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좀 더 전문성을 넣어 '온라인 승려 클리닉' 이라는 이름으로 리뉴얼했다.

리뉴얼 후 상담에 대응하는 스님은 8명에서 32명으로 대폭 증가됐다. 온라인으로라도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스님들의 자발적인 참가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스님들도 대거 포섭됐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트랜스젠더 스님, 미혼모로 육아를 하고 있는 스님, 현역교사, 임상심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스님들도 함께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일반적인 상담 사이트들과 동일하다. 스님들의 사진과 자기소개 등을 보고, 또 상담후기 등을 참조해 스님을 선택한다. 이후 일시를 확인하여 상담 당일 이메일로 발송되는 접속주소를 통해 스님과 이야기 할 수 있다. 상담시간은 30분을 기본으로 기본요금 3300엔(한화 34000원)으로 10분씩 연장이 가능하다.

스님들이 상담에 응하지만 포교나 기도 등의 신행활동을 권유하지는 않는다. 타시로 이사는 "스님들께서 상담에 응해주시는 것은 불교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시는 것이고, 실제 상담내용에 명상이나 마음챙김등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스님에게 상담을 하고플 뿐, 불교에 관심을 두고 접근하는 분이 드문 것이 사실이다. 상담사 스님들께서도 이 점을 이해하여 직접적인 권유 없이 상담에 응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스님들도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담사로 등록된 오다 코게츠 스님은 "지금 당장 상담하고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예약과 온라인 대면이라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도 상당하다.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한 상담창구도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현재 '온라인 승려 클리닉' 측은 스님들의 의견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조합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과학자 꿈꾸던 미국인, 승려가 되다

매일신문, 승려이자 사회과학자 콜린 가비 스님 소개



일본 전국 일간매체 매일신문(每日新聞)은 10년 전 일본으로 건너와 불교 승려가 된 미국의 사회과학자 콜린 가비(Colin Garvey · 36 · 사진)를 소개했다. 해당 매체는 7월 2일 보도를 통해 "미국 인디애나주 출신의 콜린은 일본 불교에 귀의했을 때 마음을 비우고 한 가지에만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는 선(Zen) 명상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다"며 "그런 그는 인공지능(AI)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첨단 기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콜린은 "유년 시절부터 과학자를 꿈꾸며 종교 · 철학에 대해선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무언가를 믿고 연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그가 변화한 것은 대학 시절인 23살 때 일본을 방문하면서부터다. 그는 미국 뉴욕주 바사대학(Vassar College)에서 일본어를 전공했고, 졸업 후 일본 니가타(Niigata)현에 위치한 초중등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게 됐다. 일본에서 2년간 지내면서 '나는 왜 일본에 계속 머물고 있는가' 를 생각하던 그는 우연히 일본 조동종 사찰인 사이묘지(Saimyo-ji) 사찰의 주지 사토 두순(Doushun Sato · 52) 스님의 '좌선 명상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당시 "명상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 훈련"이라는 스님의 법문을 들은 후 불교 명상에 빠져들게 됐다는 게 콜린 스님의 설명이다. 이후 콜린은 27살 되던 해, 사토 두순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승님은 그를 살게 한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유대를 소중히 여겼다"며 "그런 스승님을 보면서 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고했다.

이에 그는 미국 뉴욕의 랜셀러(Rensselaer) 카운티 폴리텍 대학에서 과학기술사회학을 전공, 7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가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승려가 됐고, 소엔류 콜린 가비(Soen Shunryu Colin Garvey)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창업 1100년, 最古불교용품점 눈길

전통기술 보존 사명 이어가

금강저 등 전문용품 취급
세대 전승으로 맥 이어가


1100년의 역사속에서 불교용품을 만들어온 타나카 이가 불구점의 금강저.
사진출처=니혼 게이자이 신문

삼대를 이어 가업을 잇는 전통이 살아있는 일본. 1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교용품을 제조, 판매해온 가게가 주목받고 있다. 6월 30일,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은 교토의 노포(老鋪), '타나카이가 불구점(田中伊雅 佛具店)' 을 소개했다.

일본에서 몇 백년을 이어오는 노포와 장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여관이나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이 주가 되는 제조업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토에 본사를 둔 이가불구점은 불교용품이라는 특수 제조업으로 1000년이 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이가불구점은 대중적인 불교용품이 아닌 금강저나 요령, 다기 등 사찰에서 사용하는 불교용품을 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본경제대학의 고토 토시오 교수는 "여관이나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은 자연자원의 보호나 새로운 메뉴의 개발 등으로 비교적 그 세를 유지하기 쉽다. 그러나 제조업은 그 기술의 전승과 혁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며, 불교용품을 납품하는 사찰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창업으로부터 70대째 사장을 맡고 있는 타나카 마사카즈는 "선대인 아버지와 선선대 사장인 할아버지의 구전에 따르면 교토의 고찰인 닌나지(仁和寺)의 앞에서 주물로 불구를 제작했다고만 전한다"며 역사를 설명했다.

여러차례의 화재와 2차대전의 피난 등으로 명확한 역사가 남아 있지 않은 탓이다. 타나카 사장은 "옛날엔 주물장을 장인으로는 인식해도, 예술가로는 인정하지 않았기에 불구에 상호나 이름을 새길 수 없었다"며 명확한 증거들이 적은 것도 아쉬워 했다.

그러나 일본의 불교공예를 연구하는 시즈오카 문화예술 대학의 소네 슈이치 교수는 "최소한 350년 전 중세의 여러 기록에 타나카 이가 불구점의 이름이 보인다. 특히 왕실의 비호를 받던 닌나지의 전속 납품은 물론 먼 지역의 주문을 받아 납품한 사례도 보인다"며 불구제작의 오랜 역사를 확인했다.

사찰용 불교용품을 제작하는 제작소는 이곳 외에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대중의 요구나 경제상황에 따라 재가용 불교용품이나, 제조장비를 제작하는 업체 등으로 확장, 변경하여 이어오고 있다. 다른 기업들처럼 사업의 확장이나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타나카 사장은 "나 역시 오랫동안 의심하고 되물었다. 그러나 결국엔 불구를 제작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소피아대, 불교학 석사 과정 최초 개설

한국어 등 불교 문화권 언어에 대한 연구 등 강좌 포함

불가리아의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인 소피아대학교가 오는 2021/22 겨울학기부터 불교학 석사 과정을 최초 개설할 것이라고 6월 30일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가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날 "불가리아 최초로 소피아대학교가 불교의 문학 · 문화유산 · 철학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서구로의 발전 과정 등 포괄적인 탐구 과정을 개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피아대학의 고전 및 현대철학 학부에 개설되는 해당 프로그램에는 동양 불교 문화권의 언어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해당 매체는 "해당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들은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등에 대한 능력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빨리어 · 산스크리트어 등 고대 경전 언어의 분석 · 번역 능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불교는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시아를 넘어 서양까지, 유례없는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 명문 대학들의 학부와 대학원들이 불교에 대한 지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된 이유"라고도 부연했다.

강사진은 아시아, 유럽, 미국 등의 불교 학술 기관 및 전통 불교 센터에서 고전 불교 언어 및 불교 전통을 연구한 유능한 불교 학자들로 구성됐다. 학술 프로그램은 전담 강사진의 강의뿐만 아니라 초청 연사와 국제 전문가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세미나 등도 포함된다. 세미나 등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된다. 이 과정은 795시간, 90학점으로 구성된다.소피아대학은 불가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최고 명문대로, 1888년에 역사 · 철학과를 중심으로 설립됐다. 현재 24000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한국학과도 개설돼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

허리·무릎·목·엉치·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



부항 여러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일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 골반 ·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엔 암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 세분의 좋은 사례담

사례1 > 식도암과 간암 환자분 홍천에 사시는 65세 남성 5월 12일 삼성병원에서 항암제 주사를 맞으시고 의료기 체험 하러 오셨습니다. 체험해보시고 몸이 편하기는 하나 어떻게 암치료가 되겠는지 못 믿겠다며 의료기 값 중 절반을 주고 다음에 확실히 좋아지면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항암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처음 편하게 잠을 잤고 몸이 천근만근 하여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거뜬하게 일어났다며 믿음이 가신다며 다시 오셔서 의료기를 사 가셨습니다.

사례2 > 남양주시 사는 60세 여성은 2019년 1월 폐암 말기진단을 받고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폐에 물이 7리터 이상 차서 병원에 입원해서 100일간 물만 빼고 퇴원한 후 우리가 만든 '척추근육강화기 (의료기)를 꾸준히 활용하여 현재 병원 의사의 "매우 안정적이다" 라는 진단을 받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3 > 2019년 10월 50대 여성이 "병원진찰 결과 간에 암이 세개 발견되고 대장암은 너무 커버려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저희가 특허 발명한 위 의료기를 구입, 한달간 사용 후 간암은 완전히 소멸되고 두달쯤 사용하던 중 어느날 항문으로 피고름이 쏟아져서 무서운 마음으로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상황을 말씀드리니 "검사 결과 암이 죽어서 거의 다 피고름으로 쏟아졌다"며 이제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하여 수술 후 완치됐습니다. 처음 저희 의료기를 불신하던 그분의 형제자매 6남매 모두가 의료기를 구입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주 전화하십니다.

의료기 개발자인 저는 "모든 암질환은 대부분 척추변위가 직접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척추근육강화기(의료기)는 변위된 척추를 원래 척추로 교정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척추가 좋아지면 항암제부작용도 말기암 통증도 해소됩니다.
※ 질병 퇴치연구를 할수 있도록 도움주실 분 찾습니다.

✲ 소자본 지점모집 ✲ NAVER 척추근육강화기 ▼ 검색 예약 010-6575-7866

마음의 어둠 단박에 끊어내 禪으로 풀다



진흙속에서 달이뜨네
학산 대원 스님 지음
불광 펴냄/2만 9천원

상주 남장사 행자시절 별명은 '대근기'
대선사들과 나눈 법거량은 귀한 자료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깨우침 강조해



선방에서 수마에 빠진 수좌를 경책하는 대원 스님.



대원 스님은 말 그대로 현대 한국불교의 살아 있는 큰 스승이다. 80세의 노구에도 학림사 오등선원서 안거 때마다 방부를 들인 후학들과 똑같이 용맹정진을 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불교의 간화선을 얘기하면서 불자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 있다.

"남진제 중(앙)대원 북송담". 부산 해운정사이자 조계종 종정인 진제 큰스님과 인천 용화사의 송담 큰스님, 그리고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큰스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칭송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중 대원 스님은 말 그대로 현대 한국불교의 살아 있는 큰 스승이다.

대원 스님은 속세 나이로 80세이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요즘도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서 여름과 겨울, 여섯 달의 안거 때마다 방부(房付:선방에 들어가 정진하겠다는 신청서)를 들인 후학들과 똑같이 용맹정진을 한다. 노구에도 아랑곳 없이 구도역정의 길을 걷고 있는 대원 스님이 치열하고 올곧은 수행 여정과 지혜의 가르침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진흙속에서 달이 뜨네〉이다. 출재가자에 대한 경계를 두지 않고 수행 지도하며 가르침을 펼치는 대원 스님의 이번 책에는 책 구절마다 스스로 마음과 세상을 밝히라는 깨우침의 길이 펼쳐져 있다.

대원 스님은 출가 후 제방 선원을 돌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당대의 내로라하는 선지식을 모시고 수행하며 공부를 점검받았다. 이 책에 담긴 대선사들과 대원 스님이 나눈 법거량(法擧揚:스승이 제자의 수행 상태를 점검키 위해 주고받는 문답)은 요즈음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자료이다. 책에서 소개된 스승과 제자의 불꽃 튀는 선담(禪談)은 마음의 어둠을 단박에 끊어내는 선(禪)의 정수, 바로 그것이다. 이 밖에도 스님의 수행기, 법어, 법문, 대담을 통해 대원 큰스님의 사상과 법향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다.

대원 스님은 1956년 만 14세 어린 나이에 출가를 결심하고 스스로 경북 상주 남장사로 들어간다. 절에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며 당시 주지 스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열네 살 소년은 이렇게 말했다. "어려워도 살아 보겠습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 다짐처럼 스님은 근현대 격랑 속에서 꿋꿋이 공부를 완성해 나갔다. 그렇게 참선 정진한 이 시대의 진정한 대선사는 그동안 걸어온 세월의 흔적이 무색하게 세납 팔순의 나이에도 출재가자의 경계를 두지 않고 나란히 앉아 용맹정진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저자인 대원 스님의 형형한 눈빛은 마주 앉은 이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다.

치열한 구도의 길에 대원 스님은 막힘이 없었다. 구박과 일갈, 불친절함으로 일관한 스승의 방편에도 결코 지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상주 남장사에서의 행자시절,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며 얻은 별명이 '대근기(大根機)' 였을까? 그만큼 어려운 수행을 끝낸 큰 수행자라는 의미이다.

배고픔과 추위는 말할 것도 없고, 참기름 한 방울까지 간섭하는 스승의 훈계와 다그침은 그런대로 참을만 했다. 스승의 행동 하나, 무심코 던지는 말의 행간에서 스님은 고심을 거듭하며 그 깊은 뜻을 헤아리려 했다. 스님은 모두 세 번의 오도(悟道 · 깨우침)에 이른다. 깨우침에 대한 간절한 염원, 반드시 이루겠다는 절차탁마의 태도, 그리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그 과정에 녹아 있다.

대원 스님의 근기를 증명해주는 재밌는 일화 한토막 소개한다.



1980년 통도사 극락암서 경봉 큰스님과.

5년여 공양주 생활을 군말 없이 해낸 이야기이다. 50명 분의 밥을 가마솥에 앉히면 늘 밥이 눌었다. 밥이 눌면 스님이 먹을 밥은 없었다. 배가 고파 눌은밥을 주걱으로 긁어 먹으려고 하면 어느새 나타난 스승이 호통을 치며 몽둥이 세례를 퍼부었다. 밥을 태워 절집 재산을 없앴다는 명목이었다. 스님은 밥이 눌지 않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님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그 기도 소리를 노스님이 듣고는 밥이 눌지 않는 법을 알려주곤 이렇게 말했다. "다른 놈은 다 도망갔는데 너는 가지 않았구나." 노스님은 스님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노스님이 일러준 대로 했더니 밥은 더이상 눌지 않았다. 이 이야기 속에는 바로 일념(一念)과 스승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

책 전반부에 서술된 대원 스님과 선지식의 법거량(法擧揚) 일화를 통해 우린 저자의 구도에 대한 수행자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한국 선종사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사료이기도 하다. 이 책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스승과 제자의 문답으로 단박에 드러나는 깨침의 과정이 생생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께서 물으시길, "그럼 너는 오매일여를 어떻게 정의 내리겠는가?" 대원 스님이 답했다. "오매일여는 만들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오매일여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달음만이 영원한 오매일여라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성철 스님이 "그럼 네가 오매일여에 대해 한 마디 일러 보아라"라고 하자, "푸른 하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푸르른데, 진흙 속에서 해와 달은 항상 뜨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답하니 성철 스님께서 흔쾌히 손을 잡으면서 기뻐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나마 오매일여와 씨름하고 자기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놈은 너뿐이다"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젊은 날 이런 대원 스님의 모습에서 우린 수행자의 용맹함을 발견할 수 있다.

대원 스님은 1986년 학림사를 창건하고 1995년 후학 양성을 위한 오등선원, 2001년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등시민선원을 열었다. 스님이 평생 보여준 치열한 구도의 길이 많은 이들의 감화를 불러와 이뤄진 일이다. 수좌들의 공부 점검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가르침을 열어 준 스님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생활선(生活禪)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고(苦)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력한다.

깨달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가. 대원 스님은 직접 행(行)으로써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맑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의 에너지 기운을 밖으로 드러낼 때 천하 만인이 다 좋아하게 됩니다." 스님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깨끗한 본성을 드러내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대원 스님의 공부의 시작과 끝이 아닐까.

이 책에는 스님의 구도역정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충남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은 물론 제방의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설한 수많은 법문 중 31꼭지를 선별해 담았다.

올해로 세수 여든, 후학을 가르치는 일은 조금 내려놓아도 될 때이지만 스님이 주장자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망념(妄念)에 오염되어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삶을 사는 대중들 때문이다. 시대의 스승이자 수행자로서 짊어져야 할 운명이다.

참으로 어렵고 혼탁한 시절, 그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깨우치도록 도와 대자유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큰스님의 원력은 푸른빛이 형형한 칼날 같다. 법석(法席) 위에서의 걸림 없는 법문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할은 자성(自性)을 캄캄하게 덮어버린 우리의 마음 앞뒤를 단박에 끊어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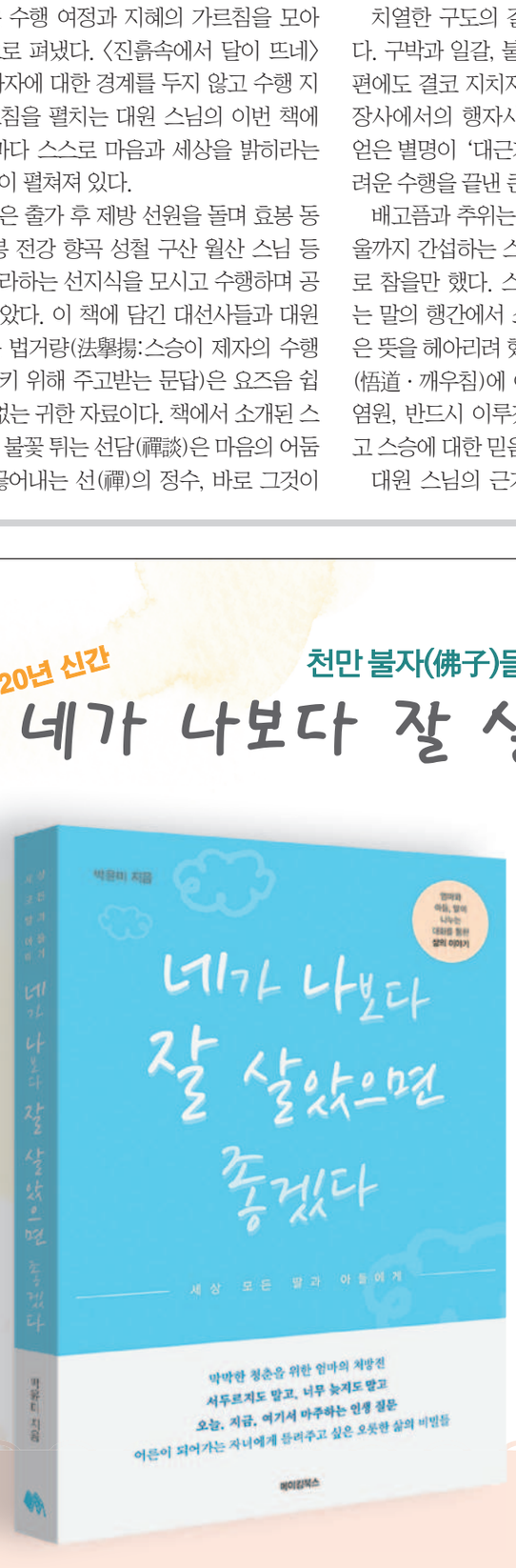
스님의 원력은 선사의 향기가 밴 법력(法力)으로 여문다. 스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 갖추고 있지만 병들고 어리석어 보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칼날을 드리운다. 내 앞에 놓인 화두를 목숨 걸고 참구하여 타파해야 한다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어깨 위로 내리꽂히는 죽비 같다. 대원 큰스님 첫 법어집이 출간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은 그 자체로 길을 헤매는 대중을 위한 바른 이정표가 된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고통의 지난한 길 위에 있는 우리들을 일구월심(日久月深)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큰스님의 피땀 어린 가르침이 있어 다행이다.

▲학산 대원 대종사는?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6년 만 14세의 나이에 상주 남장사로 출가(은사: 고암 스님, 계사: 동산 스님)하여, 1958년(만 16세)에 사미계를, 1962년(만 20세)에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6년 일대시교를 이수한 뒤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 받았으며, 21년간 제방선원을 다니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다.

1972년 해인총림서 방장실을 찾아 참문하고 공부를 점검하던 중 홀연히 깨닫고 오도송을 지어 고암 상언 대종사로부터 인가 받았으며, 1986년 전법게와 부촉을 받았다. 같은 해 계룡산 제석골 제석사 옛터에 학림사를 창건하고, 1995년 오등선원을 열어 조실로 추대된 큰스님은 2001년에는 오등시민선원을 개원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최초로 진행했다. 2010년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역임했으며, 2013년에는 해인총림 서당, 고암문도회 회주로 추대, 동년 조계종 원로위원에 위촉되었다. 또한 2014년 조계종 대종사 법계를 품서받았으며, 2017년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에 위촉, 고암문도회 문장으로 추대됐다. 법어집으로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와 강설집으로 〈무구자 도인 주해 반야심경〉 〈대주선사어록 강설〉 〈금강경오가해 강설〉 등이 있다.

2020년 신간
천만 불자(佛子)들의 필독서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무수한 의문, 살아야 할 이유,
모든 해답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존재합니다.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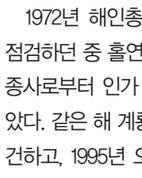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윽한 자비를 누리시길 빕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송월스님의 완결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6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60,000원



명당 찾는 비법
董善浩 著 / 488쪽 / 정가 30,000원
화제의 신간

★풍수지리의 교과서 이자 지침서!
• 중국에서 전래된 고전적(古典的)인 풍수지리를 지양(止揚)한 과학적으로 정립된 현대적(現代的)인 풍수지리서의 교과서(敎科書)이자 지침서(指針書)이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명당을 정확히 찾아 내는 비법!
• 산과 들 및 건물이 있는 현장(現場)에서 명당자리를 찾아 내는 비법(秘法)을 공개한다.
•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각종 지도(地圖)와 사진 등에 의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지구촌의 곳곳에 있는 모든 명당자리를 찾아 내는 비법(秘法)을 공개한다.
• 명당자리의 대소(大小)와 수맥(水脈) 여부(與否)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비법(秘法)을 공개한다.

★개천에서 용(龍)이나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명당 찾는 비법" 안에 있다!
• 명당 찾는 비법(秘法)에 의해 한 장소에서 최소 32개에서 최대 1,184개 이상의 대명당(大明堂) 자리를 찾아 활용(活用)한다면 대대손손(代代孫孫) 지구촌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人才)들이 반드시 배출된다.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김성진 지음 / 신국양장본 / 정가 45,000원

사주풀이의 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연꽃 향기 가득한 힐링의 계절

전국 사찰 지자체 연꽃축제 개막

조계사 · 봉은사 등 연꽃도량장엄
비대면 온라인방식 무안연꽃축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계사의 지난해 연꽃축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연꽃의 계절이 찾아왔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과 지역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로 의미 있는 연꽃축제를 시작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7월5일 제7회 연꽃축제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의 개막식을 봉행하고 연꽃의 의미와 향기 속에서 각자를 깨우기 위한 화엄의 법석을 시작했다. 조계사의 이번 연꽃축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500여 개의 옹기에서 개화를 시작한 백련과 홍련 등 다양한 연꽃들이 대중을 맞는다. 주지 지현 스님은 개막사에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멈춰서 '나'라는 사람의 향기를 연꽃처럼 맑고 향기롭게 피워낼 수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깨우는 첫걸음일 것입니다"고 연꽃축제의 의미를 전했다. 조계사는 매년 여름 경내에 연꽃을 전시하는 축제를 열고 있다.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 연꽃축제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7월 5일 백중 49일 기도입재와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봉은사 연꽃축제'를 시작했다. 분홍빛의 연꽃을 담은 500여 개의 연꽃 화분들은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흰색 영가등과 함께 도량의 길과 길을 이으며 색다른 포행의 즐거움으로 무더위를 잊게 한다. 도량을 찾은 대중은 연꽃화분마다 가족의 건강과 소망을 담아 서원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백중 49일기도는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봉은사 연꽃축제는 9월 3일까지 이어진다.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경내와 특설무대에서 제19회 봉선사 연꽃축제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다'를 개최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리는 이번 봉선사의 연꽃축제는 상설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음악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상설프로그램으로 오채현 석조각 초대전, 아름다운 봉선사 사진전, 프리마켓(바자회), 버스킹 공연, 소원지 달기, 전통등(터널) 전시가 축제기간 동안 대중을 맞는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통차 무료시음, 연꽃등 만들기, 염주 주머니 판매, 페이스 페인팅이 진행되고,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가훈 · 경구 쓰기가 진행된다. 7월 24일 하루 동안에는 연밥시식, 도자기 체험, 어린이 사생 및 청소년 백일장, 드론체험이 열린다. 7월 24일 오후 7시부터는 1부 기념식과 2부 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에는 한국적 노래를 부르는 가수 장사익, 고속도로 트로트퀸 금잔디, 노래 '칠갑산'의 주병선, 심진 스님, 파스텔걸스,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난타동아리 '비트홀릭', 마야무용단, 봉선사 연꽃미소 합창단이 출연한다.

△**충남 부여군**은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부여 서동 궁남지 일원에서 제19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연꽃愛 향을 담다'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열리지 못하고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축제가 진행되며, 궁남지의 자연경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축제이다. 군민과 관광객들이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의 축제와 사랑이야기가 담긴 설화 중심의 스토리텔링 축제로 꾸며진다.

행사의 대표 프로그램인 포룡정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은 〈삼국유사〉 서동 탄생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3D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로 구성됐으며 행사 기간 중 매일 저녁 2회 관람할 수 있다. △궁남지 연지 속 카누체험 △열기구 타고 사랑 고백 △서동가족, 선화찾기 챌린지 등 부여서동연꽃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프로그램도 현장 예약 또는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와 시청이 가능한 사전 프로그램으로는 △부여 농특산물을 활용한 영자 씨 부엌 온라인 쿠킹클래스 △전국 부~야호 댄스챌린지 ucc 공모전 △추억을 담다 해시태그 사랑의 추억 쌓기 △부여군학부모연합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밖에 회산백련지로 유명한 **전남 무안군**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비대면 축제 방식으로 제24회 온라인 무안연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 양평군 세미원은 6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6만2천 평 야외정원에서 홍련, 백련 등을 선보인다.

1971년 개장한 **제주도 한림공원**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림공원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아기부처님이 룸비니동산에서 첫 걸음을 옮기실 때 발걸음마다 피어났던 연꽃은 〈화엄경탐현기〉에서 "연꽃이 향(香), 결(潔), 청(淸), 정(淨)의 네 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고 적고 있다. 불보살이 앉아 있는 자리를 연꽃으로 만들어 연화좌 또는 연대라 부르는 것도, 번뇌와 고통과 더러움으로 뒤덮여 있는 사바세계에서도 고결하고 청정함을 잃지 않는 불보살을 연꽃에 비유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오늘의 사바에서 열리는 연꽃축제가 그 의미를 더한다.

전국 연꽃축제 일정

장 소	제 목	일 정
서울 조계사	제7회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	7월 5일 ~ 8월 말
서울 봉은사	가족과 함께하는 봉은사 연꽃축제	7월 5일 ~ 9월 3일
경기 봉선사	봉선사 연꽃축제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다'	7월 17일 ~ 24일
경기 세미원	연꽃문화제	6월 21일 ~ 8월 15일
충남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연꽃愛 향을 담다'	7월 10일 ~ 18일
전남 무안군	제24회 온라인 무안연꽃축제	8월 18일 ~ 22일
제주 한림공원	한림공원 연꽃축제	7월 1일 ~ 8월 31일

제2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웹툰 공모전

접수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결과는 10월 4일 홈페이지 발표
대상 500만 원, 시상 10월 16일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제2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고, 일반인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제1회 공모전과는 달리 '팩션으로 다시 쓰는 어느 불교문화재의 원더풀한 이야기'라는 부제 속에서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팔만대장경과 해인사 관련 주제로, 팔만대장경 조성, 팔만대장경 우리말 번역, 팔만대장경 수호, 팔만대장경과 관련된 해인사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거주자로 2005년 이후 출생자면 공모 가능하며, 접수는 7월 5일부터 9월 17일, 결과는 10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시상은 10월 16일 해인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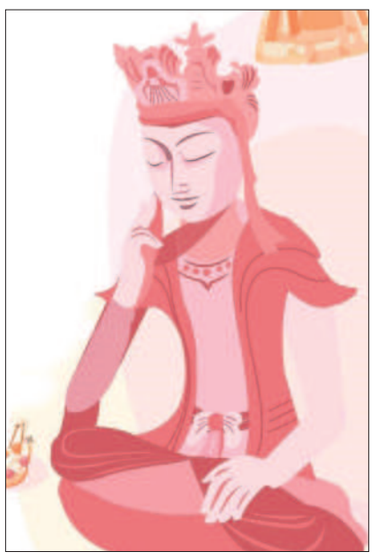
접수방법은 해인사 홈페이지(www.haeinsa.or.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출품 작품은 웹툰 1회 분량의 완성 원고(해상도 300dpi)이며,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는 작품으로 타 공모에 출품 또는 연재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 작품 6회 분량의 출품작 시놉시스를 제출해야 한다. 모방, 폭력성, 선정성 등을 포함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상 내역은 대상(1명) 500만 원, 우수상(2명) 각 150만 원, 장려상(4명)은 각 50만 원이다. 대상작은 불교신문을 통해 연재되며 연재료는 별도 지급된다.

박재완 기자

제2회 국립박물관 상품 정기공모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접수

반가사유상 등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 상품 공모가 열린다. 전국 국립박물관 내 문화상품점 및 온라인 뮤지엄 숍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제2회 국립박물관 상품 정기 공모를 진행한다.

재단이 운영하는 온 · 오프라인 문화상품점에 입점할 문화상품을 유치하기 위한 이번 공모는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결과는 10월 27일 발표하고 계약체결은 2022년 12월 31일 개별 통지한다.

공모 주제는 국립박물관의 대표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반가사유상 78호, 83호와 불교미술이며, 국립대구박물관은 관음보살, 회흔례첩, 떨잠, 조복, 갓 등이다. 공모대상은 공예품, 생활소품, 패션잡화, 액세서리, 유물재현품, 어린이 상품, 문구사무 등이며, 신청 자격은 개인 및 기업(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참가 가능)이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서류를 접수하고 방문 또는 택배를 이용해 견본과 완제품(시제품 가능), 상품패키지, 상품설명서를 접수한다. 문의-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상품팀 국립박물관상품 공모 담당자. 전화 (02)2077-2932(평일 09:00~18:00) / 전자우편 design@cfnm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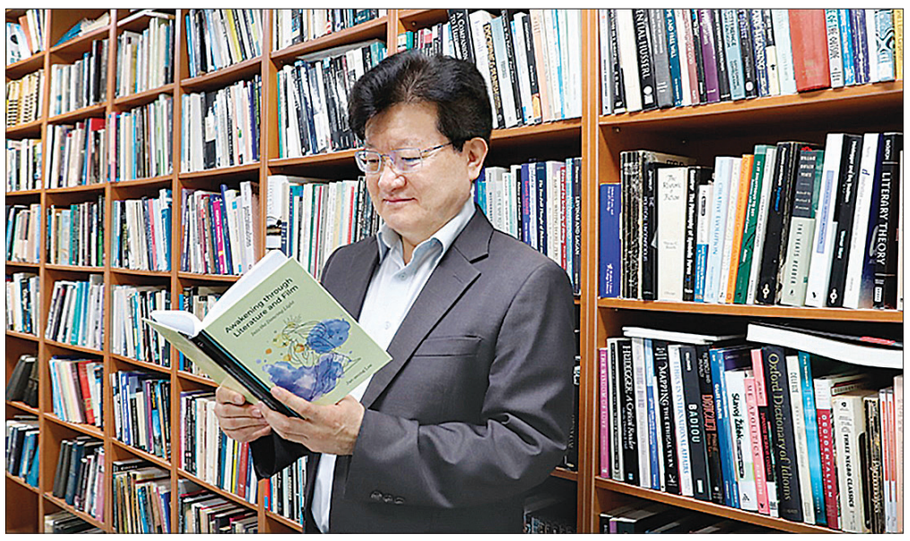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서양 철학 추구점, 불교 內 명확히 담겼죠”

영문 불교 비평서 펴낸
이재성 부산대 교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재성 부산대 교수가 자신의 영문저서인 〈춤추는 빛 속으로〉를 읽고 있다.

‘춤추는 빛…’ 두 번째 영문 저서
조커 · 기생충 등 선불교로 풀어
“이분법 모순 해체, 진리 이끌어”

첫 영문 저서로 원효학술상 수상
학문 · 영성 기반 문화 비평 추구

영화 〈조커〉 〈기생충〉 〈1917〉과 〈햄릿〉 〈모비딕〉 등 고전문학을 선불교적 관점에서 비평한 영문 연구저서가 발간됐다.

이재성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최근 두 번째 영문 저서인 〈문학과 영화를 통한 깨달음: 춤추는 빛 속으로(Awakening through Literature and Film: Into the Dancing Light, 이하 춤추는 빛 속으로)〉를 영국의 캠브리지 스콜라 출판사에서 발간했다.

이 교수의 저서 〈춤추는 빛 속으로〉는 포스트모던 윤리 철학과 선불교 사상에 입각해 영화와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독자와 관객이 미적 숭고의 감각을 통해 작품이 표방하는 궁극적 현실을 만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영문학 · 영화 · 철학 · 종교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interdisciplinary) 이 책은 고전 문학과 명작 영화가 이성의 힘으로 잡을 수 없는 진리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독자와 관객에게 보여준다.

이 교수는 미국 버팔로 뉴욕 주립대에서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를 받고, 영미문학비평 및 이론을 연구 · 교육하는 영문학자로 부산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첫 영문저작인 〈포스트모던 윤리학, 공, 그리고 문학: 동양과 서양의 만남(Postmodern Ethics, Emptiness, and Literature: Encounters between East and West)〉은 지난 2015년 미국 렉싱턴 출판사에서 출판해, 2016년 제7회 원효학술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이 교수는 미국 뉴욕에 체류 중이며, E-메일을 통해 인터뷰했다. 이하는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Q. 〈춤추는 빛 속으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 본서는 포스트모던 윤리철학, 선불교사상에 입각해 문학작품의 독자나 영화감상자가 미적 숭고(jouissance)의 감각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초현상적 윤리성을 통하여 해체시키고 작품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비이원적, 궁극적 현실을 일견하게 됨을 설명합니다.

초현상적 윤리성이란 즉 이원적인 이성적 생각이 이루는 양변중 하나를 택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도덕률이나 이데올로기 등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평등성과 일체성을 중요시하는 진정한 평등과 참사랑, 진리의 초월적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작품 전체, 특히 결말을 통해서 작품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고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달의 위치에 있는 공, 진리가 독자 혹은 관객의 진실된 자아(참나)임이 드러나 우리가 일견하게 됨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감상법은 명상의 상태를 통하여 영적 깨달음으로 이르도록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감상법은 독자나 영화감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최종적으로 진리, 도에 대한 영적 깨달음을 맛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는 예술성과 종교성, 대중성을 겸비한 대표적 문학과 영화 작품들을 예로 들어 직접적 분석도 했습니다.

Q. 〈조커〉 〈기생충〉 〈1917〉를 선불교적 관점에서 비평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모든 문학과 영화의 명작들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삶을 해체시키는 비극성을 통하여 선과 악, 사회적 높낮이, 밝음과 어두움 등의 이원성을 허물고 초현상적 진리의 비이원성(Non-duality)으로 독자와 관객을 이끕니다. 2020년 아카데미상을 받은 〈조커〉 〈기생충〉 〈1917〉 등은 이분의 모순을 허무는 중도(中道)를 통해 진리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조커〉는 폭력이 지닌 힘을 통해 이분성의 틀을 깨고 우리로 하여금 초현상적 차원을 맛보게 하는데, 통상의 영화비평의 글이나 유튜브 영상은 이러한 진정한 예술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완전히 미쳐버림으로 해서 폭력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님을 짚고 싶습니다. 나타나는 장면을 명상할 때와 같이 해석 없이 받아들이면 폭력성을 통하여 주인공 아서 플렉(Arthur Fleck)이 삶의 무상함에 묶여있다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을 섬세한 감성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공, 진리로 이끄는 예술적 힘입니다. 아서가 추는 춤이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Into the Dancing Light”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역시 양변을 이루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사회적 이분을 해체하고 그 속에 섞여있는 인간성을 보여주는데, 양변이 그대로 존재하면서도 그 틀이 사라진, 이성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역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서도 그것이 다만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Q.첫 영문저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A. 저의 첫 번째 영문저서에서는 서양의 포스트모던 윤리학과 동양의 불교, 도가의 사상에 기초해 비이원적 공에 도달하는 문학서적 독법과 영화감상법을 학문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처음 4개의 챕터에서는 서양의 포스트모던 윤리학의 최고봉인 임마누엘 레비나스, 자크 데리다, 질 들뢰즈, 장 뤽 낭시 등의 철학이 한 발 더 나아가면 나가라주나(Nāgārjuna)의 〈중론〉과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등이 설파하는 중도와 전체의 진리에 다다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후반에서는 기독교 구약성경의 일부분인 고난의 이야기인 〈욥기〉, 그리고 〈드라큘라〉, 〈프랑켄스타인〉 등 고딕소설(Gothic novel,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성행한 소설)의 강한 힘이 어떻게 우리를 진리로 향하게 하는지에 대해 논했습니다.

Q. 불교 문화 비평에 천착한 계기는

A. 서양의 형이상학과 예술이 추구하는 바가 동양의 불교와 도가사상에서 온전히 방대하게 펼쳐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산대에 자리를 잡고서야 포스트모던 윤리학은 불교와 노장사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를 논문, 학회발표, 저서 등을 통하여 정립했습니다. 한국 학계는 서양의 이론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법화경〉에 나오는 아버지를 몰라보는 아들의 이야기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을 위시한 서양에서 학문적 접근도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고 영적 스승들이 늘어나 우리나라로 역수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학문을 하면서 항상 느껴온 것이 서양의 철학과 문학, 예술, 문화가 추구해온 목적은 동양의 불교와 노장사상에 방대하고도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있고 우리가 영문으로 글을 써서 서양의 학계와 대중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의 전공분야인 영문학에서 비평이론 전공자들이 불교와 노장사상을 알고 연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A. 지금 세 번째 책을 영어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의 비평 연구서가 발간돼도 호응도 적고, 제작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한동안은 영문으로 저술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학문에 기초하지만 구체적이고도 긴 설명을 재미있게 하여 일반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려고 합니다. 소수를 위한 책이 아니라 넓은 독자층에 읽힐 수 있는 책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디아샨티(Adyashanti), 루퍼트 스파이라 (Rupert Spira), 바이런 케이티(Byron Katie), 무지(Mooji) 등의 영적지도자들의 책을 학문연구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학문과 영적추구를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학문과 영적추구를 확연히 구분하지는 않고 자세한 설명으로 그 두 분야와 문학과 영화와 예술 전반을 다룰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문학, 영화와 예술 전체, 나아가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유와 무의 중도이자 전체, 비이원성의 무한한 진리임을 강조하려 합니다.

“식민사학 논리 벗어난 가야사 바른 연구 필요”

이덕일 소장 가야문화 학술대회서
가야불교 전래시기 재검토 필요해

“식민사학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후 조직적으로 만들어 퍼뜨린 역사 논리입니다. 가야사는 식민사학에서 벗어나 바른 사료로 접근해 새롭게 연구되어야 합니다”

7월 4일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사단법인 인도학회,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6회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가 경남 김해 인제대 인정관에서 열렸다. 〈사진〉

이 자리에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강단사학계에서 인식하는 가야불교 전래시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기존 가야사 연구는 식민사학의 큰 틀 내에 인식 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일반 국민들은 가야가 서기 42년에 건국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후한(後漢)의 세조(世祖)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18년 임인(서기 42) 3월에 건국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도 수로왕이 서기 42년에 건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역사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강단사학자들은 이 기사를 믿지 않는다. 그들의 견해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서론과 본문 설명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은 가야가 서기 1세기 건국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3세기 이후에 건국되었다고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역사학의 기본 방법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식민사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바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불전문학 속에서의 해상교류와 불교전파(정덕 스님, 동국대) △붓다빠다(Buddhapada)로 본 해양불교의 신화적 전래(법진 스님, 동국대) △가락고찰 부암의 사료적 연구(지원 스님, 부은사) △구지가의 남방 연원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강형철, 동국대) △제천금인과 가야불교 소고(김민수, 에세이능력계발원)가 발표됐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송산 스님은 “유래 없는 코로나 정국으로 모두가 위축되어 있는 시기에 제6회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가야문화의 새로운 발굴과 가야 역사의 바른 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연구해 주신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모여 바른 역사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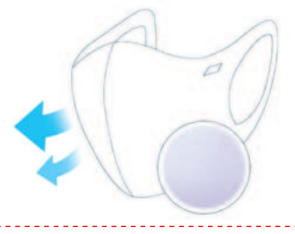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기존제품과 다른점
❶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❷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❸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 여름용 마스크는 색상별로 최소주문수량 100개로 개당 판매가는 3,500원입니다.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6



▶ 27회 예고
아쇼까는 진압군의 숙영지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우빠굽따를 불러 공양을 올린다. 어젯밤에 설법을 들었던 대가였다. 아쇼까는 다시 우빠굽따로부터 마간디야 왕비의 과보 이야기와 고시따라마 사원에 얽힌 붓다의 일화를 듣는다.

마간디야, 사마왓띠를 괴롭히다

사마왓띠는 밋따의 도움으로 부모의 장례를 치렀다. 그런 뒤 며칠이 지난 뒤부터 사마왓띠는 구휼소로 나가 양아버지 밋따를 도왔다. 사마왓띠는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빈민들끼리 서로 먼저 배급받으려고 싸움질하던 것을 단번에 해결했다. 구휼소에 울타리를 만든 뒤 입구와 출구를 만들어 한 사람씩 배급음식을 받아가게 했던 것이다. 이를 본 재정관 고사카는 밋따를 불러 칭찬했다.

"고생이 많소. 이제는 먼저 타려고 싸우는 빈민이 없어졌구려. 능력이 탁월한 밋따에게 이 일을 맡기기를 잘한 것 같소."

그러자 밋따는 자신이 구상한 것이 아니라 밧다와띠야의 외동딸 사마왓띠의 공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고사카는 사마왓띠가 친구 밧다와디야의 딸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결국 고사카는 밋따에게 양해를 구한 뒤 사마왓띠를 자신의 양녀로 삼았다. 고사카는 사마왓띠가 자신의 딸이 된 것을 기뻐하며 하녀 5백 명을 주어 시중들도록 했다.

"사마왓띠를 양녀 삼은 고사카 부부는 행복했지요. 사마왓띠가 무슨 일이든 지혜롭게 처리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꼬삼비에 축제가 열렸다. 꼬삼비 성민들이 모두 야무나강으로 나가 축제를 즐겼다. 사마왓띠도 하녀 5백 명을 데리고 야무나강으로 나가 강물에 몸을 적시며 소원을 빌고 기도했다. 왕위에 오른 우데나왕도 야무나강 강변에 있는 별궁에서 성대한 축제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강물에 몸을 적시고 나온 사마왓띠가 우데나왕의 눈에 띄었다. 우데나왕은 사마왓띠의 조신한 행동과 시녀들을 동생같이 대하는 모습에 반했다. 우데나왕은 제관 대신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이윽고 그녀가 재정관 고사카의 양녀임을 알고 고사카를 불러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고사카는 간곡하게 거절했다.

"왕이시여, 만약 제가 사마왓띠를 왕궁에 보낸다면 성민들이 출세를 위해 딸을 이용했다고 할 것이옵니다. 저는 사마왓띠를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차마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사옵니다."

우데나왕은 고사카의 대답을 듣고 나서 분노했다. 즉시 재정관 직책을 박탈한 뒤 군사를 보내 고사카의 재산을 몰수하고 하인 모두를 빼앗았다. 고사카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난 신세가 돼버렸다. 이를 알게 된 사마왓띠는 스스로 궁궐로 가서 우데나왕을 찾았다. 하녀 5백 명도 사마왓띠를 따랐다. 하녀 5백 명 중에는 꼽추시녀 꾸줏따라도 있었다. 우데나왕은 사마왓띠가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크게 기뻐하며 화려한 의식을 치른 뒤 첫 번째 왕비로 삼았다. 사마왓띠 덕분에 고사카는 재정관으로 다시 복귀했고, 잃었던 집과 재산도 되돌려 받았다.

그 무렵, 붓다는 아난다와 함께 꼬삼비에 와서 머물렀다. 붓다의 설법을 꼽추시녀 꾸줏따라가 듣고 와서 사마왓띠에게 그대로 전했다. 꾸줏따라는 기억력이 뛰어났다. 붓다의 설법을 단 한 마디도 빠뜨리지 않았다. 붓다도 '내 설법을 들었던 이들 가운데서 꾸줏따라가 으뜸이다.' 라고 할 정도였다. 사마왓띠는 붓다의 설법에 매료돼 꾸줏따라를 날마다 붓다에게 보냈다. 5백 명의 하녀들도 차츰 꾸줏따라가 전하는 붓다의 가르침에 마음의 눈을 떴다.

"그렇다면 마간디야 왕비는 어떤 사람이었소?"

"부왕이시여, 지금 막 마간디야 왕비를 이야기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마간디야는 꼬삼비에서 미모가 가장 빼어났다. 청년들이 그녀를 보면 정신을 잃곤 했다. 마간디야를 짝사랑하여 미쳐버린 브라흐민 청년도 있었다. 마간디야의 미모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도 유명해졌다. 그는 마간디야의 자존심을 한껏 부추겼다. 그러던 중에 그는 길에서 붓다를 우연히 보았는데, 붓다는 거룩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형이었다. 그는 드디어 딸의 배필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가서 붓다에게 사위가 돼줄 것을 청했다. 그러나 붓다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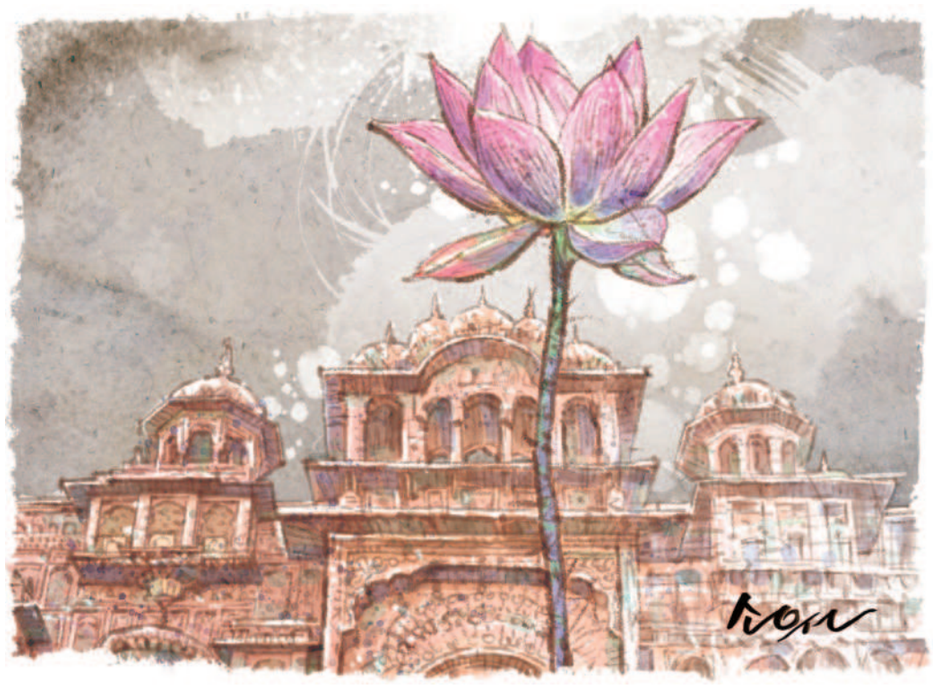
"갈망과 집착,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에도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오. 하물며 더러운 피고름과 똥오줌으로 가득한 육체인데 무엇이 아름답다는 말이오?"

마간디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붓다가 설한 무상(無常)의 가르침을 곧 알아들었다. 젊은 시절 팽팽했던 얼굴은 어느 새 주름살이 접혔고, 검은 머리카락은 흰 머리카락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팔다리의 피부도 부드럽고 매끄러웠는데 지금은 마른 망고처럼 쭈글쭈글했다. 마간디야의 부모는 붓다의 설법에 고개를 숙였다. 세속의 아름다움이란 한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그녀의 부모는 붓다의 제자가 되려고 결심했다. 마음속으로는 부부가 서로 약속한 듯 이미 붓다의 제자가 돼버렸다. 이제 출가는 시간문제일 뿐이었다.

그러나 마간디야는 결혼을 거절당한 데다 자신의 미모에 피고름과 똥오줌을 바른 것 같다는 붓다의 설법에 화를 잔뜩 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출가하겠다고 말하자 붓다에게 부모까지 빼앗긴 것 같아 증오심이 솟구쳤다. 한 자리에서 똑같이 무상의 설법을 들었지만 부모와 마간디야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마간디야는 무상을 깨닫기는커녕 심한 모욕을 받았다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쇼까는 보름달을 바라볼 뿐 말없이 우빠굽따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아쇼까의 급한 성격 때문에 지루했으면 진즉 중지시켰을 터였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흥미롭게 듣고 있음이 분명했다. 우빠굽따는 가끔 고개를 돌려 이쇼까의 표정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아쇼까의 반응을 확인하고는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과연 그의 기억력과 언변은 따를 자가 없었다. 우빠굽따는 이야기 중간 중간에 추임새를 넣듯 강조하곤 했다.

"마간디야는 부모님이 다 출가하자 숙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숙부는 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우데나왕은 마간디야의 숙부를 불러 그녀가 궁궐에 들어와 살 것을 청했다. 마간디야의 미모를 좀 더 자주 보기 위해서였다. 숙부와 마간디야는 우데나왕의 청을 들어주었고, 숙부는 높은 지위와 재산을 하사받았다. 그녀 역시 우데나왕의 총애를 받았다. 그런데 마간디야의 행복은 거기까지였다. 갑자기 우데나왕이 사마왓띠를 첫째 왕비로 삼아버렸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왕비가 된 마간디야는 화를 참지 못했다. 사마왓띠가 첫째 왕비 자리를 가로챈 양 질투심으로 부들부들 떨었다. 꼽추시녀 꾸줏따라가 붓다의 설법을 사마왓띠에게 전해주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마간디야는 심복시녀를 시켜 건달들을 매수했다. 돈을 받은 건달들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 붓다와 제자들이 꼬삼비 거리로 탁발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악담을 퍼붓게 했다. 건달들은 거리에 숨어 있다가 탁발 나온 붓다와 제자들을 뒤쫓아 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도 붓다와 제자들이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자 돌을 던지고 오물을 뿌렸다. 어떤 건달은 가까이 다가가서 침을 뱉기도 했다.

우빠굽따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감정이 격해져 말했다.

"부왕이시여, 부처님과 아난다 존자님을 괴롭힌 불량배들은 반드시 아비치(阿鼻地獄)에 떨어져 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아비치란 어떤 곳이오?"

"땅속 2만 유순인 깊이에 있는 지옥입니다."

"무슨 벌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소."

"괴로움을 받는 일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이 없다 하여 아비치라 하며 무간지옥(無間地獄)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에게는 필파라침(必波羅鍼)이라는 악풍(惡風)이 있는데 온몸을 건조시키고 피를 말려 버립니다. 또 옥졸이 몸을 붙잡고 가죽을 벗기며, 그 벗겨낸 가죽으로 죄인의 몸을 묶어 불수레에 싣고 훨훨 타는 불구덩이 가운데에 던져 넣어 몸을 태우고, 야차(夜叉)들이 큰 쇠창을 달구어 죄인의 몸을 꿰거나 입, 코, 배 등을 꿰어 공중에 던진다고 합니다. 또는 쇠매(鐵鷹)가 죄인의 눈을 파먹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죄인이 가는 것이오?"

"5역죄(五逆罪)를 범한 자입니다. 인과(因果)를 무시하는 자, 절이나 사찰의 탑을 부수는 자, 성중(聖衆)을 비방하는 자, 시주받은 물건을 사사로운 용도로 낭비하는 자, 아라한을 살해하는 자, 비구니를 강간한 자 등입니다."

오역죄란 아버지를 죽이는 죄, 어머니를 죽이는 죄, 아라한을 죽이는 죄,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죄, 붓다의 몸에 피를 나게 하는 죄 등 다섯 가지의 죄를 뜻했다.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지극히 악한 행위이므로 오무간업(五無間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마간디야의 악행을 계속 이야기해 보시오."

"부왕이시여, 소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니 신심이 납니다."

우빠굽따는 다시 악행의 왕비 마간디야 이야기로 돌아갔다. 건달들의 행패와 폭력에 탁발을 포기하고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돌아가 버리는 붓다의 제자도 생겼다. 어떤 제자들은 건달들이 두려워 사원 밖으로 탁발 나가지 않고 아예 굶기도 했다. 마침내 아난다가 눈물을 흘리며 붓다에게 간청하기에 이르렀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꼬삼비를 떠나셔야 합니다. 라자가하(왕사성)나 스라바스티(사위성)로 가셔야 합니다."

"라자가하나 스라바스티로 가면 이런 일은 없겠지. 하지만 아난다여, 눈물을 거두거라. 눈물 대신 자비와 인욕의 마음을 내거라."

붓다는 아난다의 간청을 타이르듯 물리쳤다.

"수행자는 소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떠나거나 피해서는 안 되느니라. 소란이 가라앉도록 노력하고 기다려야 한다. 소란이 사라진 뒤에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도 늦지 않느니라. 지금은 저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을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할 때이니라."

붓다의 설법을 들은 아난다와 제자들은 건달들의 무례한 행동을 견디며 탁발을 계속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건달들의 행동에 변화가 왔다. 건달들은 하나 둘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다. 이를 지켜본 꼬삼비 성민들은 붓다와 제자들을 더욱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간디야의 복수는 여지없이 일주일 만에 무너져버린 셈이었다.

그러자 마간디야는 분노하는 마음을 또 다시 사마왓띠에게 돌렸다. 사마왓띠에게 첫째 왕비 자리를 뺏긴 것도 억울했지만 사마왓띠 왕비가 꼽추시녀 꾸줏따라를 통해 붓다의 제자가 된 것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간디야는 사마왓띠를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했다. 우데나왕에게 사마왓띠를 비방하고 험담했다. 그러나 사마왓띠는 침묵으로 자신의 결백을 드러냈고 마간디야를 미워하지 않았다. 우데나왕은 그런 사마왓띠의 자애로운 태도를 칭찬했다. 사마왓띠는 괴로울 때마다 꼽추시녀 꾸줏따라가 전하는 붓다의 가르침으로 위로받았다.

자신을 다스리고
언제나 자제하며 사는 이,
자신을 이기는 이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보다 낫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이고
자신이 자신의 안내자이다.
상인이 훌륭한 말을 다루듯,
그대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삭이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사마왓띠는 마간디야가 온갖 험담과 거짓말로 비난해도 반듯한 반석처럼 꿈쩍하지 않았다.〈계속〉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희망 찾아 한국 온 몽골 소년에
부처님 가피 닿길

스님이 아이 이름 지어줄 정도로 불심 깊은 몽골출신 다와씨
아들 척추암이지만 수술 불가능해 한국행…혈액암도 발병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⑬ 4조 도신대사, 선을 정착시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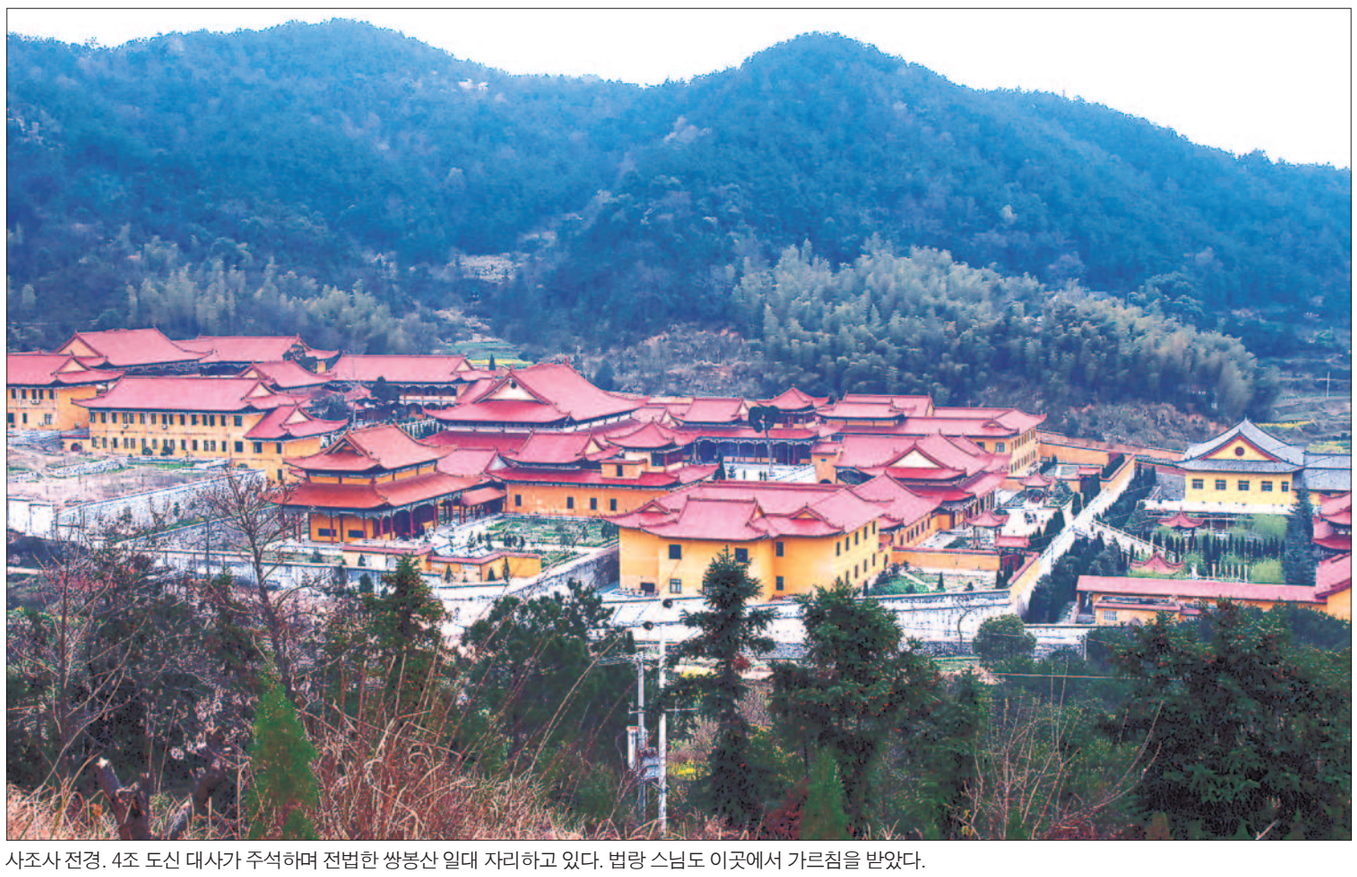


▶ **한줄 요약**
불교 자주화의 첫걸음, 4조 도신대사부터 시작

현실에 맞는 새로운 불교운동, '선'

인도의 부처님 이후 28대 달마 조사가 동쪽으로 와서 초조(初祖)가 되어 본래성불의 선법을 혜가대사에게 전하고, 2조는 다시 불치병의 거사가 깨치자 출가시켜 3조로 삼아 선의 씨앗이 동토에 뿌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초조 달마의 독살(毒殺), 2조 혜가의 장살(杖殺)에서 보듯이 선은 아직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당시 중국은 남북조시대에서 혼란기를 거치며 수나라(581~618)의 통일, 그리고 당나라로 바뀌며 점차 안정되어 갔다. 불교계는 경전을 읽고 외우고 설법하는 교학과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고 행하는 율종, 그리고 부처님 이름을 지극 정성으로 부르는 염불이 중심이었다. 양무제처럼 큰 불사 공덕을 짓거나 중생이 경전을 읽고 계율을 지키며 염불하여 그 수행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 극락왕생하는 것이 바람이었다. 이런 불교계의 풍토에서 본래성불의 선은 '마구니 말'로 배척받아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 어려운 토양에 걸출한 조사가 출현하여 선을 정착시키니 그가 바로 4조 도신이다.



사조사 전경. 4조 도신 대사가 주석하며 전법한 쌍봉산 일대 자리하고 있다. 법랑 스님도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14세 사미가 깨쳐 4조가 되다

어느 날, 승찬 대사에게 도신(道信)이라는 14세 사미가 와서 절하고 물었다.

"스님, 제게 해탈법문을 들려주십시오."

"누가 너를 구속했느냐?"

"아무도 구속한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구속한 이가 없으면 그대는 이미 해탈한 사람이다. 어찌 다시 해탈을 구하는가?"

도신은 이 말 끝에 크게 깨달았다. 본래 우리는 지혜와 복덕이 구족된 완전한 존재이다. 다만, 스스로 중생이니 부처니 하며 분별심을 일으켜 허망한 생각에 집착하니 중생이라 속박되는 것이다.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본래 완전함을 바로 깨치는 것이다. 이것은 3조 승찬이 전생의 죄 때문에 불치병을 얻었다고 평생 괴로워하다가 "나도 죄도 전생도 본래 없다"는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로 깨친 것과 같은 도리다. 결국 4조 도신 대사도 부처님 말씀대로 무아를 깨쳐 속박된 마음에서 단박에 해탈한다. 어린 사미가 깨치자 3조는 9년 동안 곁에 있게 한 뒤 성년이 되자 비구계를 주고 달마대사의 가사를 전하여 4조로 부촉한다.

4조 도신 대사, 참선 도량을 열다

4조 도신(道信, 580~651) 대사의 성은 사마(司馬)씨로 호북성 출신이다. 승찬 대사가 입적한 뒤 여러 곳을 유력하다 기주 황매현 쌍봉산(雙峰山) 서쪽에 정착하여 30여 년 동안 도량을 개척한다. 선종의 초조 달마와 3조 승찬 대사까지는 일정한 도량 없이 떠돌며 전법했는데, 4조 도신 대사에 이르러 선은 비로소 한 도량에 정착하게 된다. 당시 불교계는 양무제처럼 기복과 교학, 율학 전통으로 인하여 선(禪)을 몰랐다. 때문에 선사들은 고정된 도량도 없이 교학이나 율종 사찰의 한 귀퉁이에서 더부살이를 했다. 그러나 4조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고 쌍봉산에 넓은 도량을 마련하고 많은 수행자가 함께 농사짓고 수행하는 최초의 선종 도량을 조성하여 전법 교화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4조가 선 수행 도량을 크게 조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선종 역사서에는 몇 가지 일화가 전한다. 하나는 4조가 길주(吉州)성에 머무를 때 큰 도적떼가 성을 포위하고 수십 일을 공격하였다. 오랜 포위로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지고 식수마저 고갈되어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 이에 4조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에 올라 지극한 마음으로 '마하반야바라밀'을 합송케 하였다. 이때 도적떼들은 갑자기 성에 수많은 신병(神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겁이나 도망쳐버렸다. 사람들은 도신 대사가 신통을 부려 도적떼를 쫓아버려 겨우 살아났다고 하며 4조를 더 따르게 되었다.

선농일여(禪農一如), 선의 자주, 자립 정신

4조가 쌍봉산에 주석하여 도량을 개척하자 명성을 듣고 500명의 수행자들이 몰려들었다. 깊은 산중에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살았으니 부처님처럼 탁발도 어렵고 양식도 부족했다. 4조는 수행자들에게 선과 농사가 하나라는 선농(禪農)일여를 기치로 농사를 지어 스스로 먹을 양식을 마련케 하였다. 사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출가자는 직업과 노동을 금하는 계율에 어긋나는 행이다. 하지만,

중국문화 맞는 청규 제정
선농일치 문화 정착 시켜
동아시아 중심 사상 발전

북방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중 깊은 도량에서는 걸식이 불가능하였다. 이런 현실적인 조건에서 4조는 수행자들이 예불, 독경과 좌선에만 머물지 말고 농사짓고 도량 가꾸고 청소하는 그대로가 수행이라고 가르쳤다. 이것이 일행삼매(一行三昧)이다. 결국 남방에서 출발한 불교가 북방으로 와서 사회 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발전한 것이 선종의 자작자수 정신과 청규라 할 수 있다.

선은 4조 도신 대사 대에 부처님 당시의 초기불교의 모습에서 벗어나 중국 현실에 맞는 창의적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걸식과 유랑하며 전법하던 초기 불교의 모습에서 상주 도량에서 예불, 좌선하며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의 수행공동체 생활로 변화한 것이다. 또 정해진 부처님 계율에서 상주 공동체 현실에 필요한 청규의 제정과 활용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선의 정신은 불교가 북방 동아시아 사회 문화에서 중심 사상으로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4조 도신 대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병을 다스리는 의술도 뛰어났다. 〈초목집성〉이라는 의서를 지을 정도로 4조는 의술이 뛰어났는데, 그 소식이 황궁에까지 전해져 당 태종 이세민(재위 626~649)이 큰 병이 들어 어의도 어쩌지 못하자 4조의 처방대로 약을 지어 먹고 쾌차했다고 한다. 태종 황제는 사자를 보내어 4조를 황궁으로 초청하여 융숭한 대접을 하고자 했으나 도신 대사는 병을 이유로 사양하였다. 황제의 명을 3차례나 거절하자 태종은 마지막으로 거절하거든 목을 가져오라 명한다. 사자가 황제의 명을 전하자 4조는 말없이 목을 앞으로 내밀었다고 한다.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황궁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황제의 사자는 차마 어찌 하지 못하고 태종에게 그 상황을 전하자 황제는 귀한 선물을 보내어 도신 대사의 뜻을 존중했다고 한다. 그 뒤 대종 황제가 대의(大醫) 선사라 시호를 내려 4조 대의도신 대사라 부른다.

4조의 황제에 대한 약처방은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심의 발로였지만, 황제의 초청을 거절함은 세속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 불교의 세속화를 막고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불교 정신을 견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4조의 자주 정신은 후대 선사에게 일관되게 확인될 뿐 아니라 후대에 혹독한 불교 법난 속에서도 선이 살아남는 동력이 된다.

4조와 신라 법랑 스님의 법연

4조가 교화한 쌍봉산 사조사에는 오백 명 대중 가운데 5조가 된 홍인도 있었지만, 머나먼 신라에서 구법 온 법랑(法朗, 632~?) 스님도 있었다. 법랑은 4조로부터 깨달음을 인가 받아 신라로 돌아와 교화한 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랑 스님의 행적이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그나마 고운 최치원이 봉암사 지증대사비문을 지어면서 희양산문의 개산조 지증(智證, 824~882)대사가 4조 도신으로부터 법을 이어 받은 법랑 - 신행 - 준범 - 혜은 대사의 법맥을 이어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랑 스님의 법맥을 이었다는 신행(神行, 704~779)대사는 이상하게도 법랑 대사가 입적한 뒤 다시 당나라로 유학하여 5조 홍인 대사의 제자였으나 깨달음을 인가를 받지 못한 신수 법맥의 지공(志空)에게 수학하고 법을 이어온다. 선종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수의 법맥을 깨달은 정통 법맥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정설이고 실제 신수 법맥은 3대에 가면 흐지부지 되어 소멸되어 버리니,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중국 쌍봉산 사조사에 가면 4조가 제자들에게 법을 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전법동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5조 홍인과 나란히 '신라인 법랑' 입상이 모셔져 있어 한국에서 간 순례객들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4조와 5조의 드라마 같은 법연

4조가 주석하던 쌍봉산 도량 아래 마을에 소나무를 가꾸며 살아가던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신심이 지극하여 일흔 살에 출가의 뜻을 세우고 4조를 찾아뵈었다. 4조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 '몸을 바꿔 오너라' 고 한다. 노인은 산을 내려와 마을을 지나다 빨래하는 처녀를 만났다. 처녀에게 하룻밤 쉬어가게 해 달라 간청하고는 그 자리에서 죽어 처녀의 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열 달 뒤에 태어난 이가 5조 홍인 대사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집안의 미움과 고초는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아이는 일곱 살이 되도록 이름을 짓지 못할 정도로 처녀 혼자서 힘겹게 키웠으나 유달리 총명하여 그 소문이 4조에게까지 들렸다.

어느 날 4조가 길을 가다가 그 아이를 만났다.

"네 성이 무엇이냐?"

"성은 있으나 예사 성이 아닙니다."

"그 성이 무엇이냐?"

"불성(佛性)인 성입니다."

"그러면 이름은 무엇이냐?"

"내 본성이 공(空)인데 이름인들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으니, 크게 불사를 이루리라."

이렇게 출가한 아이가 바로 4조의 법을 이은 5조 홍인(弘忍, 601~675)대사다. 5조가 된 홍인 대사는 쌍봉산의 동쪽 봉우리(東山)로 불린 빙무산으로 와서 도량을 조성하고 전법교화하는데 회상에는 항상 제자가 1000명이 될 정도로 성황이었다. 4조 대에 도량에 정착한 선사들은 5조 대에 선을 전파할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전설이 된 '동산법문(東山法門)' 이다.

〈불교인재원 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⑬ 싯달타 태자 출가를 막아라



▶ 한줄요약
사문 밖에서 노병사를 체험하고 온 싯달타 태자는 출가할 뜻을 밝히자, 아버지 정반왕은 여인과 온갖 보석으로 아들의 출가를 막고자 노력한다. 태자는 6년 뒤 아들 라훌라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다.

갖은 유혹에도 태자 출가 결심 공고히



그림 · 강병호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단을 내리기까지 고민을 치열하게 한 적이 있던가 생각해 본다. 나의 경우 결혼이 그랬던 것 같다. 30대 중반까지 독신을 고집하였다. 어느 날 내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친척의 한 마디가 자극이 되었다. 아니 우리 식구 발 뻗고 편히 사는데 왜 친척이 잠을 못 자나. 20세기말 만해도 여자는 20대에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한 10년 늦게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가끔 악지식이 인생의 선지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아버지 정반왕은 태자 싯달타의 출가 결심을 듣고 울며 말리는 이야기로 끝났다. 그 내용을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월인천강지곡
사십오장
아버님께 말씀드려 네 가지 소원을 청하며 집을 나가고자 하시니
태자의 손 잡으시고 두 눈에 눈물 지으시며 문을 잡고 막으시니

태자는 '노병사'와 '이별'의 괴로움을 여의고자 출가하고자 하였다. 싯달타 태자는 정거천의 인도에 따라 출가의 결심을 굳히고 차근차근 채비를 한다. 먼저 정반왕이 걱정하는 후사를 잇기 위하여 부인 구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구이는 남편이 곧 출가할 것을 직감하고 항상 곁을 지킨다.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풍류하는 엔터테이너를 더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럴수록 출가를 지휘하는 정거천은 밤마다 내려와 태자의 마음을 일깨우고 다잡는다. 태자에게 세상 환락을 시듯하게 여기게 한다. 그렇게 태자가 출가하는 이월 초이레가 다가온다.

아들 라후라 출산 예언
태자가 부인의 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 여섯 해째에 아들을 낳으리라"
구이가 생각하기를 태자가 나가실까 의심하여 항상 곁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태자가 아들 라후라를 구이에게 임신 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불설중허마하제경〉 5권에는 "만약에 아들이거나 딸이 없이 곧 떠나가서 수행하면 뭇 사람들이 함께 말하기를 '싯달타 태자는 바로 대장부가 아니었으리라' 고 하리니, 나아가 이별한 뒤에 야륜타라의 몸에 임신을 하게 하리라(若無男女便去修行, 衆人俱言 悉達多太子非是丈夫°出別之後, 卽令耶輸身有懷妊)"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 4권에서는 "그때 보살은 궁안의 유희하는 장소에 있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는 지금 세 명의 부인과 6만 명의 채녀가 있는데 만약 그들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즐기지 않는다면, 바깥사람들이 나를 남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터이니 나는 지금 야수다라와 합방할 것이다.' 야수다라는 그 길로 임신하였다."

'구이'를 '야륜타라'와 '야수다라'로 명명하고 있지만 출가 후의 임신과 출가 당일 임신 두 가지 내용이 경전마다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 그만큼 보통사람의 생각에 라훌라의 탄생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사십육장
태자는 효도하실 마음에 훗날을 생각하여 구이의 배를 가리켜 임신을 수기 하시니
구이는 어여쁘신 마음에 태자 나가실까 저어하여 태자 곁에 앉아계시니

태자는 아버지 정반왕께 아들 도리를 다하고자 아내 구이에게 임신을 예언했든 그날 임신을 했든 후사를 확실히 한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어여쁘다'는 훈민정음 서문에 '백성을 어여삐 여겨 새로 글자를 창제한다'고 썼듯이 현대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의미와는 좀 다르다. '가엾이 여긴다'라는 '민연(憫然)'의 뜻이 강하다. 그러나 현대와 중세의 의미를 함축하여 이 말을 되살려 쓰고 싶어 그대로 살렸다. 글을 모르는 것이 안타깝고 가엽고 딱한 생각이 드는 어여삐 여김이라면 아내 구이가 고대광실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남편 싯달타가 왕의 자리를 박차고 출가수행자가 되려는 모습도 딱 그만큼이라는 생각과 무엇보다 그 저변에는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저어하다'도 아름다운 순수 우리말이다. '염려하고 걱정하여 꺼리는' 마음이 깃든 모습으로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어여쁜 아내인 것이다.

四門서 老病死 확인한 태자
정거천 인도로 출가 결심해
6년 뒤 라훌라 출산 예언도
호화로운 보석, 여인 등에도
금강석 같은 발심을 못 막아

매일 밤 정거천의 일깨움
태자가 문 밖에 나가보신 후로 세간의 슬픈 마음이 나날이 더하시거늘 왕이 오히려 풍류하는 사람을 더하여 달래시었다.
항상 밤중이 되면 정거천이 허공에 내려와 일깨워 드렸다.
풍류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태자의 오욕에 즐겁지 않게 하고 세상이 무상하니 '어서 출가하소서'하는 소리를 하게 하였다.
오욕은 눈에 좋은 빛 보고자 하는 것과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하는 것, 코에 좋은 냄새 맡고자 하는 것, 입에 좋은 맛 먹고자 하는 것,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이다.
풍류하는 여인들이 깊이 잠들어 아랫도리를 풀어 헤쳐지고 코와 침 같은 더러운 것이 흐르게 하였거든, 태자가 보시고 더욱 시듯하게 여기셨다.

정반왕은 세간의 오감과 몸을 즐겁게 하는 즐거움으로 태자를 붙들어두려고 노력할수록 정거천은 눈에 보기 아름답고 귀에 들리는 음악소리, 향기로운 후각,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이 덧없게 느껴지도록 한다. 세상 일이 무상하니 출가하라는 말을 들은 태자는 자신을 즐겁게 한 아름답고 기예 뛰어난 여인들의 무방비하고 추한 모습을 목도하고 세상 모든 것이 시듯해진다. 마음이 내키지 않고 싫증나 시들하다는 우리말 표현이다. 정거천의 완승이다.

사십칠장
아버님 분별하여 고운 각시들과 풍류 소리로 태자의 선심(善心)을 막으시니
정거천의 신력에 더러운 각시들과 풍류 소리로 욕심(欲心)을 막으시니

〈월인천강지곡〉에서는 태자의 출가 발심을 선심(善心)으로, 정반왕의 출가를 막으려는 세상 풍류를 욕심(欲心)으로 정리하였다. 발심을 선심으로 한 것도 멋지고 선심의 반대를 악심(惡心)으로 쓰지 않고 욕심으로 선택한 것도 정곡을 찌른 표현이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어찌 선심의 반대라고 악심이 될 수 있으랴.

정반왕의 필사적 노력
태자가 자주 왕께 '출가하고 싶습니다'라고 사뢰거늘 왕이 말씀하셨다.
"네가 마땅히 전륜성왕이 되어 칠보천자를 가지고 사천하를 다스려야 할 것이거늘 어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것을 즐기느냐."
태자가 대답하였다. "정각을 이루어 대천세계를 모두 주관하여 사생을 제도하고 긴 밤을 여의어 벗어나게 하려고 하오니 칠보 사천하를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생(四生)은 네 가지로 태어나는 것이니 축축하고 진 곳에서 나는 것과 번생(翻生)하여 나는 것, 알을 까서 나는 것, 배어서 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을 다 이르는 것이다. 번생은 고쳐 되어 나는 것이다. 긴 밤은 중생이 미혹하여 항상 밤에 있는 것과 같으므로 긴 밤이라 하는 것이다. 왕이 풍류하는 사람을 더 보태어 밤낮으로 달래셨다.

여기서 사생은 '습생(濕生), 화생(化生), 난생(卵生), 태생(胎生)'을 말한다. 화생을 번생이라 하였는데 천계나 지옥의 중생과 같이 과거 자신의 업력에 의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중생의 미혹을 길고 긴 깜깜한 밤중을 헤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이나 불빛 하나 없는 장소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운 빛 공해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몇 번의 경험이 있다. 30년 전 인도 시골 캄캄한 쿠시나가라에 부처님 열반지라고 찾아 갔는데 버스에서 내려 가로등 하나 없어 막막했을 때, 아주 어린 시절 등잔불이 전부인 할아버지 댁에 가면 저녁밥 먹기 무섭게 등잔불의 기름을 아낀다고 억지로 자야만 했을 때가 그렇다. 그 막막함과 답답함을 중생의 미혹에 비유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내 깜냥만큼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들을 제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은 아들에게 아버지 왕은 세간의 즐거움을 물질적으로 보태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목마른 이에게 사탕을 퍼붓는 일.

사십팔장
칠보천자(七寶千子)로 사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아버님 뜻이시니
정각을 이루어 대천세계를 밝히는 것이 아드님 뜻이시니

칠보천자는 전륜성왕이 갖춘 칠보와 천명의 아들이다. 정반왕은 아들이 부처가 되기보다 전륜성왕이 되어 동서남북 네 천하를 다스기를 바라건만 아들은 바른 깨달음을 얻어 그보다 더 큰 우주의 중생들을 깜깜한 한 밤중에서 건져내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다. 21세기 80억 명에 가까운 인간이 살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 옛날에 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로서는 차마 생각조차 닿지 못할 꿈이지만 이 글을 쓰며 한 사람이라도 아니 나 자신의 자리(自利)로 이타(利他)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이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힐링하는
자비의 한 걸음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최첨단 특수극세사원단을 사용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관절과 무릎을 보호하고
피로도 감소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 보행을 약속합니다.
에르코스의 최첨단 기술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
내구성이 뛰어나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er ercohs 에르코스 포행화

무료주문전화 080-848-7777
불교신문 기획사업부 02-730-4489(단체주문)



국난극복 발원, 800년 시간 넘어 '현현'
〈顯現〉

일반 공개한 팔만대장경 참관기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수장된 법보전 내부전경. 스님들도 들어가기 어려웠던 이곳이 사전예약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가야산 해인사의 온 도량에 석가모니불 정근이 울려 퍼진다. 해인사 사부대중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근을 하며 대적광전을 나와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법보전을 향해 한 걸음씩 성스러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평소라면 대적광전 안에서 집전될 법회가 해인사를 거닐며 법음을 퍼트린다. 지난 6월 10일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내부를 순례할 수 있는 사전예약 탐방제의 시작을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법회가 열린 날이다.

그동안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의 가장 높은 곳에 마련된 수다라장과 법보전에 오랜 숨결을 간직한 채 있었다. 그러나 해인사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상님들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법보전의 내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단순히 닫혀있던 건물 하나를 공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법보전과 팔만대장경이 담고 있는 역사와 발원을 알게 되면 그 감동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1236년) 몽고군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의 발원을 담아 만들어진 것이다. 불교경전을 인쇄물로 제작한다는 이상의 의미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발원하고, 그것을 후대에까지 전하기 위해 무려 16년이라는 세월동안 만들어진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그리고 그 팔만대장경을 봉안하여 길이 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해인사의 수다라장과 법보전이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소중한 경판이지만, 그 양이 무려 8만 1258장에 이르고 목재이기에 보관 자체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에 적정 습도와 바람, 온도 등이 최적화된 곳을 고심하다가 정해진 곳이 바로 해인사이다. 그리하여 해인사의 가장 높은 곳에 수다라장과 법보전을 지어 강화도에서부터 다시 모든 국민들이 경판을 짊어지고 옮겨와 봉안한 것이 2021년 6월 19일부터 사전예약 탐방제로 공개하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다.

지금 법보전을 공개하는 이유도 고려 당시에 나라의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극복하려던 국민들의 발원이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전해지고, 그 깊은 울림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본래자리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간절한 발원인 것이다.

필자에게 있어 이번 사전예약 탐방제는 남다르게 다가온다. 출가를 결심하고 꼭 가고자 했던 곳이 해인사였다. 어느 사찰보다 엄격하고 출가자의 위의가 당당한 곳이기에 주저없이 해인사를 선택해 행자생활을 하게 되었다. 처음 온 해인사는 생각대로 수행과 신심이 올곧게 서있는 도량이었다. 그중에서도 팔만대장경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필자는 밥을 짓는 공양주를 했는데 법보전에 올라가는 사시 마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가지고 올라가 부처님 전에 올릴 만큼 막 출가한 행자조차도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남달랐다.

그리고 사미가 되어 해인사승가대학에 입방한 뒤에도 줄곧 법보전 청소를 담당했었다. 당시의 법보전은 아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이라서 출입이 그나마 용이했었다. 특히 청소하는 날에는 팔만대장경을 지키시는 장주 스님에게 열쇠를 받아 안에 들어가 바닥의 먼지도 쓸고 벌레집 등을 털어내며 청소를 하였다.

1학년(치문반) 때는 법보전의 문지방을 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다. 혹시라도 청소를 하다 실수라도 할까 조심조심하였고 곳곳의 모습과 색채, 공기마저도 놓치지 않고 담아두려 했다. 물론 그러다보면 청소를 소홀히 해서 장주 스님에게 호되게 혼난 적도 많았다. 그래도 사이사이 보이는 경판의 한 글자 한 글자의 선명함과 획의 모양은 천 년 가까운 시간을 넘어 사미의 여린 가슴에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청소를 마치고 다시금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고 나면 그 날 하루는 마치 역사의 수호자가 된 듯한 뿌듯함에 도반 스님들에게 자랑도 하고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8년간 유학을 떠난 뒤 다시 해인사에 돌아와 가장 먼저 인사드린 곳도 법보전이었다. 다시 돌아온 법보전은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격한 경비 속에서 지켜지고 있었다. 예전만큼 가깝게 다가설 수는 없었으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반겨주고 있는 모습에 다시금 본래자리로 돌아왔다는 따스한 안도감을 받았다. 많은 선후배 스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인사에서 정진하셨던 스님들이라면 누구라도 강원생활과 팔만대장경에 엮인 이야기로 한참 "라떼는 말이야"를 찾으실 거다. 필자 역시도 유학을 가기 직전 법보전에서 삼천배를 하고 굳은 마음을 다졌다가 다시 해인사로 돌아와 맨 먼저 법보전을 찾아 부처님께 감사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돌이켜보면 행자시절 내가 해인사를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해인사가 나를 받아주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은 나에게 있어 출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곳이다.

6월 19일부터 사전 예약 통해
팔만대장경 수장 법보전 공개
스님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해
학인시절 청소시만 입장 가능
선조 국난극복 발원 전해지길

필자의 지난 시절 이야기와 같이 지금도 해인사에는 많은 스님들이 모여 수행정진을 하고 있다. 특히 해인사승가대학은 전통승가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며 현 시대에 대한 불교적 고민과 전통교학의 활용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동안거에는 방장스님과 주지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의 배려로 〈대승기신론소기회본(大乘起信論疏記會本)〉을 학인 스님들이 직접 인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인경(印經)이란, 표현 그대로 경전을 새긴 목판을 인쇄하여 책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인경이 경판에 먹을 입혀 종이를 놓고 문질러 인쇄하는 단순한 과정인 듯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상당한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특히 500년 가까이 된 나무경판을 직접 인경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섬세한 작업인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렇기에 인경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철저히 안전을 확인한 뒤 굳게 닫혀 있던 법보전 안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수차례 교육을 받고 들어선 법보전이지만 순례를 위한 것이 아닌 경전을 꺼내 인경한다는 생각에 전혀 다른 긴장감과 경외심이 느껴졌다. 법보전의 경판은 총 4단으로 이루어진 서고에 보관 중인데, 우리가 사용할 경판은 가장 높은 4층에 있었다. 오래된 서고를 생각해 다소 체중이 적은 스님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으나 막상 올라가니 그 높이는 상당했다. 게다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경판이었기에 한 장만 꺼내도 500년 세월의 먼지도 함께 나와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다. 마치 수호신장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판을 지키려는 모습과도 같이 느껴졌다.

조심스레 경판 한 장을 꺼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낸 뒤 고운 한지로 정성스레 감싼 뒤 경판보관용 상자에 담아 세상 밖으로 꺼내었다. 동안거 한 겨울에 작업을 하다 보니 판전 내부의 공기가 가슴을 시리게 할 정도로 차가웠다. 게다가 판전 내부는 공기역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통풍이 매우 잘 되서 가야산 동장군의 기운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려 기회본의 모든 경판을 보존원으로 옮겨와 재확인과 검열을 마치고 전용고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인 인경을 배워야 했다. 인경은 종이 한 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인쇄해야 하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최고의 인경전문가이신 월인 변영재 거사를 초청해 일주일에 걸쳐 특강과 습의를 받아 전체 학인 중 7명을 선발해 인경팀을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우수한 스님들이었어도 다시 인조경판으로 3일간 인경연습을 마친 뒤 비로소 기회본 경판 앞에 앉을 수 있었다.

인경을 수 백 장 연습했어도 실제 경판을 마주하니 그 무게에 압도되어 한참을 긴장하였으나, 이번 인경을 통해 불법을 바르게 배우고 많은 이들에게 회향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신심을 가다듬고 한 장 한 장 인경을 해나갔다. 두 권 분량의 기회본은 하루 이틀에 마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기에 며칠 간 늦은 시간까지 인경작업에만 몰두해야 했다. 일주일 가깝게 7명의 학인 스님들이 신심을 다해 인경을 하였고 마침내 경판으로 존재하던 기회본이 책의 형태를 갖추고 세상에 모습을 보였다. 힘들고 긴 시간이었으나 인경된 두 권을 보니 모든 학인스님은 한결같이 피로를 잊고 환희심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한참 지쳐있었고, 해인사도 산문까지 폐쇄하며 방역에 힘쓰던 시기였기에 대승기신론이 담고 있는 가르침이 인경을 통해 더 깊이 다가왔다. 대승기신론은 일심(一心)과 이문(二門)의 가르침을 설한다. 부처님의 절대평등의 일심과 그것을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으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진여라는 깨달음은 생멸이라는 번뇌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깨달음이란 특정 누군가만의 전유물이 아닌 중생, 바로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바른 생각으로 눈뜰 때 바로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여문와 생멸문이 둘이 아니고,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며, 중생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이처럼 기회본을 인경한다는 것이 해인사 스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를 통해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가르침을 알려주고, 다함께 평안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불법의 뿌리를 심은 것이다.

그리고 2021년 6월 19일부터 시작된 팔만대장경 사전예약 탐방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느끼고, 그것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려는 동체대비의 실천인 것이다. 법보전에는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즉시(圓覺道場何處 現今生死卽時)'라는 주련이 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투철하게 바라볼 때 펼쳐지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며 국난극복을 바라던 고려 국민들의 발원이 다시금 숨결을 일으켜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모든 이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져 나무그늘과 같은 의지처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보전의 문을 열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법장 스님(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GM since 2015 SOFT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복을 가져다 주는 행운의 말발굽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재운이 있어야 돈도 벌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기에 금전운을 키워야 합니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는 것이 있었으면 할 때 말발굽을 소장해 보세요. 말(馬)은 원래 서양 속담에 "말굽을 발견하면 행운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습성이 있어, 예로부터 액운을 막고 복을 가져다주는 상징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없던 복도 굴러 들어오고, 재산을 모으고, 장애물을 쉽게 넘어갑니다. (모든 일이 술술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들어온 복을 지켜주며, 선물용으로도 좋고 장식용으로도 좋습니다.


30만원 사이즈 54X47X5cm
*모든 액자틀은 원목을 사용합니다.
20만원 사이즈 49X34X5cm
11만원 사이즈 35X35X5cm

● 초진재보란?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재물이 피해 가지만
재물을 사랑하고 초대하면 재물이 저절로 들어온단 뜻입니다.
*말(馬)이 실제로 사용한 굽이여서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가좌로 248 유튜브 "유명표구사" 검색
유명액자만물 Tel. 010-3308-6986
※ 전국택배 됩니다.

기업은행 041-002694-03-016 이종부

법화경 수지 독송은 '공양·불사'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㉖ 법공양

"아일다여, 이 경을 수지한 선남자 선여인들은 나를 위하여 굳이 탑을 세우고 절을 짓거나 승방 짓거나 음식, 의복, 침구, 탕약 등으로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이런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만으로 이미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짓고 승가에 공양한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곧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쌓되 높고 넓게 치솟아 범천에 이르고, 여러 번기와 일산과 보배 요령을 달고, 꽃과 향과 영락으로 꾸미고, 가루 향, 바르는 향 태우는 향과 여러 가지 악기로 춤을 추고 즐기며,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하여 부처님을 찬탄한 것이 되나니, 한량없는 천만억겁에 이렇게 공양한 셈이 되느니라.

아일다여, 만약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니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면, 그것이 곧 절을 지으면서 붉은 전단향 나무로써 서른두 채의 전각을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여래가 열반한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하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여 경전에 공양하면, 다시 탑과 절을 짓거나 암자를 짓고 스님들께 공양할 필요가 없다.' 하느니라.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다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아울러 모두 행한다면 더 말할 게 있겠느냐. 그 공덕이 가장 뛰어나 한량없고 끝이 없으리라. 마치 허공이 동·서·남·북과 사유·상하에 한량없고 가없듯 하니, 이 사람의 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량이 없고 끝도 없어서, 속히 일체종지에 이르게 되리라.

아일다야, 내 멸도한 후에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 경전을 능히 수지, 독송하는 자가 다시 이러한 여러 가지 착한 공덕 갖춘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이미 도량 나아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가까워져 보리수 밑에 앉은 것이 되느니라. 아일다야,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들이 앉거나 서거나 걸어가는 곳이면, 거기에는 응당 탑을 세운 것이 되느니라. 그러면 모든 인간과 천신들이 모두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양할 것이니라."

〈법화경〉은 어느 경전보다도 전문에 걸쳐 〈법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일승(一乘)의 근본 이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 볼 수 있지만, 〈법화경〉을 모르면 부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식의 말이 나오고 심지어 〈법화경〉을 모르면 보살행을 닦지 못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리고 부처님 열반 후나 말세의 경우를 대비하는 이야기도 많다. 어떤 면에서 〈법화경〉은 '말세 중생을 위한 경'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본문 이야기도 〈법화경〉이 지니는 근본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것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되고 또 탑을 세우고 절을 짓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고 있다. 〈법화경〉을 자신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書寫)하거나 남에게도 권하여 자기처럼 하게 하면 탑을 세우고 절을 짓는 이른바 세속적 불사(佛事) 공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마치 〈화엄경〉 '보현행원품' 에서 법공양이 공양 중의 으뜸이라고 한 말과 뜻을 같이한다.

원효의 〈법화경 종요〉에는 〈법화경〉의 종지를 일승실상(一乘實相)이라 하였다. 그리고 일승의 수레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면서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三乘)뿐만 아니라 삼계 사생의 중생 전부가 탈 수 있으며 이 일승을 타는 사람은 모두가 불자(佛子)가 되고 보살이 된다 하였다. 나아가 천제 성불론까지 내세웠다. 〈열반경〉에서도 내세운 천제 성불론은 비록 선근(善根)이 없는 중생이라도 불성(佛性)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불의 가능성이 없는 중생은 없다는 것이다. 원효는 〈법화경〉의 대의를 서술하면서도 "법화경은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큰 뜻과 일체중생이 나아가는 하나의 길을 밝힌 넓은 진리의 문"이라 하였다. 중생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천명해 놓은 이행도(易行道)의 문을 열어 보여주었다 할 수 있는 경전이 〈법화경〉이라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죄가 되지 않는 보살의 악행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㉖ 유가계(瑜伽戒)와 선교방편(善巧方便)

대승 보살은 대승불교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는 존재로, 그에게는 두 가지 지향점이 있다. 즉,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공(空)인 것을 아는 반야(般若)의 지혜를 획득해야 하며, 현실 사회에서 그 지혜를 오롯이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전자는 상구보리(上求菩提)에 해당할 것이고, 후자는 하화중생(下化衆生)에 해당할 것이다. 후자를 보살행이라고도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悲心]이 있어야만 한다. 만약 보살에게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보살행은 시작될 수 없으며, 그 마음이 점점 작아진다면 보살행은 계속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승 보살행은 반야의 지혜를 갖춘 보살이 연민의 마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승 경론에는 간혹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보살행이 묘사되어 있는데, 〈유가론(瑜伽論)〉의 보살지(菩薩地)에도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 논의 '계품(戒品)' 에는 4종의 타승처법(他勝處法)과 43종의 위범(違犯)이 설해져 있는데, 이는 각각 중계(重戒)와 경계(輕戒)에 해당한다. 한편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에서는 출가 보살은 8가지 중계, 재가 보살은 6가지 중계와 48가지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설한다. 또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에서는 모든 보살이 4가지 중계와 42가지 범사(犯事)를 지켜야 한다고 설한다. 이처럼 보살계의 세부 항목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모두 유식 계통의 경론에 설해진 계이므로 '유가계(瑜伽戒)' 라고 부른다.

4가지 중계는 본질적인 죄에 대한 계인 성계(性戒)인 까닭에 모든 보살이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계품' 에서는 재가 보살이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선교방편(善巧方便)을 행한다면 설령 악행을 하더라도 계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설한다. 다시 말해 보살이 다른 이를 위해 7가지 악행(살생, 도둑질, 음욕, 거짓말, 이간하는 말, 욕설, 꾸미는 말)을 하는 경우 그것은 그 자체로는 악업이지만, 그 의도에 비추어 본다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보살이 어떤 재물 때문에 수많은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도둑과 강도를 본다면, 그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내가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 낫지, 이 중생이 무간업(無間業)을 지은 후에 지옥의 종착점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연민의 마음으로 보살이 살생한다면, 그 보살은 계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유가계에서는 신체적 행위나 언어적 행위보다 의지적 행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선교방편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또 〈유가론〉의 '보리분품(菩提分品)' 에서는 선교방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한다. 우선 내적인 선교방편은 부처님의 속성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①중생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수반하는 관심이며, ②모든 행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며, ③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며, ④중생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윤회를 버리지 않는 것이며, ⑤모든 행을 여실하게 아는 것에 의지한 후에 염오(染汚)되지 않은 마음으로 윤회하는 것이며, ⑥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기뻐한 것에 의지해서 용감하게 정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적인 선교방편은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①방편의 능숙함에 의해 보살이 작은 선근을 무량한 과보의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며, ②작은 노력으로 광대하고 무량한 선근을 산출하고 초래하는 것이며, ③부처님의 교법(敎法)에 대해 증오하는 중생들의 증오심을 없애주는 것이며, ④부처님의 교법에 서 있는 중생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며, ⑤이해한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것이며, ⑥이미 성숙한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대승 보살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방편에 능숙해져야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② 괴로움 원인과 윤회 비밀 (중)

망념, 不覺의 무명 때문

불자 여러분! 이처럼 진여본성이 무념으로써 불생불멸하며 본래 청정함에도 불구하고 생멸하는 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진여와 상응하지 못하는 불각(不覺)의 무명 때문입니다. 이 무명으로 인해서 아뢰야식은 생멸하는 인연상을 형성하여 제7말나식의 의(意)와 제6의식인 식(識)으로 전변합니다. 그러나 아뢰야식의 본체는 불생불멸의 진여본성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8아뢰야식은 '불생불멸 진여상과 생멸하는 인연상이 화합하여 하나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르지도 않는 이중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래장(如來藏)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먼지에 쌓여있는 보석이 스스로 광채를 드러내지 않고 있더라도 보석은 여전히 보석인 것처럼 진여본성이 비록 무명에 가려져 아뢰야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중생의 마음은 무량한 공덕을 갖춘 불성으로서 여래성이 내재되어 있는 진여본성이기 때문에 '여래장'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업을 짓고 윤회하는 주체인 이 아뢰야식 속에는 자신이 과거에 지어 놓은 선천적 기억정보와 훈습된 경험정보들이 한량없이 들어 있습니다. 선천적 기억정보 속에는 신체의 발육과 성장 및 유전인자의 활동을 담당하는 생리적인 유전정보와 부모 조상 등에 의해 경험되어진 집단무의식 등의 업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이 스스로 지은 전생의 업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려면 부모님의 몸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가진 업력과 부모의 수많은 조상님이 지은 업력도 함께 나에게 유전 상속되어 내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마음, 여래성 내재된 진여본성
윤회주체 아뢰야식 속 전생 업식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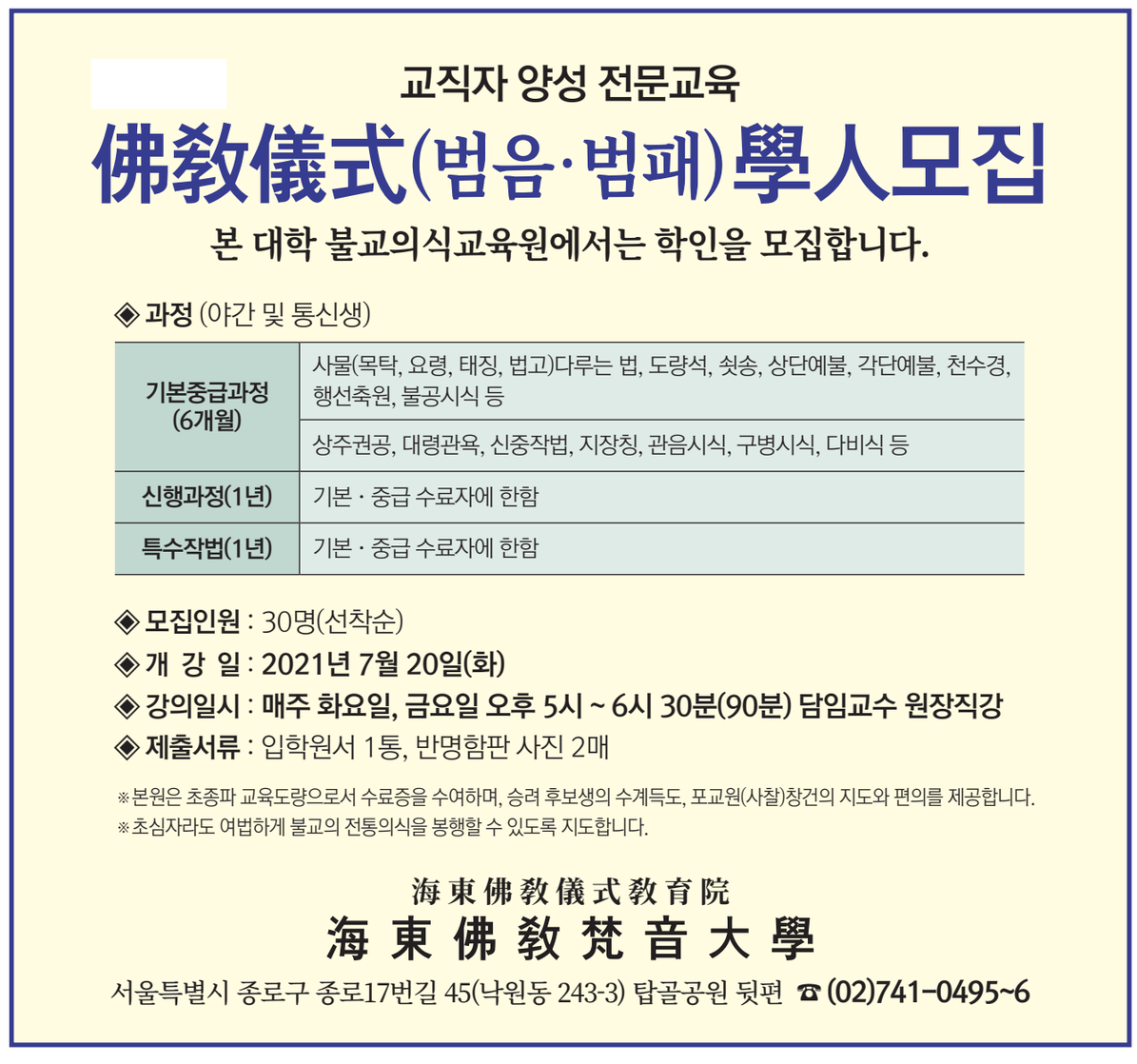
불자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태어난 중생들의 마음속에는 영겁의 윤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은 착한 업과 나쁜 업의 종자식들이 아뢰야식에 모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뢰야식을 함장식(含藏識)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은 무념의 진여본성과 생멸하는 망념의 중생심을 함께 갖춘 이중성의 마음인 아뢰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번뇌와 오염으로 인해 인연에 따라 욕망을 일으키며 애착하고 심신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왜 마음이 번뇌로 요동치고 업을 짓게 되는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자식을 갖춘 제8아뢰야식은 진여본성에 순응하지 못하는 불각(不覺)의 마음 때문에 무명 업식이 일어납니다. 이 무명 업식은 보는 자인 능견상(能見相)과 보여지는 경계상(境界相)을 일으키며 마음을 이원화시킵니다. 아뢰야식의 이원화 작용에 의해 제7말나식은 아뢰야식의 능견상[能見相, 見分]을 자아로 여기고 '내가 나다' 라는 자기의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7말나식을 '자아의식' 이라고 합니다. 이 제7말나식은 항상 무언가를 세심하게 사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무의식인데, 제6의식이 활동할 때마다 의근(意根)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인식작용을 할 때마다 마음 깊숙한 내면에서 항상 '내가 있다' 라는 아상과 아집을 일으키게 하여 자타(自他)와 주객(主客)을 이원화시키며 나와 남을 대립시켜 사량 분별하여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마음들은 제7말나식에 의해 염염(念念)히 상속(相續)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작용을 할 때마다 기억이 생겨나고 영혼이 있다는 자아의식이 생겨나는 것이 다 제8아뢰야식과 제7말나식의 작용 때문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제8아뢰야식과 제7말나식의 작용에 의해 근본무명과 번뇌와 마음의 오염으로 인한 마음의 장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장애는 끝없는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일으켜 근본번뇌를 만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애욕과 갈애(渴愛)의 욕망을 일으켜 삼독심에 물들게 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48호 | 17 | 전면광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사구게 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준 공덕이 더 수승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금강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 조 불 교 재 활 용 센 타

010-9177-7842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사주명리학·성명학 수강생 모집

❊ 3개월 완성 ❊
❊ 왕초보자 환영 ❊
1:1 특별과외도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2~3회 강의
강의 장소 : 부산시 또는 경주시
※ 카드결제가능

010-2523-7771

천도재, 49재 회양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검 색★

G 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스님들의농장 운영보살

❖ 도고온천에 2박3일
❖ 불자들은 무료로 콩새싹밥 칡밥에 도전하시고져 하는분
❖ 고졸이상 운전 컴퓨터 음악이나 글짓기
❖ 임명이 결정되면 준성직자 100일 교육
❖ 지장성모님 해탈세계 밝고맑은 사람들

만불사 043-745-3332
010-3410-000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산 갓바위 근처
• • •

010-4766-3200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지

성취시키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易(역) 수강생 모집

•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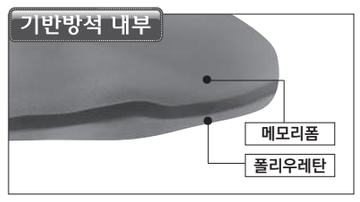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48호 | 18 | 전면광고

만약 근기가 총명하고 지혜가 밝으며 많이 듣고 널리 알아서 불도를 구하는 이 있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는 경을 설할지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화경 방편품》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경기
◎부지 : 5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26억
◎위치 : 대전서구포교당
◎면적 : 35평
◎보증금1000/30만원
◎시설비1000조정가
◎APT상가, 포교용이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전통 암자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공원같은곳(종교용지 900평)
- 은행대출 1억5천안고, 2억4천5백만 합계 3억9천5백만(공원같은곳)
-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 법당(요사채 최신형 임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 5천그루 ●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대지 230 평
-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 가액: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15년 기반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 2층건물, 옥상 60평 사용
- 보증금 1000만, 월세, 관리비 60만원
- 일체 인수 가능하신 분

010-3452-1123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인천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함, 사찰연력 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235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8천5백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 1층 : 93.3725㎡(방음시공)
- 법당, 방1, 공양실
-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 권리금 20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 중구 보문산5거리 (당산나무옆 2층)
- 시설 : 삼불전, 약사전, 요사채(2) 42평
- 권리금 : 1천5백만원(바로 법회 가능)
- 임대보증금 : 3백에 월 30만원, 절 이전으로 시설권리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음.
- 서기가 있어 영험한 기도도량입니다.
- 기도가 아름다운 절 보문산 지장사

주지 무진 010-3049-581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 부지 : 1천평(또는 4백평)
- 가액 : 상담(방문)후 결정
- 부산 최고 명당자리
- 전시컨벤션 ●복지시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0-7710-83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안양시 관악산 (관악산 둘레길 참배객 많음)
- 대지 : 360평 외 국유지 약 200평
- 건물 : 6동 외 미륵전
- 가액 : 18억

010-5330-85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100평 ●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 전.월세가능
-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807-0509

추모공원 안내

- 수목장10,300평
- 사찰과 납골당 부지 6,000평
- 김해광제IC에서300m
- 가액 70억

010-2913-79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전망좋은 사찰
- 대지 : 28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
- 많은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0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사 찰(급)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 / 국유지 70평(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불화등)
- 가액 12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7473-2399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행복의 실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의 주요 원인은 행복해야 된다는 강박입니다. 행복을 만들려고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부인하고 긍정을 추구합니다. 행복하지 못하면서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꽃으로 덮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까지 속일 수 있어요. 불교는 긍정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나서 "무지한 존재의 본질은 고통이다. 그 원인은 실상을 모르고 자신과 현상에 집착하는 마음의 습관 때문이다. 고통을 인정하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일시적인 즐거움은 알지만 진정한 행복은 잘 몰라요. 매우 제한적이고 무력하게 하는 탐진치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미칠 정도로 불행하고 불안하고 우울하세요? 정상입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그래요. 다행이지 않나요. 고통과 아픔을 인정하면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저절로 생겨요. 쉽게 봐줄 수 있고 잘해 주면 너무 감사해요.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고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뿌듯해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도 되요. 큰 안심이 생겨요. 인정과 받아들임,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안하신 길입니다.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⑬ 무량산 자조차

역사 아픔 자줏빛 차싹으로 승화

어른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으면 꼭 떠오르는 차가 있는데, 바로 '무량산 자조차'입니다. 자조차는 차나무 줄기가 자주색으로 붉어서 자조차(紫條茶)라고 부르는데, 차나무 줄기가 왜 붉게 변했는지 차나무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사과나무와 소년의 사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자라서 더 이상 사과나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와서 사과도 몽땅, 나뭇가지도 몽땅, 마지막엔 그루터기만 남기고 나무 자체를 몽땅 잘라갔는데도 사과나무는 소년을 위해 뭔가를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화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며 과연 나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 묻고 또 물으며 나무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차나무의 역사에서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똑같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무량산 자조차

차나무의 원산지이며 오늘날에도 천년 고차수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운귀고원의 무량산(無量山)에 차나무를 사랑하고 차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정착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족이라고 부르는 소수민족입니다. 이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북방유래설과 남방유래설 등 여러 설이 있지만 현재는 북방유래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족은 현대 중국어로 이족(彝族)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현대 중국 성립 전에 원래는 이족(夷族)이라고 썼었죠. 이족은 백이(白夷) 흑이(黑夷) 등 여러 갈래가 있는데 높은 산이나 절벽 위에 은신처를 마련해 모여 살았습니다. 이(夷)는 예로부터 한족이 우리민족을 지칭하는 글자이기도 했지요. 동이족(東夷族)이라고 하듯이요. 이족을 오늘날의 이(彝)로 개명한 사람은 마오쩌둥입니다. 이(彝)를 가만히 보면 중간에 쌀 미(米)도 있고 실 사(絲)도 있지요. 험준한 곳에 은거해 살다보니 근현대중국 사회에서 56개 소수민족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민족이 되었고, 마오쩌둥이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하라고 이(夷)을 이(彝)로 개명했다고 이족역사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족은 나무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산촌마다 가장 오래되고 멋진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하고 제사도 지냈지요. 차나무를 신성시하는 마을, 소나무를 신성하는 마을, 대나무나 호롱박을 신성시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적 전통에서는 나무신앙이 특이한 일입니다. 중국을 여행하다보면 특히 한족 집거지에는 나무신앙의 전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족이 사는 무량산에 천년 야생 차나무가 보존되어 온 것은 아마도 워낙 험난한 고산 지대라서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웠다는 점 외에, 나무를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이족의 전통이 차나무를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중국에서 1950~1960년대에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문화대혁명 때에는 차가 부르주아 유산이라고 해서 차를 불태우기도 하고 차나무를 많이 훼손했습니다. 대약진운동 때에는 노동력집중 경제성장을 위해 실용성을 이유로 자연을 파헤쳤지요. 대약진운동의 광풍이 무량산에도 불어닥쳤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수종을 개량한다는 명분으로 무량산의 수백 년 고차수 군락지를 모조리 훼손하고, 사람들이 사는 농지 가까운 곳에 밀식차를 새로 심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고차수를 베어버리고 옥수수와 잡곡을 심기도 했습니다.

대대로 지켜온 수백 살이 넘은 차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이족들은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나무의 아픔은 더했습니다. 천 년 동안 찻잎을 나누어주며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 주었는데 어느 날 도끼와 톱을 들고 와 나무를 다 잘라버렸으니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장자(莊子) 우언에 쓰임이 있는 나무는 오래 살지 못한다, 천수를 누리려면 무용(無用)의 나무가 되라고 했는데, 차나무들이 만일 찻잎을 피워내지 않는 무용의 나무가 되기로 결의를 한다면 사람들은 다시는 차를 마시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무량산 고차수는 인간이 훼손해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인고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잘려버린 고차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새로 난 찻잎 줄기들이 자줏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루터기가 된 나무들이 생명을 잉태하느라 얼마나 애를 썼으면 줄기가 붉어져 변종이 된거예요. 자줏빛 줄기에는 차의 영양소 더하기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무량산 촌장의 말이 그때 찻잎이 피어날 때 향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산촌마을 전체가 차향으로 진동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고산지대 몇 곳에서 찻잎이 붉은 차나무, 잎과 줄기가 모두 붉은 차나무가 발견되었고, 요즘은 인공적으로 잎과 줄기가 붉은 차나무를 번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과 역사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태어난 무량산 자조차, 특히 제가 소중히 여기는 차입니다.

무량산은 아름답고도 슬픈 산입니다. '무량산 자조차 2006'은 불사조가 불속에서 환생하듯이 새롭게 부활한 찻잎으로 만들었습니다. 건강하고 튼실한 찻잎과 줄기, 수색은 윤기 나는 황갈색으로 영롱합니다. 해발 2250m의 고산지대 운무 속에서 자라서 상쾌합니다. 보이생차의 은은하고 감미로운 맛이 15년의 세월 따라 더욱 두터워지고 향은 난향에서 밀향을 더해가며, 내포성이 좋아 9포를 우려도 변치 않고 몸이 따뜻하게 열감이 오르면서 부드럽고 묵직하게 아낌없는 사랑을 전해줍니다.

〈잇다it茶 대표〉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삼일선원
- 주 지 : 태안 (속명 : 임상도)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71번길 35-4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 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 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 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굿바이, 분노

▶ 한줄 요약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감정의 노예일 뿐, 소통으로 해결이 중요하다.

용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법

가해자? 그저 불쌍한 존재일 뿐

만약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구도 고통은 원하지 않으므로
세상에는 고통 받는 이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부주의해서
가시 위에 앉다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하고
배우자를 얻으려는 욕망이 너무 강하여
식사조차 하지 않기도 한다네.
또 어떤 이들은 목을 매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독약을 마시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을 섭취하는 부덕한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기도 한다네. [6:34-6:36]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가해자는 분명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분노하지 않았더라도 방일, 탐욕, 들뜸 등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는 실수를 살펴보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중생은 주의력이 부족하여 타인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또한, 지혜의 부족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가해자는 번뇌에 사로잡혀 나와 남을 실수로 해칠 가능성이 있는 불쌍한 중생일 뿐입니다. 우리 고통의 주적은 오직 분노 즉, 번뇌뿐입니다.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까지 죽이는데
어떻게 그들이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번뇌 때문에 이성을 잃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에 대해
자비심은 못 낼망정 화를 내서야 되겠는가. [6:37-6:38]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망한 여러 원인을 보면 슬픈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더 두려워해야 할 만큼 자살의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강렬하게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분명 고통을 피하고 행복해지려는 이고득락의 욕구가 있습니다.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과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자살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조차 뛰어넘을 만큼 번뇌에 강렬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이들에게 우리는 자비심을 지녀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실질적인 통증과 피해를 나에게 준다면 정도에 따라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만약 그 흐름에 빠져 버리면 나와 그 불쌍한 가해자는 번뇌에 잡아먹혀 고통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번뇌에 저당 잡혀 평생 노예가 되거나 긴 윤회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가해자가 아주 작은 잘못만 했다는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남은 감정 때문에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방향성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심으로 바꿔 그 앙금을 제거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의 발버둥은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부디 마음 속 연민심이라는 향초에 불꽃을 붙여주세요. 그 자비심의 향기가 나를 넘어 그를, 그리고 세상의 분노를 녹이는 약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도 그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가 누군가에게는 해악을 끼쳤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범죄자의 어머니들은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조건 없는 사랑의 모범적인 예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 없는 사랑에 포함된 지혜의 눈은 사람과 번뇌를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의 범죄를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범죄 행위와 구분되는 그 아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 원망의 대상은 분노 그자체
> 일어나는 감정이 사태 원인
> 대상자 용서가 해결 시발점

남을 해치는 것이 어리석은 범부들의 본성이라면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니
타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불에게 화내는 것과 같다네.
중생의 허물은 일시적인 잘못일 뿐이고
그들의 본성은 선량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하나니
구름이 끼었다고 하늘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다. [6:39-6:40]

모든 존재를 무조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구름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수입니다. 범죄라는 구름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중생이라는 하늘을 동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 불쌍한 중생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해자는 우리와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세상의 상식에서 우리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받았지만 사실 가해자도 번뇌에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 다수는 우발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런 경우 범죄자는 평소 그 사람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합니다. 마치 귀신에 씐 것처럼 사람이 변한다고 표현하는데, 분노라는 귀신은 이렇게 착한 사람도 순식간에 악인으로 변화시킵니다.

분노가 모든 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린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평화롭고 착할지 모르지만,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떤 악한 마음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지 알 수 없습니다. 가해자인 그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까지도 망친 것입니다.

범죄자, 가해자에 대해 말하면 남의 얘기 같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 역시 일상을 살아가며 자잘한 반감과 짜증, 그리고 표출되지 않은 분노와 자주 마주치게 되고, 그때마다 분노의 대상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믿었던 우리 자신이 해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대상은 우리와 자주 만나는 친한 사람, 사랑하는 이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번뇌와 그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힘입니다.

분노의 이어달리기

요즘 교통사고 사건에 100% 과실 판결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원리로 분노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적용해보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양한 관점에서 가해자와의 과실 비율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왜 나에게 해를 끼친 걸까요? 그 사람이 비정상적이라 아무 이유도 없이 해를 끼쳤을까요? 평소엔 멀쩡하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원리를 적용해보면 분명 무엇인가가 거슬렸을 것이고, 그 무엇인가가 계속 긁어서 결국 뚜껑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또한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기에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누가 막대기 같은 것으로 우리를 해치면
우리는 그것을 휘두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만
그도 분노에 휘둘린 사람이니
우리가 화내야 할 대상은 바로 분노라네.
내가 과거에 남들에게 해를 끼쳤으니
그들이 지금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네. [6:41~6:42]

이 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물리 법칙 중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번뇌에 사로잡힌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번뇌에 사로잡힌 과거의 내가 저지른 해악에 대한 반작용일 뿐입니다.

이러한 업보 사상을 대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저지른 악업에 대한 과보는 A에게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악업의 과보에 대한 진실은 A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누구로부터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태국에서 저지른 폭력의 실수가 한국의 다른 누군가로부터 폭력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라는 피해자가 독립적이라고 여깁니다.

A는 모든 존재와 연결된 세상의 일부입니다. 시인들이 하나의 나뭇잎에서 바람과 햇빛 그리고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나뭇잎이 모든 존재와 연결된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A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관점은 그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A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과보는 세상 어디서든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서두의 질문으로 되돌아가면 A가 나를 때린 이유는 과거의 내가 저지른 악업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누군가로부터 되돌려 받게 될 과보를 그가 담당한 것입니다. 그는 내가 저지른 악업에 의해 범죄에 유도된 것이니,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오히려 나입니다.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행 스님

모든 문제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로 인해서 오고 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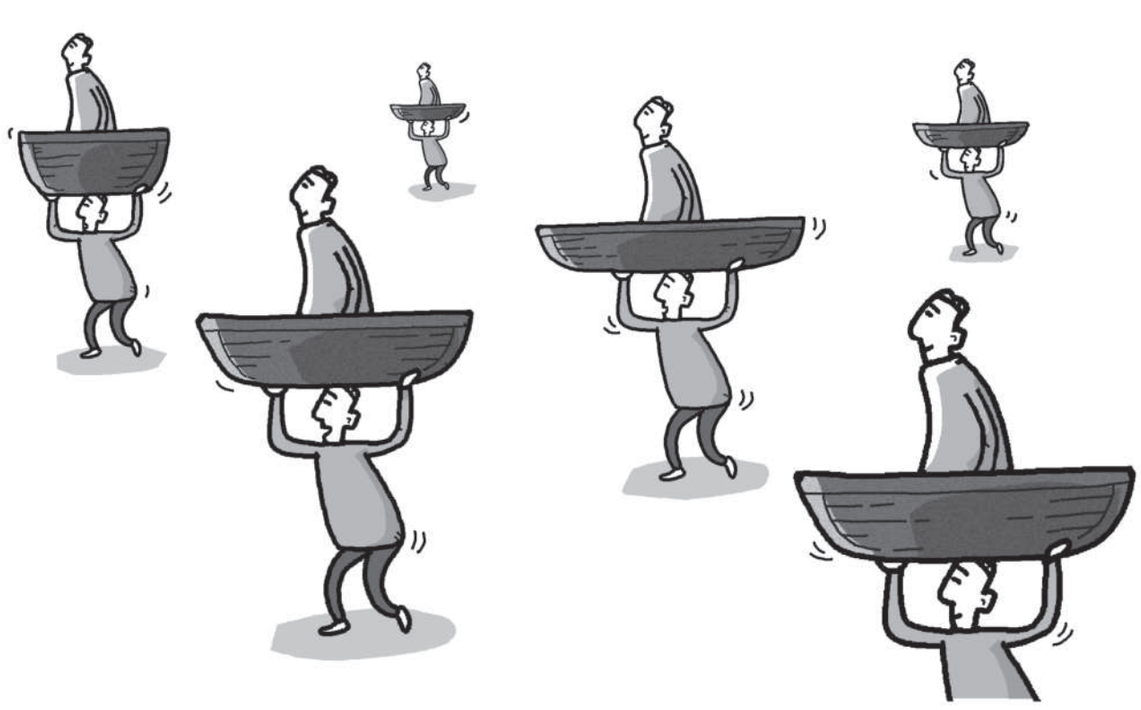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같이 자리를 해서 한 마음으로서 굴리면서 공부를 하시려고 애를 쓰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포괄적인 한마음으로서 같이같이 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본래 과거의 마음으로 산 마음이나 지금 우리 마음으로 사는 마음이나 미래에 또 우리가 살 그 마음이나 똑 그 마음 하나로 인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자기 마음과 자기 마음이 언제나 맞지 않고 항상 하나는 하나대로 겉돌고 거짓에 속고,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속기 때문에 항상 이게 맞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당장 오늘 저녁에 굶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저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가 지금 시쳇말로 빽이라고 할까, 자기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당장 굶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튼튼한 게, 그득한 게, 자기가 떳떳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병도 가져오게 돼 있고,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병을 낫게 하게 돼 있고,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가난을 가져오게 돼 있고,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흥함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인과응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모든 문제들을, 일체 만법에 대해서 모든 것의 그 양면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저렇게 가져오는 것도 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로 인해서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 '아, 나를 엎드러트린 고놈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이러는 겁니다. 즉 망하게 했다면 흥하게 할 수도 있는 놈이 고놈이고, 아프게 했다면 안 아프게, 낫게 할 수도 있는 놈이 고놈이다 이거야, 응? 고놈이 그러는데, 고놈을 고놈이라고 할 수 없으니 바로 자기는, 과거의 자기나 지금 자기나 모습만 달랐다 뿐이지 진화돼서, 창조돼서 이렇게 모습을 다르게 해 가지고 나온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묘한 법이 됐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자불 노승이 제자를 데리고 선창가에 갔답니다. 선창가엘 갔는데 왜 갔는지 제자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자불 노승은 자기가 짚고 갔던 지팡이를 물속에 넣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있다 하는 소리가 "스님, 왜 지금 지팡이는 물에다 넣고 계십니까, 이 뙤약볕에." 그러니까 "얘, 그런 말 마라. 지금 급하구나. 고기 잡느라고 그런다." "아니, 낚시를 넣어서 고기를 잡아도 잡힐까 말까 한데, 이 가장자리에서 지팡이를 넣고 계신데 어찌 고기를 잡겠습니까?" 하니까 그 노승이 있다 하는 소리가 "이 어리석은 놈아, 지금 이 물속에서 전체 회의를 하는데 말이야, 내 이 지팡이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의를 못 해.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회의를 하느니라. 그러니 이 모자라는 놈아, 떠들지 마라." 그러고선 귀를 잡아당겨서 귓속에다 귓속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왜 귀를 붙잡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고기들이 요런 내막을 알면 회의를 하려고 모이지를 않아. 그러니 누설이 되면 안 되니 네 귀에다 대고 이러는 거다."

그러면서 노승이 하는 소리가 "인제 급하게 배가 당도하고 짐을 실을 것이다. 그러니 짐을 싣고 갈 때 우리는 그 배를 타야 된다." 이러시거든요. "웬 배는 타십니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노승은 "이놈아! 이 해안에, 지금 전 세계 해안에 물기둥이 넷이 있으면 수검이 또 넷이 있느니라. 수검이 넷이 있으면 불검이 넷이 있고, 또는 빛검이 넷이 있느니라. 감응법으로 인해서 사는 세계에는 감응으로써, 즉 말하자면 감응이라 하면 전체 무전통신기를 통해서 감응으로써 우리가 회의를 하는 법이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바로 여기 달려 있느니라." 하면서 지팡이를 들면서 그냥 벽력같이 물을 치니까, 양편으로 물이 다 쪼개지면서 물방울이 튀거든요. 그래도 이 제자는 그것을 납득도 못 하거니와, 따라다니면서도 그걸 납득을 못 했답니다.

그러자 은사와 제자는 같이 배를 탔는데, 그 배에는 지금으로 치면 정부를 끼고 수출을 하는 그런 물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삼(蔘)도 중국으로 많이 수출을 했고, 약재도 많이 수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배에다가 많은 짐을 싣고 가는데 해적이 나타났더랍니다. 해적이 나타나니까 "이놈아, 이 지팡이가 아니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느냐?" 하거든요.

그러니 그 지팡이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지팡이를 지팡이로 보신다면 그것은 지팡이를 정말 못 보는 일입니다. 지팡이를 지팡이로 본다면 못 보고, 눈을 눈으로 본다면 못 보는 것이고, 손을 손으로 본다면 못 볼 것이고, 발을 발로 본다면 못 볼 것이고, 저 길을 길로 본다면 못 볼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좋은 도리가, 보이지 않는 생명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리지 않는 세계에 모든 그 이치가 50%가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50%를 모르는 이치에서 우리가 50%를 가지고 사는 격이죠.

그래도 몰라서 있었더니 그 해적 배는 북쪽에서 오는 배고 이 상인, 즉 말하자면 물건 실은 배는 남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의 배는 이 물건을 뺏어야만 살겠고, 남쪽의 배는 이것을 고스란히 가져가야만 되겠고, 그러니 그 지팡이 하나가 문제입니다. '지팡이 하나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그 지팡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한 개의 승화된 바로 그 마음이라는, 한 주장자라는 지팡입니다. 그럼 '그 지팡이가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지어서, 자기는 미거하고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고 부처님이 나를 구해 주시고 모든 신의 이름들이 나를 구해 주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주장자는 내 마음의 눈도 되거니와 마음의 아주 선의의 칼도 되거니와 철퇴도 되거니와 바로 빛의 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불검도 될 수 있고, 수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검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는 그 네 가지의, 형성된 하나의 주장자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오관을 통해서 바깥의 현실과 지금 무(無)의 세계와 같이 혼합을 해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요 말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한마디 하죠. 옛날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란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이지 그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니니라. 부처님이란, 부처님한테다 절을 안 하고도 항상 절을 하고 있고, 또 계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세상 법에 어긋나지 않느니라. 남을 제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제도를 전체 하느니라." 그러니 모든 것이 우리가 참, 그 마음 하나, 하나로써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왜 스님은 이렇게만 말을 하나?' 하지 마시고, 모든 거를 자기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는 데 역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빠르고 더디고 한 사람들이 몇 층으로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은 놓고 그냥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고도 놓고 간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탄생을 못 했어도 또 굳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툭툭 던져서 지켜보고선 놓고 간다, 또. 그러면 세 가지가 다르냐 하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하는 거보다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굴려 가면서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보증을 서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대요. 그런데 주인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인제는 자기 집이 넘어가게 됐으니 남편한테도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그 사람이 깨달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얘깁니다. 아, 그래서 아주 갑자기 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예 당신이 알아서 해. 인제는 마지막 끝이야, 아주.' 이러고 '그저 12시 안으로만 왔으면….' 했답니다. 그랬더니 12시 안으로 착 들어서더랍니다. 자기가 먼 데로 떠나려고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생각나기를,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이러면 죄를 받아서 우리 식구들하고 전부 죽지.' 하는 생각이 무뜩 들면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집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 거를 자기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는 데 역점이 있는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을 살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 집만 산 게 아니라 그 집도 살게 됐어요.

그랬다는 셈으로 우리가 급하면 급한 대로 그렇게 응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급하면 급한 대로 하면서도 감사하게 또 놔라 이거야. 그거를 미끼로 삼아서 자꾸 거기에 빠지지 말고. 급한 데에 쓰이는 거지, 그거는, 그냥 무상시 때도 쓰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놓고, 우리가 모든 거 공부하는 데에 체험하고 놓고 돌아가고 하는 그 공부에 있어서 여기는 들어오는 문은 넓지만 나가는 문은 좁아요. 미국 학교나 마찬가지야. 공부하는 데는 자기 마음이 자유스러워야 어디 가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승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작대기가 별안간에 물검이 됐어요. 즉 말하자면 그것이 다섯 가지를 다 포함하고 여섯 번째에 내가 책정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검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바탕 딱 치니까 물이 쩍 갈라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더니 그 쫓아오던 배를 그 바람으로 하여금 파도가 일게 해서 그렇게 다 저쪽으로 내려가게 하니까 쫓아오질 못하고, 반쪽은 올라가게 바람이 부니까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무사히 물건은 가고, 이쪽 배는 배대로 그렇게 가면서도 그 밑의 고기 떼들이, 즉 고래라든가 상어가 들이덤벼서 배 밑창을 뚫어 놨답니다.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들어오니까 물 푸기 바빠서 거기 쫓아갈 새가 어디 있으며, 바람이 그쪽으로 지동 치듯 부니 그쪽으로 배는 점점 내려간다 이거야.

그럴 때에 노승이 한걸음에 그 배를 또 탔답니다. 저쪽 배는 무사히 돌려보내고 그 배로 작대기를 갖다 걸쳐 놓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리가 이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어져서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랬답니다. "이 마음, 한마음의 도리거늘 그 마음이 아주 추운 겨울에 얼음 언 거와 같이 그렇게 땡땡 얼었으니 어찌 봄이 와서 사람이 편안할 수가 있겠느냐. 마음에 봄이 온다면 스스로 봄이 와서 여러분 먹을 거는 스스로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해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라의 모든 것을 축내고 백성을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하면서 "이 밑을 보라." 했어요. 그래서 콸콸 쏟아지는 거를 스님이 작대기 하나로 탁 치니까 고기들이 전부 밑을 받친 거야.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오니까 가장자리로 다 옮겨 놓고선 또 그 고기들은 다 가 버렸지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펑펑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마음의 도리를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가 거기에서 그만 홀연히 깨닫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스승과 제자는 둘이 아니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스승의 지팡이가 자기 손에 쥐여 있고 그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더랍니다. 진짜 지팡이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진짜 지팡이를 감응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지팡이, 보배의 지팡이 하나만 갖는다면 우리의 앞날에 참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물질을 많이 만들어 놨어도 그 물질에 앞장서서 리드할 한 마음의 불씨는 드문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질을 많이 해 놨어도 감응으로 사는, 즉 말하자면 감응법으로 사는 세계에서는 두 가지 여건이 있죠. 한번 마음의 감응으로 정신의 발전을 빼 갈 수도 있는 거고, 생명의 근원을 빼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껍데기로 사는 겁니다. 발전을 못 해요. 아주 기운이 세고 운동을 아주 많이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쌈이 붙었다 합시다. 그런다면 운동을 갖가지로 다 잘 배운 사람한테는 한 손에, 한 번에 나가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벌써 '저 사람 손이라면 한 번에 나가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사람 마음은 벌써 그 사람한테 집어먹힌 겁니다. 집어먹혔어요. 거기에는 하등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20V에 120V가 닿으면 터지듯이, 코드를 꽂으면 터지듯이 그렇게 집어먹혀 버려. 집어먹히느냐, 집어먹느냐 이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지금 나라 나라에 경쟁이 있지만, 한 사회에도 경쟁이 있고, 또 한 가정 가정에도 경쟁이 있고, 생존 경쟁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나가는데, 더군다나 더 큰 것은 외국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 하면 손이 들이굽지 내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도 '한국 사람' 하면 한국 사람으로 치우칩니다, 다 그냥. 그렇듯이 우리가 지구의 사람이다 하면, 딴 혹성에서 만약에 경쟁이 있다면 우리 지구 사람들은 한데 합쳐져서 '우리 식구' 이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연쇄적으로 지금 돼 가고 있는 거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급급한 거는 뭐냐? 우리가 물질이 보인다면 컴퓨터나 뭐, 이런 책정기나, 망원경이나 무슨 영사기나 이런 걸 놓고 다 하지마는 그런 물건 없이 그런 걸 그냥 감응으로 다 쓰고 다 한다면 그거는 불가항력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물질을 가지고 안 하고 그냥 감응법으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아, 무궁무진한 천체망원경이라든가 또는 책정기라든가 또는 무전통신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 가지고, 이런 물질이 없는 그 자체 내에서 만약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혹성의 세계가 있다면…, 그런 혹성의 세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사는, 예를 들어서 케리라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나 그런 단체나, 소련이나 한국, 일본 이런 나라에서의 정보 수집이라든가, 또는 빨치산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군부라든가 또는 간첩이라든가 첩보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서 모든 것을 수집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이런 물건 없이 하는 법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몰라. 그러한 문제들이 있듯이 연쇄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보지도 못하고 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야 하겠지마는 그런 전체 혹성들이나 별성들에 못 산다고 하는 문제를 놓고 그렇게만 고집하지 말고, 그런 관념만 두지 말고, 이런 데서는 이런 대로 다양하게 살고 이런 데서는 이런 대로 다양하게 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불법을 알려면 아주 불 속에서도, 뜨겁지 않은 불 속에서도 살 줄 알아야 되느니라. 물 속에서도, 물 아닌 물에서 살 수 있는 그 법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고요, 또 칼 아닌 칼을 알아야 하고, 법 아닌 법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인간의 불씨가, 그렇게 우주를 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불씨가 있다면, 물질과학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리드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깁니다. 잘 리드해서 우리가 어떠한 큰 피해가 없이, 또는 다른 별성에 우리의 정신을 뺏기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고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또 반면에 원자력 에너지가 모자란다면 우리가 먹힐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지 없지는 않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만 나가지 말고 한번 좀 연구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 발전을 하면서도 조금조금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해 보고 다시금 굴려 보고 바깥으로 누설하지 말고, 바깥으로 내가 '이런 걸 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도 발설하지 말고 자기가 무르익도록 항상 해 나가야 하고, 또 내가 안에서 깨달았다 해도 '아,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만약에 무엇을 일러 줬다 하더라도…, 이런 걸 똑바로 들으세요.

바깥의 오관을 통해서 만약에 바깥에 상스러운 짓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 '아하! 이렇게 내가 하면 바깥에서 볼 때에 올바른 일이 아니고 상스럽다. 이거는 내 주인공에서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이런 것이지, 내가 만약에 남한테 미친 자식 소릴 듣는다면 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둘이다, 둘 아닌 내가 그대로 문제기 때문에 전체 불가(佛家)가 문제다 이거야. 종교인들 전체가 아주 미친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다 봐서 해야지. 저울추가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 이쪽이나 이쪽이나. 그렇기 때문에 거문고 줄이 늘어져서도 아니 되고 팽팽해서도 아니 되고 항상 탕 튕기면 아주 영명하게 잘 튕겨져서 소리가 짱짱 나야 되겠죠.

그것이 중도의 우리의 살림살이, 한마음에서 역시 살림살이해 나갈 수 있는 근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심주가, 주인공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뭐, 도둑질을 해도 괜찮은 줄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바깥의 이치를 다 아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 그거 잘못되게 시키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되는 거 번연히 알면서도 네가 양면을 어떻게 가지고 가나 그걸 보느라고, 한생각에서 그대로 양면을 다 쥐고서 이 법을 응용을 하는 데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 그걸 보느라고 그런 테스트를 해 보는 이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어물어물해 버리곤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어물어물한 것을 한번 잘 생각들 해 보세요. 어물어물한 이 말 속에 그 말이 들어 있습니다. 나로서도 어물어물할 수밖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이 붙여져 있나, 뭐가 붙여져 있나. 이름도 붙여져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한마음의 한 불씨라는 그 속에는 이 통신기로 인해서, 책정기로 인해서, 컴퓨터로 인해서, 이 물질이 아닌 나한테 다 들어 있는 걸로 인해서 그때 마지막에 가서는 책정을 하고는 검을 드는 거예요. 이것이, 즉 말하자면 불검이냐, 빛의 검이냐, 철퇴의 검이냐, 즉 물기둥의 검이냐. 그 검은 이름이 많지만 아주 이익하게 쓰이는 검입니다, 이 검은.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무당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해 주더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무당을 하치않게 봤기 때문에 꿈에도 하치않게 보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궂은일도 했다가 좋은 일도 했다가, 어떤 때는 장갑을 끼고 변소를 닦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요 손을 깨끗하게 닦고 보석 반지도 끼죠. 그런데 고무장갑을 끼고선 변소 닦을 때 자기 손을 업신여기겠습니까? 업신여기지 못하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나투어서 궂은일 할 때는 무당으로 보이고, 성스러운 아주 좋은 일 할 때는 부처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무당은 부처가, 법신이 저 아래로 내려서서 변소 닦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시에서 우리가 그런 걸 깔보지 말고 모든 것을 합류화시킬 수 있는, 어질고 착하고 지혜 있는 마음으로써 다 집어먹어라 이거야. 귀합을 시켜라. 저이도 그저 살 수 없으니까 저랬겠지. 마음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한생각 내 주는 그 무주상 보시를 내 주면 먹고살 수 있으면서도 그 짓을 안 하게끔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무주상 보시라고. 틀림없이 무당 노릇 안 해. 내가 수십 명 수백 명 다뤄 봤지만 그 사람네들 지금 잘 살거든요. 그게 말로 해 주는 거보다도, 오다가다가도 무당의 그 짓을 버리고 모셔 놓은 것도 다 없애 버리게 하고 잘 살게 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들한테도 미치지 않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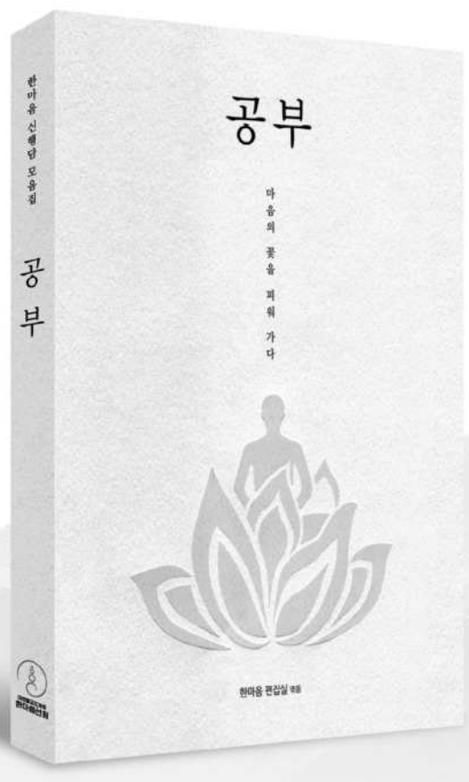
그러니 모든 게 이익이라. 깔보지 않고 무주상 보시 하는 거, 모든 게, 얕은 것도 나 아님이 없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 된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인간으로 형성된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른 물질이 다 생기고 인간이 맨 나중에 생겼다는 이유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모든 걸 깔보지 말고 합류화시킬 수 있는
어질고 착하고 지혜 있는 마음으로써
다 집어먹어라.
귀합을 시켜라.

※위 법문은 1986년 7월 12일 일반법회 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 현불 논단 |

여름휴가는 〈불교성전〉과 함께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지난 2월 종단본 〈불교성전〉 봉정
불교 교리 · 사상 통시적 이해 용이

잘 활용해야 '聖典' 역할 가능해져
독후감 · 사경 공모전 등 읽기 독려
어린이 성전 · 전문해설서 발간해야

대장경은 지혜 담긴 보배의 저장고
여름휴가서 읽을 필독서 강력 추천

지난 2월 24일 조계종은 최초로 종단본 〈불교성전〉을 금장으로 제작하여 부처님께 봉정하였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일상 언어로 쉽게 기술되었고,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어록 등을 용해해서 수록하였다. 불교 교리나 사상을 통시(統視)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여 독자는 읽기 좋고, 법사는 설법하기 좋도록 편찬되었다.

불교성전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지혜의 결정체요, 집합체이다. 불자가 신행을 하는데 의지처요, 불자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점을 제시한 안테나요, 내비게이션이다. 종단본 〈불교성전〉이 이제야 세상에 나온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앞으로 우리 불자들이 자나 깨나 읽고 또 읽고 해야 할 법보(法寶)이다.

〈법화경〉의 일곱 가지 비유 가운데 '옷 속에 감춰진 구슬의 비유(衣珠喩)'가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착한 불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원한 중생으로 사는 것이고, 드러내서 잘 사용하면 곧바로 부처의 삶을 살아간다는 가르침이다. 종단본 〈불교성전〉도 마찬가지다.

유교의 사서삼경이 고려, 조선시대에 국민의 필독 교과서가 된 것은 국가 과거시험의 교재였기 때문이다. 심혈을 기울여 종단에서 편찬한 〈불교성전〉을 종단이 큰 권위를 부여했다. 이제 일반 불교도서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성전(聖典)'이 되었다. 앞으로 종단은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신행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는 불교성전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독후감공모전, 사경 공모전, 성전의 문구 캘리그래피(손글씨) 공모전, 불교교리 퀴즈경시대회 등을 전개하여 불자들이 성전을 읽을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둘째는 법회의식에서 불교성전 읽기 의식을 추가하고, 어린이 · 청소년용 〈불교성전〉과 〈불교성전〉 해설서를 편찬해야 한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도록 불교성전 유튜브 강설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하며, 불교성전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셋째는 불교신도와 승려의 신행 평가나 면접에서 교재로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은 첫째는 모든 가정에 불교성전을 비치하고 매일 한 구절이라도 불교성전 읽기를 생활화하자. 둘째는 신도회나 신행단체별로 성전 홍포불사운동을 전개하여 호텔, 군부대, 교도소 등에 불교성전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하자.

〈금강경〉에 "만약 어떤 사람이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준다면 그 복덕은 칠보로써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크다"고 성전의 수지독송과 홍포설교의 공덕을 설하였다.

코로나19와 마스크에 빼앗긴 그 동안 숨 막히고 답답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니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역경을 지혜롭게 극복했을 때 해당되는 명언이 된다.

필자는 약간의 불면증이 있다.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면 밤을 샌 일이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잠을 자지 않고 잠이 올 때까지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 〈불교성전〉을 구입하여 격동하는 마음으로 3일을 밤낮으로 끝까지 보았다. 대장경(大藏經)은 분명 삶의 모든 지혜가 담긴 보배의 저장고이다.

코로나 여름휴가철에 불교성전을 읽는 기회로 삼아보자. 여름휴가에서 여행을 떠나면서 필수적인 것이 독서를 위한 책을 선정한다. 지속가능한 삶과 휴식을 하려면 마냥 노는 것은 불안하다. 올해 코로나 여름휴가철에 불교성전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 책은 읽는 즐거움이 있고, 한없는 지혜를 일깨워 준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늙음은 마음에서 온다

가을의 화려함을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요? 가을 단풍은 봄꽃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나뭇잎들이 연출하는 색의 향연에 초대받았으니 마음껏 즐겨야합니다. 우리에게 올해의 가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문득 오래 전의 신문기사가 생각납니다. 미국에서 상원의원까지 지낸 H씨가 그의 70세 생일에 자살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유언장과도 같은 그의 메모 속에는 오슬러 박사의 '한계의 법칙'에 대한 글도 있었습니다. 인간수명에 대한 학설(學說)을 다룬 짧은 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오슬러 학설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은 70세가 정명(定命)이다. 정명이 지나면 인간의 활동적인 원인은 이미 끝난다. 즉 지상에서의 인간의 임기가 종말을 고하는 셈이다. 나는 이제 더 살아본들 사는 보람이 없으므로 자살한다."

H씨는 '인간은 70세가 되고 나면 이 지상에서 무용지물(無用之物)이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성가신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오슬로의 학설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명을 한정해 버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의 한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수명을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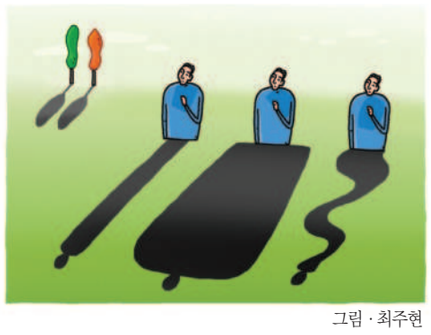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H씨처럼 자기의 수명은 '이만큼이다' 라고 믿게 된 사람은 제 아무리 건강을 누리고 있더라도 자신이 예상한 나이가 되면 스스로 정해놓은 규정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이지요.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뽑아낸 실속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감이나 비애감은 몸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나타납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늙어죽고 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맙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한정된 힘밖에는 없다고 믿을 때 그 이상의 힘은 결코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젊고 생기발랄하고 이 세상에 아직 쓸모가 있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육체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젊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연령에 이르게 되면 노쇠의 징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육신이 변화하고 달라진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우울해질 이유가 있습니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다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신도시포교 불사에 관심을

한국불교 신도시포교의 거점이 될 위례 상월선원이 7월 6일 착공식을 열고 불사 시작을 알렸다. 상월선원이 들어서는 경기도 하남시 불사 현장은 특전사 군법당인 호국 사자사가 위치했던 곳이다. 호국사자사는 1988년 특전사 불자대원들의 신행 공간이자 군포교를 위한 전략 도량으로 1만여㎡에 법당과 요사채 등 4동의 부속건물이 있었다.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해 특전사가 이전되며 호국 사자사도 이전이 불가피했고, 사자사 자리는 신도시 종교용지로 개발됐다. 이에 조계종은 2014년 호국 사자사 부지를 종교용지로 분양받고, 수많은 인허가 과정을 거쳐 이날 불사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상월선원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그동안 불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화시설을 지어 지역민들에게 회향하겠다는 계획에도 사찰 법회 시 소음과 대중 운집 등을 빌미로 각종 민원이 제기됐다.

주변 개신교 교회 건립에 대한 민원에 비해 현격히 많은 사찰 건립에 대한 민원은 주민 중 특정 종교인들의 집단행태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낳게 했다.

불교계가 한발 물러서 당초 제시한 불사에 비해 현격히 축소된 대웅전과 요사채 만을 짓기로 한 것은 이러한 반대 여론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도시 포교를 위해서 상월선원은 계속된 불사를 진행해야 한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서울 동남부와 하남 등의 전략적 포교를 담당할 상월선원 불사에 불자들의 전방위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나눔의집, 이대론 안 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안식처 나눔의집이 운영논란 사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임시이사회서 상임이사 직무대행에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이 선출되면서 일부 기대의 시각들이 나오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경기도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스님이사 5명을 해임하면서 나눔의집은 올 1월부터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 중이다. 당면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임시이사회의 권한이 한정된 까닭에 이렇다 할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화 과정이 지지부진했던 6개월 간 내부갈등은 고착화된 모양새다. 일부 내부직원들의 근무지 이탈과 지시불이행, 임의적인 업무수행 등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후원금 규모도 90% 이상 급감했다. 사회적 뭇매를 맞는 과정에서 후원자들이 이탈할 수는 있지만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태 당시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시설이자, 과거 무관심과 편견으로 점철됐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끈 성과가 있다. 어려운 시절 할머니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섰고, 이후 30년 가까이 불교계의 원력과 관심으로 지속돼 왔다. 불자들이 시급한 정상화를 염원하는 이유다.

지난해 이사 스님들에 대한 횡령 등 각종 의혹들은 경찰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해임조치를 고집하면서 나눔의집이 정상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진행중인 '해임명령 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등 부당성을 가리기 위한 법정 공방이 모두 끝났을 때는 나눔의 집이 더욱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를 일이다. 조속히 정식이사회가 가동돼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15~6 /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연에서 찾은건강

"고객님의 건강을 생각하며 담은 건강한 자연! 믿고 드셔도 됩니다."

300BOX 한정특판 특별보급

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백두대간에서 재배한 돌배 세월담은 도라지 스틱 液



[제품용량] 10ml x 30포(300ml) / 액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도라지추출물(고형분8%이상, 도라지뿌리 11.11%)56.9%,
배추출물(고형분4%이상 / 돌배나무열매11.11%)12%,
배농축액(고형분60%이상)8%

인터넷에서 도라지 추출물 성분인
NAVER 플라티코딘D효능 ▼ 을 검색하세요.

백두대간 재배 약도라지, 돌배 제품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 무농약, 유기농 재배, HACCP 인증
- 백두대간 800m에서 이식 재배한 8년근 약도라지 사용
- 다양한 영양성분과 유기산이 풍부한 유기농 돌배 사용.
- 평창 동계올림픽 면세점에서도 판매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도라지에 함유된 "플라티코딘 D"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제17303135호
GAP (우수관리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제1010417호

자연에서 찾은 건강 진액골드 노루궁뎅이버섯 津液



[제품용량] 80ml × 30개입 / 1일 1~2회 /1회 (80ml)
[원재료명 및 함량]
노루궁뎅이버섯추출액88.9%(노루궁뎅이버섯 고형분 2%, 국산), 배농축액10%(국산), 오미자청(국산),
생강농축액(국산)

인터넷에서 NAVER 노루궁뎅이버섯효능 ▼ 을 검색하세요.

노루궁뎅이버섯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 실버식품으로도 불리우는 노루궁뎅이버섯은 인지개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헤리세논, 에리나신 함유.
- 위산분비 조절, 염증개선 및 위장운동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올레아놀릭산" 함유.
-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제거 역할.
-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

문의 : 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